

# 2026 영국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 Contents

---

## I. 진출 환경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8 |
| 가. 정부 현황                              | 08 |
|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09 |
| 3. 주요 이슈 Pick                         | 12 |
| 가. 현대 산업 전략(IS-8) 발표로 산업 구조 전환 본격화    | 12 |
| 나. 국영 에너지 기업 GB Energy 출범으로 넷제로 전환 박차 | 14 |
| 다. 따로 또 같이, EU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            | 15 |
| 라. 실버 웨이브, 고령화로 떠오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 16 |

---

## II. 시장 분석



|                                  |    |
|----------------------------------|----|
| 1. 시장 현황                         | 20 |
| 가. 시장 특징                         | 20 |
| 나. 무역                            | 21 |
| 다. 산업                            | 29 |
| 라. 투자                            | 31 |
| 2. 유망 산업                         | 38 |
| 가.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 38 |
| 나. 청정에너지(Clean Energy)           | 49 |
| 다. 생명과학(Life Sciences)           | 60 |
| 3. 협력 기회                         | 65 |
| 가. 통상                            | 65 |
| 나. 프로젝트                          | 66 |
| 다. 공급망(자원개발)                     | 69 |

---

## III. 진출전략



|                                      |    |
|--------------------------------------|----|
| 1. PEST/SWOT 분석                      | 71 |
| 2. 진출전략                              | 73 |
|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 91 |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 95 |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97 |
|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98 |

#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8 |
| 3. 주요 이슈 Pick | 12 |

# I 진출 환경



## 1. 경제 환경

□ (전망) '26년 영국 경제 성장률은 '25년과 동일한 1.3%로 비슷한 수준 유지(IMF(국제통화기금), '25년 10월)

- 통화 완화(Monetary Easing), 자산 효과(Wealth Effect), 소비자 신뢰 회복, 추계 예산안(Autumn Budget)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경제 성장 견인 노력
  - (물가) 물가 상승률 점차 둔화하여, '26년 2.5% 전망(IMF, '25년 10월)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 '26년 말 기준 인플레이션 목표 2%대로 설정('25년 물가 상승률 3.4%)
  - (금리) '26년 하반기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3%대 도달 예상  
\* '25년 기준금리 변동 추이 : 4.75%(1월) → 4.25%(5월) → 4.00%(9월)
  - (최저임금) '26년 4월부 성인 최저임금 시간당 12.71파운드(약 2만 3,960원)로 약 4.1% 인상 검토 중
  - (실업률) '2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6년 약 4.6% 전망(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5년 7월)

### 주요 기관·협회별 '26년 영국 거시경제 전망 비교

| 기관명                              | 발표 시점    |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 인플레이션 | 실업률  |
|----------------------------------|----------|------------------|-------|------|
| OBR(예산책임처)                       | '25년 3월  | 1.9%             | 2.1%  | -    |
| CBI(영국 산업연맹)                     | '25년 6월  | 1.0%             | 2.5%  | 4.8% |
| EY ITEM Club<br>(EY 산하 독립 경제연구소) | '25년 7월  | 0.9%             | 2.6%  | 4.5% |
| IMF(국제통화기금)                      | '25년 10월 | 1.3%             | 2.5%  | 4.7% |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25년 6월  | 1.0%             | 2.3%  | 4.6% |
| BCC(영국 상공회의소)                    | '25년 9월  | 1.2%             | 2.2%  | 4.6% |

자료: 각 기관·기업별 홈페이지, KOTRA 련던무역관 종합

□ (성장 요인) 정부의 '현대 산업 전략(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2025)' 발표 ('25년 6월)에 따른 8대 전략 산업 중심 연구개발(R&D) 및 자본 투자 본격화

- '26년은 장기 성장 로드맵의 초석을 놓는 해로 자리매김할 전망
  - 기술 산업 육성, 내수 회복, 인프라 투자, 기업 혁신 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 □ (제약 요인) 기업 투자 정체, 정부 차입 증가, 글로벌 무역 긴장 등 상존

- 고물가 여파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기업은 장기 투자를 미루는 경향을 보이며,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에 무게를 둘 가능성 존재
  - 영국 상공회의소(BCC)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75%가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세금 인상이 주요 장벽으로 작용
- '24·'25년 회계연도 기준 정부 차입 규모가 전년 대비 207억 파운드 증가한 1,519억 파운드(약 288조 8,000억 원)로, '47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차입액 기록
  - 팬데믹 이후 대폭 늘어난 재정지출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공공지출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지출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OECD, 영국 공공재정 완충 여력 취약에 따른 세수 확충 등 목표 지출 삭감 필요성 지적('25년 6월)
- IMF,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영향으로 영국 GDP가 '26년까지 0.3% 감소할 수 있음을 경고('25년 5월)

## □ 주요 경제지표

| 주요지표         | 단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인구           | 백만 명     | 66.8    | 67.1    | 67.3    | 67.6    | 68.5    | 69.2    | 69.9   | 70.4   |
| 명목 GDP       | 십억 달러    | 2,853   | 2,698   | 3,144   | 3,125   | 3,371   | 3,644   | 3,958  | 4,225  |
| 1인당 명목GDP    | 달러       | 42,712  | 40,230  | 46,731  | 43,233  | 49,213  | 52,648  | 56,660 | 60,011 |
| 실질 성장률       | %        | 1.6     | -10.3   | 8.6     | 4.8     | 0.4     | 1.1     | 1.3    | 1.3    |
| 실업률          | %        | 3.8     | 4.6     | 4.6     | 3.8     | 4.1     | 4.3     | 4.7    | 4.7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1.8     | 0.9     | 2.6     | 9.1     | 7.3     | 2.5     | 3.4    | 2.5    |
| 재정수지(GDP 대비) | %        | -2.47   | -13.17  | -7.73   | -4.56   | -6.05   | -5.75   | -4.42  | -3.74  |
| 총 수출         | 십억 파운드   | 702.7   | 623.6   | 673.0   | 842.9   | 861.3   | 887.7   | na     | na     |
| (對韓 수출)      | 백만 달러    | 4,168.9 | 4,370.3 | 5,809.6 | 5,775.2 | 5,147.8 | 4,572.2 | na     | na     |
| 총 수입         | 십억 파운드   | 727.7   | 609.2   | 666.4   | 893.1   | 908.5   | 909.6   | na     | na     |
| (對韓 수입)      | 백만 달러    | 5,514.8 | 4,467.3 | 5,962.1 | 6,340.9 | 5,958.4 | 6,641.9 | na     | na     |
| 무역수지         | 십억 파운드   | -24.9   | 14.4    | 6.5     | -50.1   | -47.2   | -21.9   | na     | na     |
| 경상수지         | 십억 파운드   | -31.2   | 12.8    | -3.5    | -66.8   | -33.4   | -63.0   | na     | na     |
| 환율(연평균)      | 현지국/US\$ | 1.28    | 1.28    | 1.37    | 1.23    | 1.24    | 1.27    | 1.3    | na     |
| 해외직접투자       | 십억 달러    | 11.7    | -95.8   | 84.6    | 95.3    | 67.1    | 25.2    | na     | na     |
| 외국인직접투자      | 십억 달러    | 53.9    | 44.3    | -72.0   | 14.9    | 52.1    | -40.0   | na     | n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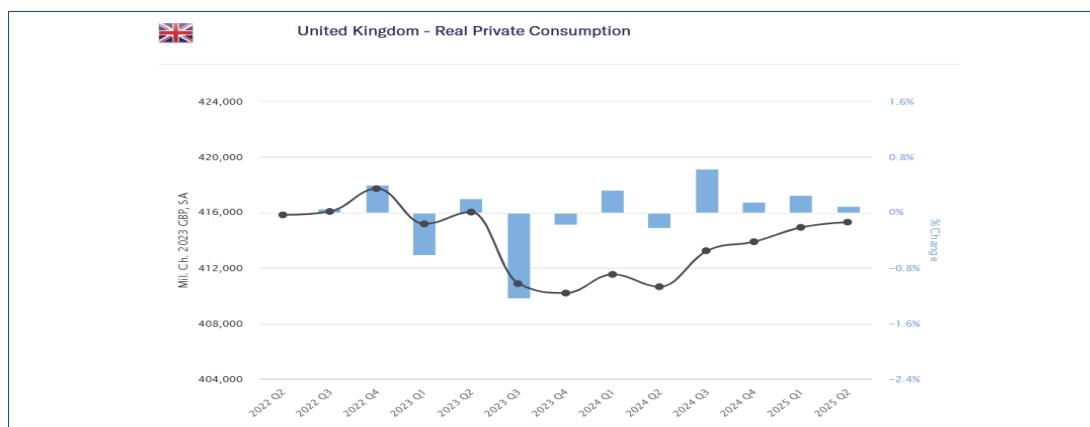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자료: IMF(인구, 명목 GDP, 1인당 명목 GDP, 실질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Statista(재정수지), 한국무역협회(對韓 수출·수입), 영국 통계청(총 수입, 총 수출, 투자, 경상수지), 우리은행(환율), UNCTAD(해외투자)

##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 성장률) '25년 추정치는 최대 1.3%로 기존 제시된 잠재 성장률(1.5~1.8%) 하회
  - 2분기 성장률은 0.3%로, 전 분기 성장률 0.7%에 비해 둔화(영국 통계청(ONS), '25년 9월)
  - 서비스업(0.4%)과 건설업(1.2%)이 성장을 견인했으며, 생산 부문은 -0.3% 감소
    - \* ▲미국 상호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 감소, ▲국민보험료(NIC) 고용주 부담분 인상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소비) 실질 민간 소비는 4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

〈'22년 2분기~'25년 2분기 영국 실질 민간 소비 추이〉



자료: Moody's Analytics, 영국 통계청(ONS)

- '25년 2분기 기준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교통, 음식점 및 호텔 부분 지출이 민간 소비 증가를 견인 (ONS)
- '25년 9월 소비자 신뢰 지수-21로, 물가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 하락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시장조사기관 GfK)

〈'07~'25년 GfK 소비자 신뢰 지수 추이〉



자료: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 (민간 투자) '25년 2분기 기준 영국 기업 투자는 전 분기 대비 1.1% 감소
  - 운송 장비, 지식재산권 관련 자산, 정보통신(ICT) 장비 및 기타 기계·장치 투자는 감소한 반면, 건물 및 구조물 투자 증가가 감소 폭 일부 보완
- (종합 구매관리자(PMI) 지수) '25년 9월 기준 51.0(최근 5개월 중 최저치)
  - (제조업) '25년 9월 기준 46.2(3월 44.9로 최저치 이후 소폭 회복)
    - \* 업계는 제조업 약세의 주요 원인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분석
  - (서비스업) '25년 9월 기준 50.8(5~8월 연속 상승세 저지)
- (기준금리)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한 차례 추가 인하 유력
  - \* '25년 기준금리 변동 추이 : 4.75%(1월) → 4.25%(5월) → 4.00%(9월)
- (대외 교역) '25년 2분기 상품·서비스 전체 무역 적자는 9억 2,000만 파운드(약 1조 7,600억 원)로 전 분기 대비 2억 6,000만 파운드(약 4,898억 원) 확대
  - 비EU 시장 수출 감소로 상품 무역 적자가 확대된 반면, 서비스 수출은 강세 유지
- (투자 유입) '24·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프로젝트 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총 1,375건이며, 경제적 효과는 총 60억 4,100만 파운드(약 11조 4,539억 원)로 추산됨
  - 신규 일자리 수는 6만 9,355개로 전년 대비 14% 증가
  -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81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기존 투자의 확장과 인수합병(M&A)은 전년 대비 각 4%, 7% 증가
    - \* 영국 산업통상부(DBT) 지원 프로젝트 836건 기준
- (투자 진출) '24년 영국의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은 252억 9,700만 달러
  - 글로벌 경제 성장둔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FDI 규모 위축세
  - 지난 10년간 영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은 미국으로, '23년 기준 66억 파운드(약 12조 6,000억 원) 투자

### '22~'24년 영국 해외직접투자 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집계 기준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유량(Flow)  | 95,352    | 67,170    | 25,297    |
| 저량(Stock) | 1,686,260 | 2,222,107 | 2,285,029 |

자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25'

## 2. 정치(정책) 환경

- '24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정부, 집권 기간 중 국가 목표 설정
-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및 현대 산업 전략(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발표를 통해 첨단 제조,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등 전략 산업 지원 집중
- ESG 공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UK CBAM) 등 지속가능성 규제 도입

### 가. 정부 현황

#### □ 정부,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을 통해 국가 비전과 운영 로드맵 발표

- 노동당은 집권 기간 중 5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 목표 설정
  - ▲경제 성장 본격화, ▲청정에너지 강국 육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보육·교육 시스템 개혁, ▲미래형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보건서비스) 구축

#### ※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 5대 핵심 분야(Missions) 및 목표

- (경제 성장 본격화) G7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만드는 것을 목표
- (청정에너지 강국 육성) '30년까지 최소 95%의 청정 전력 달성 및 넷제로 전환 가속화
-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인구 밀도가 높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1만 3,000명의 추가 경찰 인력 투입
- (보육 및 교육 시스템 개혁) 5세 아동의 75%가 학교 입학 시 기초 학습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과 교육 기회 보장
- (미래형 NHS 구축) 일반 환자의 92%가 18주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대기 적체 해소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BBC NEWS

#### □ 기존 양당 정치 구도 변화 조짐

- '25년 5월 잉글랜드 23개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영국개혁당(Reform UK)\*이 전체 의석의 약 41%를 차지하며 노동당과 보수당 중심의 양당 구도에 변화 야기(House of Commons Library, '25년 7월)
  - 노동당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정치적 견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 브렉시트당(The Brexit Party)을 개편하여 '20년 창당된 우파 성향의 정당으로, '기존 정치 질서의 개혁 (Reform)'을 내세우며 반이민, 저세금, 규제 완화, 공공부문 축소를 주요 정책 기조로 함

##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 (정책) 국가 주요 산업 육성 전략 및 정부 지출 확대 계획 발표

-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2025)'를 통해 영국 재건을 위한 정부 지출 계획 수립('25년 6월)
  - 정부 혁신, 국가안보, 보건 및 공공서비스, 경제 성장 및 청정에너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처별 예산 배분

#### '25년 주요 부처별 예산 배분 내용

| 부처명                    | 세부 내용   |
|------------------------|---|
| 보건·사회복지부<br>(DH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한도) '23·'24년 1,885억 파운드 → '28·'29년 2,467억 파운드 확대(연평균 +2.8%)</li> <li>• NHS 개혁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 배정</li> <li>• ▲노후 건물 수리를 위해 향후 5년간 300억 파운드 예산 투입, ▲디지털 진료 시스템 구축, ▲AI 기반 진료 지원 솔루션 도입(100억 파운드)</li> </ul>  |
| 국방부<br>(Mo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한도) '23·'24년 539억 파운드 → '28·'29년 735억 파운드 확대(연평균 +3.6%)</li> <li>• 현재 GDP의 2.3% 수준에서 '27년 4월 2.6% 수준까지 지출 확대</li> <li>• ▲핵무기 150억 파운드, ▲지향성 에너지 무기 10억 파운드, ▲드론 등 자율 무기 시스템 40억 파운드, ▲탄약 60억 파운드, ▲군 숙소 등 인프라 70억 파운드, ▲보안서비스 6억 파운드</li> </ul>             |
| 주택·지방정부부<br>(DLUH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한도) '23·'24년 101억 파운드 → '28·'29년 135억 파운드 확대(연평균 +3.0%)</li> <li>• '26·'27년부터 10년에 걸쳐 390억 파운드 규모의 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추진</li> <li>• '29년까지 신규 주택 150만 호 건설 목표</li> </ul>   |
|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br>(DESNZ)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한도) '23·'24년 53억 파운드 → '28·'29년 126억 파운드 확대</li> <li>• 연평균 증가율 16.0%로 부처 중 가장 높은 실질 증가 폭 기록하며 정부의 해당 분야 육성 의지 재확인</li> <li>•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전 건설 프로젝트 142억 파운드, ▲소형 모듈 원자로(SMR) 프로그램 25억 파운드, ▲핵융합 프로젝트 25억 파운드,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94억 파운드</li> </ul> |
| 교통부<br>(Df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한도) '23·'24년 223억 파운드 → '28·'29년 259억 파운드 확대</li> <li>• 영국 전역의 지역 교통, 도로 철도 인프라, 청정교통 전환 중점 투자</li> <li>• '31·'32년까지 잉글랜드 주요 도시 지역 무배출 버스, 트램, 지역 철도 등에 156억 파운드 투자 등</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Spending Review 2025, KOTRA 런던무역관 정리

- 동시에 '현대 산업 전략(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2025)'을 발표하여 향후 10년에 걸친 산업정책 청사진을 제시
  - 영국의 강점을 살린 8대 전략 산업(IS-8)\* 육성을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과 기업 투자 확대를 목표로 설정

\* 첨단 제조, 청정에너지, 창조 산업, 국방, 디지털·기술, 금융서비스, 생명과학, 전문·기업지원 서비스

## □ (통상정책) 국가 번영(Prosperity)과 안보(Security)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무역 전략(Trade Strategy)’ 발표(‘25년 6월)

- ▲공급망 회복력 구축, ▲국가안보를 위한 경제적 수단 유지, ▲무역 방어체계 강화, ▲기업 협력 강화의 ‘4대 대응 축’을 활용하여 유망 산업 우선 지원



### 무역 전략(Trade Strategy) 4대 대응 축(4 Pillars of the UK Trade Strategy)

- (공급망 회복력) ▲핵심 원자재, 부품, 장비 수입 경로 다변화 및 ▲반도체, 의약품,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 (국가안보 강화) 핵심 산업 자립성 확보, 전략 기술 보호 및 산업 보호 조치 확대
- (무역 방어체계 강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단을 통한 전략 산업 보호, 불공정 거래 대응
- (기업과의 협력 강화) 민관 협력 확대 및 산업별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영국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 □ (노동) 생산성 및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해 고용 권리 법안(Employment Right Bill) 개정 예정

- ’25년 말 법안 발효 예정 및 실질적인 시행은 ’26~’27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



### 고용 권리 법안 주요 내용

- (고용 안정성 보장) 불공정 해고(Unfair Dismissal)\* 보호 확대, 제로아워(Zero-hours)\*\* 계약 규제 강화 등  
\*현재는 고용 후 2년이 지나야 부당 해고 보호가 가능했지만, 입사 첫날부터 해고 보호를 받도록 변경  
\*\*보장된 근무시간, 근무일정에 대한 합리적 사전 통지, 근무 취소 시 단기 통지에 대한 보상 권리 부여
- (임금·보상 및 노동 조건 개선) 법정 병가 수당(Statutory Sick Pay, SSP) 대기일(기준 3일) 폐지
- (가족 친화력 권리 강화) 부성휴가(Paternity Leave)와 무급 부모 휴가(Unpaid Parental Leave) 입사 첫날부터 적용, 유족 휴가(Unpaid Bereavement Leave) 신설, 임신·출산휴가 복귀 후 6개월 내 해고 금지, 유연근무제 강화 등
- (공정·평등·복지 증진) 고용주에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및 갱년기 지원계획(Action Plan) 작성 의무 부여,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의무 강화 등
- (노동조합 관련 법 현대화) 노조 대표에 대한 새로운 권리와 보호 도입, 노동조합 디지털 접근 확대 등
- (노동권 집행 강화) 공정노동청(Fair Work Agency)\* 설립  
\*불법·불공정 고용 관행을 단속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mployment-rights-bill-factsheets>)

## □ (규제) 탄소중립 및 ESG 공시 정책 강화

- 영국 정부, '25년 하반기 최종 확정을 목표로 '영국형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UK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SRS)' 초안 공개



### 영국형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UK SRS) 주요 내용 요약

- (개요) 영국 회계감독청(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산하 UK Endorsement Board가 '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공개한 ESG 공시 기준 초안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의 S1, S2를 기반으로 한 영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핵심구성) IFRS의 S1·S2를 기반으로 공시
  - S1(General Requirements) :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리스크, 기회 등)에 대한 재무적 영향 공시
  - S2(Climate-related Disclosures) :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목표(TCFD 프레임워크) 공시
- (적용대상) 상장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매출 5억 파운드 이상, 직원 500명 이상)을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비상장 중견 기업으로 확대 예정

-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지향하는 규제 강화 추세의 일환
  - ESG 공시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력업체로부터 관련 정보 제공이나 조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영국 내 ESG 관련 주요 제도 및 제도별 세부 내용

| 제도명   | 시행 시기              | 세부 내용   |
|---|--------------------|---|
| 현대판 노예제법<br>(Modern Slavery Act 2015)                                   | '15년               | 연 매출 3,600만 파운드(약 689억 원) 이상의 기업은 노예·강제 노동 방지 조치를 공급망 보고서에 의무 공개        |
| 간소화된 에너지 탄소 보고 규정<br>(Streamlined Energy & Carbon Reporting(SECR))      | '19년               | 영국 대기업, 상장기업 대상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보고 제도로, 기업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연간 보고서에 의무 공시 |
|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br>(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22년               | 상장기업 및 대형 금융기관 대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기회 공시 의무화                                 |
| 지속가능성 공개 요건<br>(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            | '24년               | 금융기관에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보고할 의무 부과 ('25년 하반기 완전 의무화 예정)                   |
| 탄소국경조정제도<br>(Cross Border Adjustment Mechanism, UK CBAM)                | '27년 1월 1일<br>(예정) |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탄소 배출 제품에 대해 생산국에서의 탄소 가격과 영국의 탄소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 부과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KOTRA 런던무역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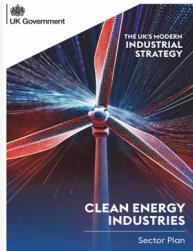
### 3. 주요 이슈 Pick

#### 가. 현대 산업 전략(IS-8) 발표로 산업 구조 전환 본격화

##### □ ‘현대 산업 전략(Modern Industrial Strategy 2025)’ 발표(‘25년 6월)

- 장기 성장잠재력이 큰 8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영국 내 산업 구조 전환 및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10년 로드맵 제시
  - ▲첨단 제조, ▲청정에너지, ▲생명과학, ▲창조 산업, ▲디지털 및 AI 기술, ▲금융서비스, ▲전문·비즈니스서비스, ▲국방
  - 부처별 섹터 플랜(Sector Plan)을 잇따라 발표하며 맞춤형 정책과 세부 투자 지원책 마련

#### 영국 현대 산업 전략(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2025) 주요 내용

| 핵심 분야(IS-8) | 보고서   | 섹터플랜 명칭 및 주요 내용   |
|-------------|---|---|
| 첨단 제조       |   | <p><b>첨단 제조 섹터 플랜<br/>(Advanced Manufacturing Sector Pl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관 부처 : 산업통상부(DBT), 국방부(MoD)</li><li>• 주요 내용 : 배터리·반도체·첨단소재 투자,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및 인프라 확대, 공급망 복원력 강화</li><li>• 주요 클러스터 위치 : 미들랜드(자동차·항공), 맨체스터·셰필드(첨단소재), 웨일즈(반도체)</li></ul>   |
| 청정에너지       |  | <p><b>청정에너지 섹터 플랜<br/>(Clean Energy Sector Pl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관 부처 :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li><li>• 주요 내용 : 해상풍력 50GW 목표, 수소 생산·저장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 (SMR), GB Energy 통한 공기업 주도 투자 등</li><li>• 주요 클러스터 위치 : 노스이스트·요크셔(Offshore Wind), 스코틀랜드 (해상풍력·수소), 웨일즈(원자력·수소)</li></ul>                            |
| 생명과학        |  | <p><b>생명과학 섹터 플랜<br/>(Life Sciences Sector Pl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관 부처 : 보건·사회복지부(DHSC)</li><li>• 협업 부처 : 산업통상부(DBT), 과학혁신기술부(DSIT) 등</li><li>• 주요 내용 :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희귀질환 치료제 지원, 임상시험 간소화, NHS와 연계한 디지털 헬스 촉진</li><li>• 주요 클러스터 위치 :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골든 트라이앵글), 노스이스트, 스코틀랜드 바이오허브 등</li></ul> |

| 핵심 분야(IS-8) | 보고서   | 섹터플랜 명칭 및 주요 내용  |
|-------------|---|--|
| 창조 산업       | The cover features a circular graphic with blue and red concentric rings, the title '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at the top, and 'CREATIVE INDUSTRIES Sector Plan' at the bottom.                                | <p><b>창조 산업 섹터 플랜<br/>(Creative Industries Sector Pl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부처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li> <li>주요 내용 : 게임·OTT·VR·메타버스 산업 육성, 세제 감면, AI 기반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공동제작 파트너십 강화</li> <li>주요 클러스터 위치 : 런던 미디어시티(미디어·방송), 맨체스터(게임), 브리스톨·카디프(영상 제작)</li> </ul>   |
| 디지털·기술      | The cover features a circuit board graphic with red and blue lights, the title '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at the top, and 'DIGITAL AND TECHNOLOGIES Sector Plan' at the bottom.                                | <p><b>디지털·기술 섹터 플랜<br/>(Digital &amp; Technologies Sector Pl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부처 : 과학혁신기술부(DSIT)</li> <li>협업 기관 : AI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반도체 전략과 연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li> <li>주요 내용 : AI·양자·반도체 지원, 데이터 규제 개혁, 글로벌 AI 안전 규범 주도</li> <li>주요 클러스터 위치 : 런던 테크시티(핀테크), 케임브리지(딥테크), 맨체스터 (사이버·데이터)</li> </ul> |
| 금융서비스       | The cover features a graph with red and blue lines, the title '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at the top, and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 at the bottom.                               | <p><b>금융서비스 섹터 플랜<br/>(Financial Services Sector Pl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부처 : 재무부(HMT)</li> <li>주요 내용 : 핀테크·그린파이낸스 집중,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충,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확대</li> <li>주요 클러스터 위치 : 런던(시티 금융 중심지), 에든버러·글래스고(자산 운용·보험)</li> </ul>  |
|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 The cover features a city skyline graphic with red and blue lights, the title '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at the top, and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Sector Plan' at the bottom.                       | <p><b>전문·비즈니스서비스 섹터 플랜<br/>(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Sector Pl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부처 : 산업통상부(DBT), 재무부(HMT)</li> <li>주요 내용 : 컨설팅·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li> <li>주요 클러스터 위치 : 런던(로펌·컨설팅), 맨체스터·리즈(백오피스·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li> </ul>                        |
| 국방          | The cover features a military aircraft graphic with red and blue lights, the title '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at the top, and 'DEFENCE INDUSTRIAL STRATEGY Making Defence an Engine for Growth' at the bottom. | <p><b>국방·방위산업 섹터 플랜<br/>(Defence Industrial Strateg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부처 : 국방부(MoD)</li> <li>주요 내용 : 첨단 방위 산업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 NATO 협력 확대</li> <li>주요 클러스터 위치 : 노스웨스트(BAE Systems, Rolls-Royce), 스코틀랜드 (조선·해양), 웨스트미들랜즈(방산 부품) 등</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발표 자료(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2025) 종합

- ‘보건·에너지·첨단 제조·디지털기술’ 4대 축으로 경제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
  - (보건) NHS와 연계한 실증 환경을 활용해 신약·디지털 헬스 조기 상용화 촉진
  -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 총괄, 민간 기업은 공급망 협력자 역할 수행
  - (첨단 제조) 교통·항공 중심의 탈탄소화 추진 및 기존 제조업의 친환경화·자동화
  - (디지털·AI) 단순 기술 투자를 넘어 AI 안전 규범 제정과 글로벌 AI 허브화
- 핵심 분야와 연계된 산업에서는 공동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비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규제 강화 발생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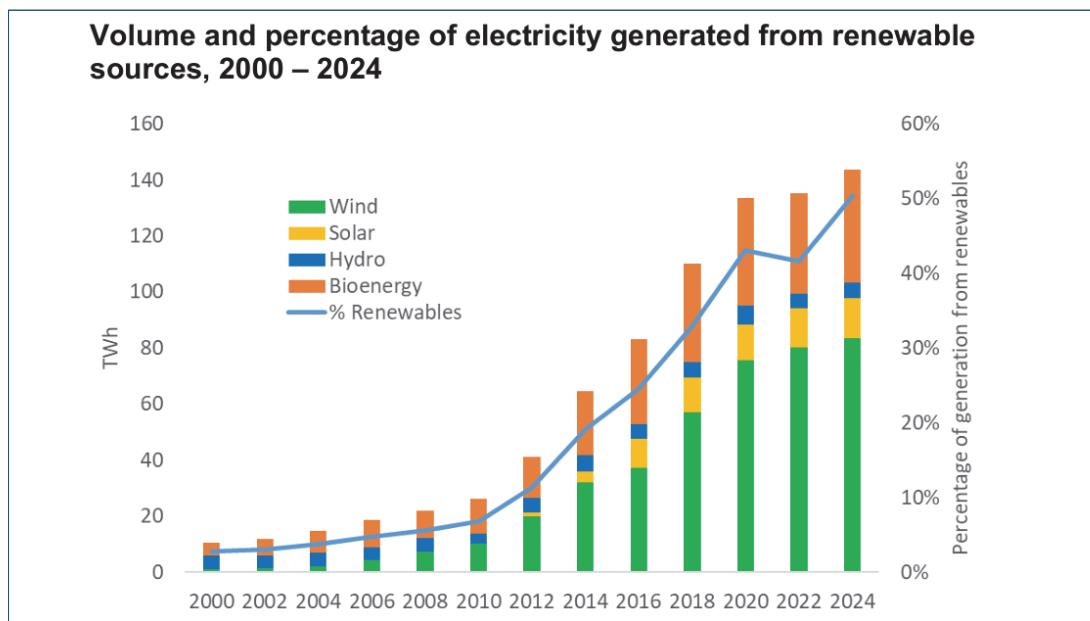
※ (진출 POINT) 전략 산업별 섹터 플랜·지역 클러스터를 활용한 진출 로드맵 설계

## 나. 국영 에너지 기업 GB Energy 출범으로 넷제로 전환 박차

### □ ‘Great British Energy Act 2025’ 수립 이후 국영 에너지 기업 주도로 재생·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추진

- 재생에너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
  - (GB Energy 설립) 국영 에너지 기업이 직접 투자·조달·인프라 프로젝트 총괄
  - (전력 구조 변화) ’24년 기준 영국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영국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및 비중(‘00~’24년)〉



자료: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발표 자료(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Annual Data for UK, 2024(‘25년 7월))

- (정책 목표) '30년까지 해상풍력 50GW 설치, 수소 생산·저장 인프라 확충 등
-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저장·송전 전반 산업 기회 창출 전망
  - (해상풍력) 터빈·해저케이블·발전 인프라 수요 급증
  - (수소) 블루·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위한 저장·운송망 구축
    - \* 블루수소 : 기존 천연가스와 수증기 반응(개질)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식
    - \* 그린수소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관련 기자재·부품 조달 확대
  - (에너지 저장·송전) 에너지저장장치(ESS)·전력망 안정화 기술 필요성 증대
- 대부분 공공 주도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현지 EPC·유ти리티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

**※ (진출 POINT) 초기 진출 시 현지 에너지 및 기자재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고려**

#### 다. 따로 또 같이, EU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

##### □ 노동당 정부 출범('24년 7월)을 기점으로 EU와의 실용적 협력 복원 추진 중

- 브렉시트(Brexit) 이후 무역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단계적 제도 보완 시행
  - '20년 영국-EU 무역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CA) 체결에도 불구하고 통관·인증 문제 지속
  - '24년 통관제도 정비와 다자 협정 확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5년 공급망·환경·의료기기 등 핵심 산업 분야 중심의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 본격화

### 영국-EU 협력 복원 주요 동향

| 시점       | 주요 조치                                     | 내용   |
|----------|---|--|
| '24년 1월  | 원저 프레임워크<br>(Windsor Framework) 발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아일랜드-영국 본토 간 통관 절차 간소화</li> <li>녹색·적색 루트 도입으로 EU 표준 일부 재도입</li> <li>(시사점) 브렉시트 후 통관 혼란 완화의 첫 실질적 합의</li> </ul> |
| '24년 7월  | 노동당 정부 출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와의 경제 협력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설정</li> <li>브렉시트 이후 실용적 관계 재정립 전명</li> <li>(시사점) 규제 조화, 무역 안정 중심의 EU 정책 복귀 선언</li> </ul> |
| '24년 5월  | BTOM(UK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비EU 식품·농산물 통관 절차 강화 및 표준화</li> <li>국경 절차 명확화로 통관 효율 개선, 다만 행정 비용 부담은 여전히 존재</li> </ul>                      |
| '24년 7월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정식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 누적 규정, 디지털 무역 규범 등 적용 시작</li> <li>(시사점) 비EU 시장 확대와 병행한 무역 다변화 추진</li> </ul>                                 |
| '24년 10월 | 영국-EU 무역협정(TCA)<br>후속 검토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CA 이행 평가 및 보완 협상 논의 개시</li> <li>(시사점) 향후 규제 상호인정 재도입 가능성 시사</li> </ul>   |
| '25년 2월  | 영국-EU 'Regulatory Cooperation Forum' 재가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EU 간 무역·규제 협력 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발족</li> <li>(시사점) TCA 체결 이후 산업, 환경 규제 일치 여부 논의 재개</li> </ul>                     |
| '25년 4월  | 영국-EU 'Supply Chains Dialogue'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핵심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대화 채널 개설</li> <li>(시사점) 산업별 규제 및 인증 상호인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li> </ul>                           |
| '25년 7월  | 환경·에너지 부문<br>상호인정 협의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거래제(UK vs EU ETS), CBAM 보고 기준 정합성 검토</li> <li>(시사점) 탄소 규제 정책 일원화로 기업 부담 완화 기대</li> </ul>                      |
| '25년 9월  | 의료기기·화학물질(UK REACH)<br>분야 정합성 논의 본격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의약품규제청(MHRA) 및 EU 화학청 간 실무협의 재개, 상호 승인 절차 모색</li> <li>(시사점) 산업계 요청 반영, 인증 비용 절감 및 무역 마찰 완화 예상</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KOTRA 런던무역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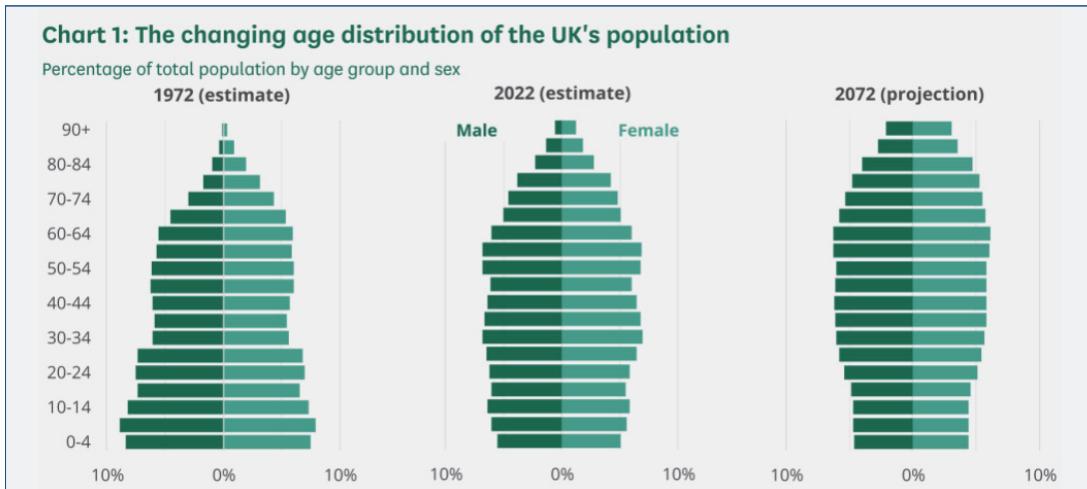
※ (진출 POINT) 제조업, 식품, 의료기기, 에너지 등 제도 이원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상호인정 협의 동향 지속 모니터링 및 인증·통관 체계 변화 선제 대응 필요

### 라. 실버 웨이브, 고령화로 떠오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 □ 노동인구 감소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도입 확대

- '22년 기준 영국 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9%이며, '72년에는 약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 부양·의료 체계 부담 가중(UK Parliament, '24년 7월)

### 〈영국 인구 연령구조 변화('72~'72년(전망치))〉



자료: 영국 의회(UK Parliament) 발표 자료(The UK's changing population, 2024)

- (인력 부족 해결) 'NHS Long Term Workforce Plan('23년)'을 통해 원격의료·돌봄로봇·AI 기반 진단 기술을 의료 공백 보완 수단으로 명시
  - \* 동시에 향후 15년간 30만 명 이상의 신규 의료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상용화 지원) 영국 보건부는 'Life Sciences Vision('21년)'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 혁신 펀드 (Digital Health Technology Catalyst)를 통해 디지털 의료 기술 상용화 지원
- (인프라 구축) '23년 이후 지속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를 통해 고령층 중심의 예방·원격진료 체계와 국민보건서비스(NHS) 데이터 통합 추진 중(p.58 참조)



###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 '48년 설립된 영국의 공공 의료제도(Public Healthcare System)로, 모든 영국 거주자가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조직
- (구성) 중앙정부 산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가 총괄하며, 권역별로 별도의 NHS 체계가 존재함(NHS England, NHS Wales 등)
- (주요 역할) ▲의료서비스 제공(병원·1차 진료), ▲보건정책 및 예방의료, ▲의료데이터·디지털 헬스 추진
  - 최근에는 'Digital Health and Care Plan(2023~2036)'을 통해 의료 AI, 원격진료, 전자차트(EPR)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을 중점 추진 중

### 영국 정부의 고령층 건강관리 및 예방의학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강화 동향

| 정책명  | 지원 규모                           | 추진 목표   | 추진 기간                     |
|--|---------------------------------|---|---------------------------|
| NHS Productivity & Digital Transformation Fund | 약 32억 파운드<br>(약 6조 원)           | • 공공서비스 전반 디지털 전환<br>• NHS 생산성 향상<br>• AI·자동화 기반 원격진료·디지털 헬스 확산 | '24~'29년                  |
| Virtual Wards Programme<br>(가상 병동 확충 사업)       | 약 4억 5,000만 파운드<br>(약 8,627억 원) | • 고령층·만성질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및 재택 치료 확대<br>• 1만 개 병상급 가상병동 인프라 구축       | '23~'25년<br>(단기 집중 확산 단계) |
| NHS Federated Data Platform(FDP)               | 약 3억 3,000만 파운드<br>(약 6,326억 원) | • NHS 전역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만성 질환 및 고령층 코호트 관리, 예방의학 연구, 병상 운영 효율화 추진 | '23~'30년                  |

자료: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HSC), NHS England 등, KOTRA 런던무역관 종합

- (시사점) 고령층 헬스케어 수요는 장기적 성장동력으로, 영국 정부는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융복합 솔루션 도입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헬스) 원격진료 플랫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기
  - (실버테크) 재활·돌봄 로봇, 치매 케어 솔루션, 낙상 감지 센서 등
  - (의료서비스) 예방·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
- NHS 진입을 위해서는 영국 내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 지정, 보건의료기술 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등 법적 요건 충족 필요



### NHS 공급망 진입을 위한 최소 법적 요건

#### (1) UK Responsible Person(RP) 등록 제도

- 개념 : EU 탈퇴 이후 영국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 영국 내 판매를 원하는 해외 제조사는 영국 내 거주 중인 법적 대표자(Responsible Person)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
- RP는 ▲제품의 UKCA 인증 및 영국 의약품·의료기기규제청(MHRA) 등록 절차 대행, ▲기술문서·안전성 자료 보관 및 규제당국(MHRA) 대응, ▲시장 내 안전성 이슈 발생 시 리콜 및 보고 책임 등의 역할을 수행
- (시사점) NHS 조달 시장 직접 진입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영국 내 RP 지정 필요

#### (2) Health Technology Assessment(HTA, 보건의료기술평가) 제도

- 개념 : 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원(NICE)이 주관하는 제도로, 신약·의료기기·디지털 헬스 솔루션 등이 임상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NHS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 주요 평가 항목 : 임상적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 환자 삶의 질 개선 정도, 실제 진료 환경 적용 가능성 등
- HTA 승인을 통과해야 NHS 조달시스템에 등재되어 공공병원 납품이 가능함
- (시사점) 임상 근거 확보 → 현지 파트너와 공동 신청 → NICE 평가 통과가 우리 기업의 필수 진입 루트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Regulating medical devices in the UK, KOTRA 런던무역관 종합

※ (진출 POINT) 의료기기 규제와 NHS 진입장벽 대응을 위해 ▲진출 초기 민간 병원 및 요양 시설 공략을 통한 시장 파악, ▲현지 의료기기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권장

## II. 시장 분석

|          |    |
|----------|----|
| 1. 시장 현황 | 20 |
| 2. 유망 산업 | 38 |
| 3. 협력 기회 | 65 |

# II 시장 분석



## 1. 시장 현황

- '24년 기준, 영국은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자 유럽 역내 2위 규모의 시장 보유(WB(세계은행))
-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이루며, 교역·투자 측면에서는 對EU 및 미국 비중 高
- 제조·에너지·생명과학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넷제로(Net Zero) 정책 기조 아래 해상풍력·수소·전력망 등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중

### 가. 시장 특징

- 영국은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자 유럽 내 두 번째로 큰 단일시장 보유국(WB, '24년)
  - '24년 기준 영국의 GDP는 3조 6,438억 달러로, 유럽 내 독일에 이어 2위 경제 규모(WB, '24년)
  - 금융업·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의 72.8%를 차지하며 영국 경제의 핵심 축 역할(WB, '24년)
- 청정에너지 분야 선도 국가로, 관련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
  -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에 따라 해상풍력·수소·전력망 분야 프로젝트가 급증하며 민간 투자도 활발히 확대 중임
    - 정부는 '현대 산업 전략' 내 '청정에너지 섹터 플랜(Clean Energy Industries Sector Plan)'을 통해 300억 파운드(약 57조 4,000억 원) 규모의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4년 기준 400억 파운드(약 76조 6,000억 원)의 민간 투자 유치
  - \* 영국은 '10~'23년 동안 저탄소 산업 전반에서 총 3,000억 파운드 규모 투자 유치(BNEF)
  -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유럽 1위, 전 세계 2위를 기록 중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위상 공고화(RenewableUK, '25년 6월)

## □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스타트업 허브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 '24년 영국 내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투자금액 약 90억 파운드(약 17조 2,458억 원)
  - (British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Association, '25년 5월)
  - 런던을 중심으로 IT 기반의 금융혁신(핀테크)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Scale-up) 대상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 '22년 영국 금융시스템의 자산 규모는 약 27조 파운드(약 5경 1,718조 원)로 상업은행, 보험사, 연기금, 투자 펀드 등 금융기관 다수 진출(영국 의회, '24년 11월)

## 나. 무역

### □ (교역) '24년 기준 총 교역액 1조 7,973억 파운드(약 3,407조 원) 기록(영국 통계청)

- (수출) '24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 8,877억 파운드(약 1,663조 원, 총 교역액의 49%)
- (수입) '24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 9,096억 파운드(약 1,703조 원, 총 교역액의 51%)

#### 영국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파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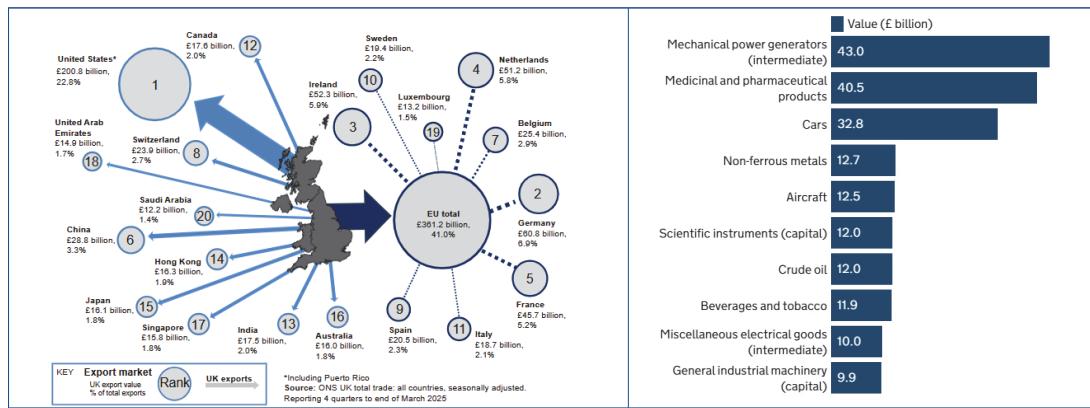
| 구분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8월 누계 |              |
|------|---------|-----------|---------|-----------|-------------|--------------|
|      | 금액      | 전년 대비 증감률 | 금액      | 전년 대비 증감률 | 금액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수출   | 861.3   | 2.2       | 887.7   | 3.1       | 619.5       | 0.6          |
| 수입   | 908.5   | 1.7       | 909.6   | 0.1       | 630.9       | 4.4          |
| 무역수지 | -47.2   | -         | -21.9   | -         | -11.3       | -            |
| 총 교역 | 1,769.8 | 1.9       | 1,797.3 | 1.6       | 1,250.4     | 5.0          |

자료: 영국 산업통상부(DBT) 및 통계청(ONS) 영국 대외 교역(Current Prices) 수출입 통계, '25년 10월 29일 기준

### □ 주요 수출 대상국 및 수출 품목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며, 對EU 수출이 전체의 약 41%를 차지함
  - '25년 3월 기준 최근 4분기의 상품·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미국(수출액 2,008억 파운드(약 384조 원)로 총 교역액의 22.8%에 해당)
- \* 그 외 독일(6.9%), 아일랜드(5.9%), 네덜란드(5.8%), 프랑스(5.2%), 중국(3.3%), 벨기에(2.9%), 스위스(2.7%), 스페인(2.3%), 스웨덴(2.2%) 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 차지

### 〈영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및 수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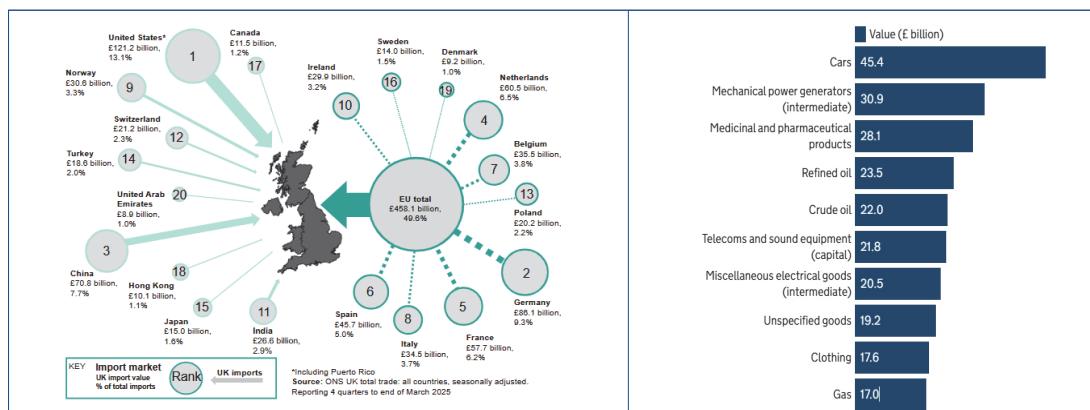
자료: 영국 산업통상부(DBT)

- (품목) '24년 9월~'25년 8월, 기계식발전기(풍력·원전용 중간재) 수출이 430억 파운드(약 80조 6,245억 원)로 영국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집계됨(영국 통계청(ONS))
  - 이어 의약품<sup>405억 파운드</sup>, 자동차<sup>328억 파운드</sup>, 비철금속<sup>127억 파운드</sup>, 항공기<sup>125억 파운드</sup>, 과학기기(자본재)<sup>120억 파운드</sup>, 원유<sup>120억 파운드</sup>, 음료 및 담배<sup>119억 파운드</sup> 순

### □ 주요 수입 대상국 및 수입 품목

-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이며, 對EU 수입이 전체의 약 49.3%를 차지함
  - '25년 3월 기준 최근 4분기의 상품·서비스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미국(수입액 1,212억 파운드(약 232조 원)로 총 교역액의 13.1%에 해당)
    - \* 이어 독일(9.3%), 중국(7.7%), 네덜란드(6.5%), 프랑스(6.2%), 스페인(5.0%), 벨기에(3.8%), 이탈리아(3.7%), 노르웨이(3.3%), 아일랜드(3.2%) 순

### 〈영국의 주요 수입국 및 주요 수입 품목〉



자료: 영국 산업통상부(DBT)

- (품목) 영국 상품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로 수입액 454억 파운드(약 85조 1,023억 원) 기록(영국 통계청(ONS))
  - 기계식발전기(풍력·원전용 중간재)<sup>309억 파운드</sup>, 의약품<sup>281억 파운드</sup>, 정제유<sup>235억 파운드</sup>, 원유<sup>220억 파운드</sup>, 통신음향장비<sup>218억 파운드</sup>, 기타 전자제품<sup>205억 파운드</sup> 순
- (교역) '24년 기준 영국은 한국의 20대 수출 대상국이자 27대 수입 대상국(한국무역협회, '25년 10월)
  - 유럽 지역 기준, 영국은 한국의 4대 수출 대상국이자 5대 수입 대상국
    - \* 수출(억 달러) : 독일(90.3), 폴란드(89.1), 네덜란드(67.9), 영국(66.4), 프랑스(55.2)
    - \* 수입(억 달러) : 독일(222.9), 네덜란드(81.7), 프랑스(81.4), 이탈리아(77.2), 영국(45.7)
- 교역 규모
  - (한국의 對영국 수출) '24년 기준 66억 4,19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5% 증가
  - (한국의 對영국 수입) '24년 기준 45억 7,22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2% 감소
  - (무역수지) 한국은 전통적으로 영국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전년 대비 무역 흑자 확대
    - \* '23년 무역수지 8억 1,062만 달러, '24년 무역수지 20억 6,969만 달러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24년 12월 기준 기타 선박(6,670,567.7%), 항공기 엔진(112.9%), 의약품(68.6%), 스마트폰(27.9%), 하이브리드 자동차(26.1%) 등 수출 증가, 전기자동차(-10.3%),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승용차(-6%), 자동차 부품(-4%) 등은 수출 감소

#### 한국의 對영국 10대 수출 품목 동향

| '24년 |                         |       |             | '25년 9월 누계 |                         |       |              |
|------|-------------------------|-------|-------------|------------|-------------------------|-------|--------------|
| 순위   | 품목명                     | 수출액   | 전년 대비 증감률   | 순위         | 품목명                     | 수출액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 총 수출                    | 6,642 | 11.5        | -          | 총 수출                    | 5,465 | 9.5          |
| 1    | 전기자동차                   | 1,156 | -10.3       | 1          | 전기자동차                   | 1,084 | 35.3         |
| 2    | 하이브리드자동차                | 758   | 26.1        | 2          | 하이브리드자동차                | 525   | -12.5        |
| 3    | 스마트폰                    | 384   | 27.9        | 3          | 불꽃점화식<br>1,500시시 이하 승용차 | 305   | 12.1         |
| 4    | 불꽃점화식<br>1,500시시 이하 승용차 | 342   | -6          | 4          | 스마트폰                    | 223   | -21.6        |
| 5    | 기타선박                    | 315   | 6,670,567.7 | 5          | 온                       | 223   | 19,815.9     |
| 6    | 기타 항공기부품                | 231   | 6.3         | 6          | 기타 항공기부품                | 204   | 19.7         |
| 7    | 자동차부품                   | 184   | -4          | 7          | 항공기엔진                   | 159   | 50.6         |
| 8    | 화물선                     | 180   | 0           | 8          |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 135   | 36.9         |
| 9    | 의약품                     | 165   | 68.6        | 9          | 자동차부품                   | 125   | -12.6        |
| 10   | 항공기엔진                   | 137   | 112.9       | 10         | 연속전지                    | 93    | 37.8         |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31일 기준)

- (수입) '24년 12월 기준, 하이브리드 자동차(137.1%), 백금(109.2%), 농약원제(70.4%),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승용차(-60.9%), 기타 정밀 화학제품(-24.7%) 등은 수입 감소

### 한국의 對영국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24년 |                         |       |           | '25년 9월 누계 |                         |       |              |
|------|-------------------------|-------|-----------|------------|-------------------------|-------|--------------|
| 순위   | 품목명                     | 수출액   | 전년 대비 증감률 | 순위         | 품목명                     | 수출액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 총 수입                    | 4,572 | -11.2     | -          | 총 수입                    | 2,720 | 0.6          |
| 1    | 원유                      | 499   | 24.1      | 1          | 하이브리드자동차                | 218   | -13.5        |
| 2    | 하이브리드자동차                | 357   | 137.1     | 2          | 백금                      | 199   | 63           |
| 3    | 의약품                     | 307   | -14.8     | 3          | 의약품                     | 157   | -16.9        |
| 4    | 백금                      | 257   | 109.2     | 4          | 원유                      | 152   | -55.3        |
| 5    | 불꽃점화식<br>1,500cc 초과 승용차 | 216   | -60.9     | 5          | 항공기엔진                   | 139   | 292          |
| 6    | 위스키                     | 204   | -3.3      | 6          | 불꽃점화식<br>1,500cc 초과 승용차 | 119   | 19.2         |
| 7    | 농약원제                    | 90    | 70.4      | 7          | 위스키                     | 106   | -8.2         |
| 8    | 기타 계측기                  | 80    | -16.5     | 8          | 농약원제                    | 88    | 63.7         |
| 9    | 기타 정밀화학제품               | 76    | -24.7     | 9          | 기타 항공기부품                | 71    | 113.2        |
| 10   | 기타 항공기부품                | 64    | -21.3     | 10         | 기타 계측기                  | 47    | -26.5        |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31일 기준)

- (한국 점유율) '25년 1분기 포함, 직전 4분기 동안의 영국 내 한국의 교역 시장 점유율은 0.9%로 영국의 24대 교역 대상국(영국 산업통상부, '25년 9월)
  - 對영국 핵심 수출 품목인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24년 기준 11억 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가량 감소했으나, '25년 상반기 들어 차츰 회복세
    - \* 영국 정부의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무배출 차량 판매 비율 의무제 도입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영국 내 전기자동차 수요 확대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 현대 코나(KONA), 기아 니로(Niro), 스포티지(Sportage) 등이 주요 인기 모델

## □ 영국 주요 수출 성공 사례



### 성공 사례로 보는 영국 진출전략(1) : 산업용 장비 제조 기업 M사(현지 C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유지보수 대응 및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현지 End-user 피드백을 수렴한 신제품 지속 개발
- 필수 인증 : UKCA(EU의 CE 인증에 상응하는 영국 기계류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련던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지사화 서비스를 이용해 현지 고객의 피드백을 상시 수집하고, 전시회 참가 및 현지 업체 면담으로 니즈 파악
  - 이를 통해 기존 재활용 센터용 고정형 자력선별기를 영국 탄광에서 수요가 높은 이동식으로 개발, 신규 거래선 창출



### 성공 사례로 보는 영국 진출전략(2) : 소비재 K-굿즈 기업 W사(현지 H사에 수출 성약)

- 업체의 비교우위
  - 타사 대비 다품종의 K-팝 굿즈를 취급하여 글로벌 유행에 맞는 제품을 즉시 공급 가능
- 필수 인증 : 해당 없음
- 성약 소요기간 : 3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련던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K-컬처 워크숍, K-팝 파티 및 댄스클래스 등 한류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바이어를 초기에 발굴
  - 실시간으로 현지 바이어 요청에 대응해 바이어가 원하는 종류의 K-팝 굿즈를 즉시 납품

## □ (수입 규제)

- 철강·금속 품목 对한 수입 규제 2건(반덤핑, 세이프가드) 시행 중
  -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분기별 쿼터 배정 후 초과 수량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 규제 종류  | 품목명  | 수입국 HS Code   | 판정 결과(對한국)                                      | 적용 기간                       |
|--------|--|---|---|-----------------------------|
| 반덤핑    | 철강 로프 및 케이블<br>(Steel (Wire) Ropes and Cables)                               | 7312108112, 7312108113,<br>7312108119, 7312108312,<br>7312108313, 7312108319,<br>7312108512, 7312108513,<br>7312108519, 7312108912,<br>7312108913, 7312108919,<br>7312109812, 7312109813,<br>7312109819   | Nil<br>(Annex 1에 등재된 기업)<br>~60.4%              | '18년 4월 20일~<br>'28년 4월 21일 |
|        | 비합금 및 기타 합금 열연강판<br>(Non 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 72081000, 72082500, 72082600,<br>72082700, 72083600, 72083700,<br>72083800, 72083900, 72084000,<br>72085210, 72085299, 72085310,<br>72085390, 72085400, 72111300,<br>72111400, 72111900, 72126000,<br>72251910, 72253010, 72253030,<br>72253090, 72254015, 72254090,<br>72261910, 72269120, 72269191,<br>72269199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1A) 93,673톤<br>(1B) 367,645톤 |                             |
| 세이프가드* | 비합금 및 기타 합금 냉연강판<br>(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 72091500, 72091690, 72091790,<br>72091891, 72092500, 72092690,<br>72092790, 72092890, 72099020,<br>72099080, 72112320, 72112330,<br>72112380, 72112900, 72119020,<br>72119080, 72255020, 72255080,<br>72262000, 72269200  | 한국 연간 쿼터<br>48,731톤                             | '25년 7월 1일~<br>'26년 6월 30일  |
|        | 금속코팅판<br>(Metallic Coated Sheets)  | 72102000, 72104100, 72104900,<br>72106100, 7210690020,<br>7210690080, 72109080,<br>72122000, 72123000, 72125020,<br>72125030, 72125040, 72125061,<br>72125069, 72125090, 72259100,<br>72259200, 72259900, 72269910,<br>72269930, 72269970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국가별 상한 15%)<br>50,938톤       |                             |
|        | 유기코팅판<br>(Organic Coated Sheets)   | 72107080, 72124080  | 한국 연간 쿼터<br>59,142톤                             |                             |
|        | 주석제품<br>(Tin Mill products)  | 72091899, 72105000, 72121090,<br>72101100, 72107010, 72124020,<br>72101220, 72109040, 72101280,<br>72121010   | 한국 연간 쿼터<br>9,987톤                              |                             |

| 규제 종류         | 품목명   | 수입국 HS Code  | 판정 결과(對한국)                                | 적용 기간                      |
|---------------|---|--|---|----------------------------|
|               | 비합금 및 기타 합금<br>Quarto 플레이트<br>(Non Alloy and Other<br>Alloy Quarto Plates)    | 72085120, 72089020, 72254040,<br>72085191, 72089080, 72254060,<br>72085198, 72109030, 72085291,<br>72254012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국가별 상한 20%)<br>20,155톤 |                            |
|               | 합금 머천트<br>바 및 경량 섹션<br>(Alloy Merchant Bars<br>and Light Sections)            | 72283020, 72283041, 72283061,<br>72283069, 72283070, 72283089,<br>72286020, 72287010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16,845톤                 |                            |
|               | 비합금 머천트<br>바 및 경량 섹션<br>(Non-alloy Merchant<br>Bars and Light<br>Sections)    | 72143000, 72149110, 72149190,<br>72149931, 72149939, 72149950,<br>72149971, 72149979, 72149995,<br>72159000, 72161000, 72162100,<br>72162200, 72164010, 72164090,<br>72165010, 72165091, 72165099,<br>72169900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30,900톤                 |                            |
|               | 철근<br>(Rebars)  | 72142000, 72149910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국가별 상한 20%)<br>19,072톤 |                            |
| <b>세이프가드*</b> | 비합금 및 기타<br>합금 선재<br>(Non Alloy and Other<br>Alloy Wire Rod)                  | 72131000, 72139149, 72271000,<br>72132000, 72139170, 72272000,<br>72139110, 72139190, 72279010,<br>72139120, 72139910, 72279050,<br>72139141, 72139990, 72279095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12,994톤                 | '25년 7월 1일~<br>'26년 6월 30일 |
|               | 철 또는 비합금 형강<br>(Angles, Shapes and<br>Sections of Iron or Non<br>Alloy Steel) | 72163110, 72163219, 72163310,<br>72163190, 72163291, 72163390,<br>72163211, 72163299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70,432톤                 |                            |
|               | 철도 재료<br>(Railway Material)   | 73021022, 73021028, 73021050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576톤                    |                            |
|               | 가스관<br>(Gas pipes)  | 73063041, 73063049, 73063072,<br>73063077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2,936톤                  |                            |
|               | 중공 각관<br>(Hollow sections)  | 73066110, 73066192, 73066199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13,667톤                 |                            |
|               | 대형 용접관<br>(Large welded<br>tubes(25A))  | 73051100, 73051200   | 한국 연간 쿼터<br>5,018톤                        |                            |

| 규제 종류         | 품목명                                 | 수입국 HS Code   | 판정 결과(對한국)                | 적용 기간       |
|---------------|-------------------------------------|---|---------------------------|-------------|
|               | 대형 용접관<br>(Large welded tubes(25B)) | 73051900, 73052000, 73053100,<br>73053900, 73059000   | 한국 연간 쿼터<br>18,575톤       |             |
| <b>세이프가드*</b> |                                     | 73061100, 73061900, 73062100,   |                           | '25년 7월 1일~ |
|               | 기타 용접관<br>(Other Welded tube)       | 73062900, 73063012, 73063018,<br>73063080, 73064020, 73064080,<br>73065021, 73065029, 73065080,<br>73066910, 73066990, 73069000 | 연간 잔여<br>물량 쿼터<br>40,142톤 |             |

자료: 영국 정부 발표 자료(Trade remedies notice 2024/14: anti-dumping duty on steel ropes and cab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including steel ropes and cables consigned from Morocco and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rade Remedies Notice 2024/06: safeguard measure: tariff-rate quota on steel goods)

- 영국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 TRA)에서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25년 6월) 및 영국 산업통상부(DBT) 수입 등록 의무화 조치 발표('25년 7월)
  - 향후 덤팡으로 판정될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관세 소급 부과 가능성 존재



### 영국 무역구제청,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25년 6월 6일)

- 조사 대상국 : 한국, 중국, 인도
- 대상 품목 :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mm or more, not further worked than hot-rolled, not in coils, of a thickness of 4.75mm or more
- 대상 HS Code : 7208 5120, 7208 5210, 7208 9020, 7225 4040, 7208 5191, 7208 5291, 7208 9080, 7225 4060, 7208 5198, 7208 5299, 7210 9030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첫 주요 철강 반덤핑 조사 중 하나로,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시 한국산 철강의 대영 수출 감소 우려

자료: 영국 무역구제청(TRA) 홈페이지

##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영국의 5대 교역국으로 '24년 총 교역액 1,028억 파운드(교역 비중 약 5.5%)
  - 주요 수입 품목은 통신 및 음향 장비<sup>69억 파운드</sup>, 기타 제조품<sup>54억 파운드</sup>, 사무기기<sup>51억 파운드</sup>, 기타 전자제품<sup>40억 파운드</sup>, 자동차<sup>39억 파운드</sup> 순
  - 특히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각 246%, 436%씩 증가
- (일본) 영국의 15대 교역국으로 '24년 총 교역액 306억 파운드(교역 비중 약 1.7%)
  -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sup>25억 파운드</sup>, 기계식발전기<sup>10억 파운드</sup>, 비철금속<sup>3.5억 파운드</sup>, 기타 전자제품<sup>3.4억 파운드</sup> 순

### 영국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국가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8월 누계 |
|-----|-------|-------|-------------|
| 중국  | 9.7   | 9.6   | 8.6         |
| 일본  | 1.6   | 1.4   | 1.4         |
| 한국  | 0.9   | 0.9   | 0.7         |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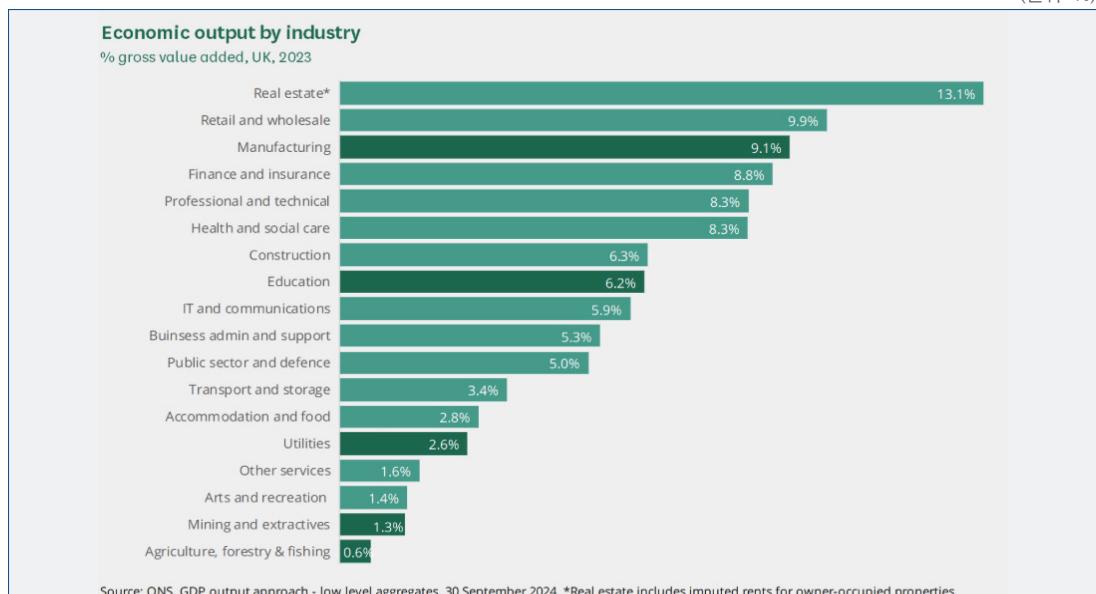
## 다. 산업

### □ 부동산, 금융, 도소매 등 서비스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건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23년 기준, 전체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중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약 80%이며, 해당 산업에서 전체 고용의 약 84.8%가 창출됨
  - 서비스 산업 외 제조(9.1%), 교육(6.2%), 유트리티 산업(2.6%), 광업(1.3%), 농림·어업(0.6%) 순으로 총부가가치 창출

### 〈'23년 영국 산업별 총부가가치(GVA) 비중〉

(단위: %)



자료: 영국 House of Common, 'Industries in the UK'('24년 10월)

##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금융(은행·보험·자산운용·증권 등)
  - 금융업은 영국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23년 기준 총 2,140억 파운드(약 402조 7,600억 원)의 총부가가치를 창출함(City of London, '25년 5월)
  - 런던에는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외환·장외파생상품·국제채권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시장으로 평가됨(BOE, '25년 4월)
  - 기존의 금융업에 혁신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블록체인·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지속 확산 중
  - 또한, 넷제로(Net Zero) 정책 기조에 따라 ESG 기반 금융상품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확대되는 추세임
    - \* 그린 국채(Green Gilts) 및 적금(NS&I Green Savings Bonds) 발행을 통해 누적 £479억 조달(재무부)
- 자동차
  - 지역 균형·탄소중립·경제 성장 관련 산업으로, '24년 연간 매출액 930억 파운드(약 175조 원)를 기록하였으며, 약 79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 영국 내 주요 제조 기업 : 재규어 랜드로버, 미니, 복스홀, 낫산, 토요타 등
    - \* 전기차의 경우 아우디, 르노, 테슬라, 폭스바겐, BMW, BYD가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
  - 영국 정부는 '30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를 위한 공식 규제 프레임워크를 '24년부터 도입하고 이를 위해 약 20억 파운드(약 3조 7,000억 원)를 지원할 예정
- 청정에너지
  - 영국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도 중
  - '30년까지 육상·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 증대 목표 수립
    - \* 현재 대비 '30년 달성을 목표 : (육상풍력) 약 15GW → 28~29GW, (해상풍력) 14.7GW → 45~50GW, (태양광) 17.6GW → 45~47GW
  - 영국 정부는 '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 10GW 달성을 위해 수소 운송 및 저장 인프라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발전 지역과 수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National Grid(영국 전력망 운영 사업자)와 Ofgem(영국 에너지 규제 기관) 중심의 송배전망 현대화 및 투자 확대
- 제약·바이오
  - '24년 발표된 영국 제약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467억 파운드(약 89조 4,034억 원)로 유럽 내 2위 규모, 글로벌 4위 규모(영국 제약산업협회)
  -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는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 레딩(Reading)에 이르는 남동부~동부 지역에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타 지방 클러스터로도 확산 중
    - \* 주요 기업 :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GSK(GlaxoSmithKline) 본사가 영국에 소재

- 항공우주

- 영국 항공우주 산업은 '24년 시장 수익 340억 파운드(약 64조 80억 원)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제조 기반 보유(영국 항공우주산업협회(ADS))
  - 정부는 '40년 국내선·'50년 전면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및 전기·수소 항공기 기술 전환을 추진하는 Jet Zero 전략을 도입하고('22년), 이후 SAF 의무 혼합율 도입, 항공로 효율화 (Free Route Airspace) 및 제로배출 항공기 인증 체계 마련 등 후속 이행 추진 중
- \* 주요 기업 : Rolls-Royce, BAE Systems, GKN Aerospace, Vertical Aerospace 등

## 라. 투자

### □ 영국의 對한 투자·진출 현황

- '24년 영국의 對한국 투자 금액은 약 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 감소
  - '23년 국빈 방한 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신고 등으로 對한 투자액 급증

#### 영국의 對한국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누계 |
|-------|-------|-------|-------|-------|-------|--------------|
| 신고 금액 | 727   | 815   | 581   | 3,604 | 1,438 | 221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분야) '24년 기준 서비스업(53.7%) 중심 투자 구조를 보임
  - 세부 항목은 부동산, 수도·하수·환경정화, 전기·가스, 금융·보험 순

영국의 **對한국 주요 투자 분야**

(단위: 천 달러)

| KSIC 분류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3분기 누계 |                |
|------------------------|-----------|----------------|-----------|------------------|-----------|----------------|--------------|----------------|
|                        | 신고 건수     | 신고 금액          | 신고 건수     | 신고 금액            | 신고 건수     | 신고 금액          | 신고 건수        | 신고 금액          |
| <b>전체</b>              | 80        | 580,873        | 98        | 3,604,485        | 75        | 1,438,409      | 49           | 221,246        |
| <b>제조업</b>             | 6         | 187,655        | 12        | 1,188,371        | 9         | 30,363         | 6            | 73,510         |
| 식품                     | -         | -              | -         | -                | 1         | 5,000          | 1            | 1,199          |
| 화공                     | 1         | 8,000          | 6         | 1,150,806        | 1         | 12,500         | 1            | 755            |
| 의약                     | 1         | 41,000         | -         | -                | -         | -              | -            | -              |
| 비금속 광물제품               | -         | -              | -         | -                | 1         | 620            | -            | -              |
| 금속·금속가공제품              | 1         | 50,876         | 1         | 153              | -         | -              | 1            | 2,750          |
| 기계장비·의료정밀              | -         | -              | 1         | -                | -         | -              | 1            | 62,357         |
| 전기·전자                  | 2         | 70,000         | 4         | 37,413           | 3         | 7,927          | 2            | 6,449          |
| 운송용 기계                 | 1         | 17,779         | -         | -                | 3         | 4,316          | -            | -              |
| <b>서비스업</b>            | <b>65</b> | <b>299,305</b> | <b>54</b> | <b>1,001,936</b> | <b>59</b> | <b>771,669</b> | <b>41</b>    | <b>137,321</b> |
| 도·소매(유통)               | 8         | 30,429         | 11        | 3,958            | 14        | 33,102         | 7            | 598            |
| 운수·창고                  | 4         | 687            | -         | -                | 2         | 176            | -            | -              |
| 정보통신                   | 9         | 1,880          | 3         | 5,118            | 9         | 42,373         | 3            | 3,232          |
| 금융·보험                  | 14        | 150,873        | 19        | 798,011          | 11        | 78,180         | 14           | 128,536        |
| 부동산                    | -         | 0              | 2         | 1,250            | 1         | 600,000        | 1            | 70             |
| 사업지원·임대                | 2         | 389            | 1         | 64,975           | 4         | 527            | 6            | 2,409          |
|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 21        | 69,996         | 15        | 6,034            | 17        | 17,236         | 9            | 2,405          |
| 여가·스포츠·오락              | 5         | 42,951         | 3         | 122,590          | -         | 0              | 1            | 70             |
| 공공·기타서비스               | 2         | 2,100          | -         | -                | 1         | 75             | -            | -              |
| <b>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b> | <b>9</b>  | <b>93,913</b>  | <b>32</b> | <b>1,414,178</b> | <b>7</b>  | <b>636,377</b> | <b>2</b>     | <b>10,416</b>  |
| 전기·가스                  | 9         | 93,913         | 32        | 1,414,178        | 5         | 82,077         | 2            | 10,416         |
| 수도·하수·환경정화             | -         | -              | -         | -                | 2         | 554,300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 외국인 투자 동향

- 영국 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DBT)에 따르면, '24·'25년 회계연도 기준 1,375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프로젝트 유치
  - 이전 3년간 연평균 약 1,600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나, '22·'23년 회계연도 이후 하락세 지속
  - 넷제로 달성을 위한 그린 산업혁명과 관련된 FDI 프로젝트는 '24·'25년 회계연도 기준 106건으로, '23·'24년 회계연도 205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및 중동 분쟁과 같은 대외 요인과 '23년 4월부터 시행된 법인세 및 금리 인상 등의 대내 요인이 겹쳐 나타난 결과로 분석

### 연도별 외국인 FDI 프로젝트

(단위: 건, 백만 파운드)

| 기준 회계연도        | 2022·2023년   | 2023·2024년   | 2024·2025년 |
|----------------|--------------|--------------|------------|
| 프로젝트 수         | 1,654        | 1,555        | 1,375      |
| 신규 투자 프로젝트(비중) | 1,048(63.4%) | 1,023(65.8%) | 815(59.3%) |
| 벤처캐피탈 투자액      | 1,239        | 860          | 4,355      |
| 대형주 대상 투자액     | 17,253       | 7,049        | 23,827     |

자료: 영국 산업통상부(DBT) Inward Investment Result 2024 to 2025, KOTRA 런던무역관 제공

##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산업에서 257건의 FDI 프로젝트 유치, 환경 및 인프라와 교통 분야에서 1만 4,797개로 가장 많은 신규 일자리 창출
  - 그 외 금융 서비스업(189건), 첨단 엔지니어링(159건), 환경·인프라 및 교통(150건) 분야 순으로 집계

### 최근 3개년 산업별 영국 투자 유치 프로젝트

| 2022·2023년       |      | 2023·2024년       |      | 2024·2025년       |      |
|------------------|------|------------------|------|------------------|------|
| 산업               | 프로젝트 | 산업               | 프로젝트 | 산업               | 프로젝트 |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업 | 382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업 | 263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업 | 257  |
| 금융 서비스업          | 236  | 금융 서비스업          | 199  | 금융 서비스업          | 189  |
| 환경, 인프라 및 교통     | 150  | 환경, 인프라 및 교통     | 163  | 첨단 엔지니어링         | 159  |
| 첨단 엔지니어링         | 141  | 도매업              | 147  | 환경, 인프라 및 교통     | 150  |
| 식음료업             | 101  | 첨단 엔지니어링         | 129  | 도매업              | 86   |
| 도매업              | 101  | 식음료업             | 92   | 식음료업             | 86   |
| 생명과학             | 93   | 생명과학             | 92   | 비즈니스 및 소비자 서비스   | 73   |
| 자동차              | 76   | 자동차              | 83   | 생명과학             | 69   |

자료: 영국 산업통상부(DBT)

###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24·'25년 회계연도 기준, 일본은 41건의 FDI 프로젝트를 기록하며 전체 10위, 중국은 38건의 FDI 프로젝트를 기록하며 11위 기록(영국 산업통상부(DBT))
  - (일본) '23년 투자액(저량) 기준 829억 파운드로 전체 투자의 4% 차지,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하게 6위 기록
  - (중국) '23년 투자액(저량) 기준 37억 파운드로 전체 투자의 0.2% 차지

### □ 한국의 영국 투자 진출

- '24년 한국의 對영국 투자 금액은 7억 200만 달러로 '23년 8억 6,300만 달러 대비 18.6% 감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투자 통계 기준, 영국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18위 투자 대상국
  - 최근 3년간 한국-영국 투자 진출 분석 결과, 연평균 약 30개의 한국 기업이 영국에 진출하였으며, 연평균 약 9억 2,366만 달러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투자되고 있음

### 한국의 對영국 투자·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2분기 누계 |     |
|-------------|-------|-------|-------|-------|-------|-------|--------------|-----|
|             | 금액, 건 | 증감률   | 금액, 건 | 증감률   | 금액, 건 | 증감률   | 금액, 건        | 증감률 |
| 투자 금액       | 1,206 | 50.0  | 863   | -28.4 | 702   | -18.6 | 445          | -   |
| 신규 법인 설립 건수 | 35    | 45.8% | 25    | -28.5 | 31    | 24.0  | 29           | -   |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 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외국 인력 제한) '이민 및 비자 시스템 개편 계획(Migration and Visa Reform Plan)'을 발표('25년 5월)하여, 외국인 인력 유입 억제 및 내국인 고용 중심의 노동시장 재편 추진 중
  - ▲숙련 노동자(Skilled Worker) 비자 후원 기업의 이민 기술료(Immigration Skills Charge) 32% 인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거주 요건 강화(5년 → 10년), ▲영국 대학 졸업자의 취업 허용 기간(Graduate Visa) 단축(24개월 → 18개월)
  - 인건비 부담 및 행정 절차 증가로 인해 영국 현지 채용을 병행하는 한국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 예상
- (노동법 강화) 영국 노동법은 근로자 권리(Employment Right) 보호가 강력하여, 고용주는 해고·징계·근무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공정 절차(Procedural Fairness) 준수 의무가 있음
  - 절차 미준수 시 손해배상 또는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분쟁 발생 가능
  -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및 연차 휴가(Annual Leave) 규정 엄격 적용
    - \* '25년 4월 기준 최저임금(성인) 12.21파운드(약 2만 3,000원), 최소 연차 28일(공휴일 포함)
  - 따라서 현지 인사·노무 전문 자문사 적극 활용 필요
- (브렉시트 과도기) 브렉시트 이후 자국형 조달·통관·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EU 제도와의 부정합 발생 및 불확실성 증대
  - (공공조달) '23년 '공공 조달 기본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여 기존 EU 조달 지침을 대체할 영국형 조달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25년 2월이 되어서야 세부 시행령 및 절차 규정 발표
    - \* 현지 납품 실적·법인 등록 여부·ESG 평가 등 평가 요소가 까다로워 해외 기업(특히 비영연방권 기업)의 초기 참여가 어려운 구조로 현지 법인 설립 및 파트너사 협력을 통해 행정 리스크 최소화 필요
  - (통관·표준 인증) 브렉시트 이후, EU의 CE 인증 대신 UKCA(UK Conformity Assessed) 등 별도의 인증 제도 운영 중
    - \* CE와 UKCA 간 상호인정 제도가 한시적으로 병행되고 있지만, 적용 분야별 차이(의료기기, 전자제품, 기계류 등)로 인해 영국 시장 전용 버전의 제품 라벨 및 문서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 존재



## UKCA 인증 유예

- 브렉시트 이후 EU의 CE 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내 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 영국 정부는 CE 마크 병행 인정 기간을 당초 '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26년 이후까지 잠정 무기한 연기
- UKCA 마크 단독 인정 시점은 향후 정부 발표 내용을 통해 확인 필요

- (투자 심사)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NSIA) 강화('21년 4월)
  - 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시장 참여 가능
  - 다만,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인수 건은 영국 정부의 별도 심사 필요
  - 17개 민감 산업 분야(에너지, 방산, AI, 반도체, 통신, 데이터, 우주 등) 관련 기업의 주식 및 의결권 25% 이상 인수 시 의무 신고 대상

## 국가안보 및 투자법(NSIA) 규정 사전 의무 신고 대상 산업 분야

| 분야   | 규정 범위   |
|--|---|
| 첨단소재<br>(Advanced Materials)                       | 첨단 복합재, 금속 합금, 반도체, 나노 기술 등 전략소재에 대한 연구 및 개발/생산, 지적재산의 소유·생성·공급·관련 기술의 제공·재사용 등                             |
| 첨단 로봇<br>(Advanced Robotics)                       | 의미 있는 수준의 자율성 및 정교한 감시, 데이터 수집 기능 등을 갖춘 첨단로봇 또는 관련 핵심 부품의 개발·생산   |
| 인공지능<br>(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관련 상품 기술의 연구개발 수행, 관련 기술이 식별 추적 첨단로봇 기술·사이버 보안 중 하나에 적용되는 경우   |
| 민간 원자력<br>(Civil Nuclear)                          | 비군사적 원자력 시설 면허 보유 또는 부지 임차, 특정 카테고리의 핵물질 보유·운송, 원자로 건설, 민감한 핵 정보 보유 등                                       |
| 통신<br>(Communication)                              | 특정 공공 전자통신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및 연관 시설 제공,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 또는 해저 케이블 시스템 소유, 특정 인터넷 인프라(도메인 이름 등록 등) 소유, 공공 방송 인프라 운영 등 |
| 컴퓨터 하드웨어<br>(Computing Hardware)                   | 컴퓨터 처리장치 등 특정 제품·기능에 대한 지적재산의 소유·생성·공급 및 보안 또는 관리를 위한 서비스 설계·유지보수·제공, 중앙처리장치(CPU) 및 집적회로의 제조 및 포장 등         |
| 对정부 주요 공급 업체<br>(Critical Suppliers to Government) | 정부와 직접 공공계약을 체결, 국가 기밀자료의 처리 또는 저장, 시설 보안 허가 또는 특정 수준 이상의 보안 심사 요구 등  |
| 암호화 인증<br>(Cryptographic Authentication)           |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암호화 인증 제품의 연구·개발·생산   |

| 분야   | 규정 범위  |
|--|--|
| 데이터 기반시설<br>(Data Infrastructure)                    | 특정 공공기관을 위한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 저장·처리·전송 및 공공 전자통신 네트워크 간 연결의 활성화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인프라의 소유·운영·관리,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제공 등   |
| 방위<br>(Defence)                                      |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 및 국방부 계약 체결(하도급 계약 포함) 또는 정부 기밀자료 소유 등   |
| 에너지<br>(Energy)                                      | 영국 내 특정 석유·가스 및 전기 생산시설의 운영(석유 및 가스 탐사·추출·정제·배포, 전력 생성·배포 시설의 소유·운영 또는 개발 등)   |
| 군사 및<br>이중용도 기술<br>(Military and Dual-Use)           | 영국 수출 통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 상품이나 기술의 연구·개발·생산  |
| 양자 기술<br>(Quantum Technologies)                      | 양자 기술(통신, 연결, 이미징, 감지, 시간 측정, 내비게이션, 양자 내성 암호화, 정보 처리, 컴퓨팅, 시뮬레이션 등)의 개발 및 생산  |
| 위성 및 우주 기술<br>(Satellite and Space Technologies)     | 우주 쓰레기 관리, 위성 궤도 활동, 위성통신 링크, 보안시설 운영, 우주선·발사체·위성 등의 제조 및 테스트, 우주 파생 데이터의 국방 목적 사용, 우주 인프라 통제 시설, 우주 상황 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데이터의 제공 또는 처리 등 |
| 긴급서비스 공급 업체<br>(Suppliers to the Emergency Services) | 긴급서비스(경찰, 소방, 구조, 국경 수비 등) 제공에 필수적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무인항공기, 화기, 연료 카드, 보안접근 시스템, 전자 데이터 통신 및 저장 등)  |
| 합성 생물학<br>(Synthetic Biology)                        | 합성 생물학의 기초 과학 연구 수행, 관련 제품의 개발·생산, 재료 분해, 관련 서비스 제공 등  |
| 운송<br>(Transport)                                    | 대규모 항만, 항구, 공항 및 항공교통 관제 서비스의 소유·제공·운영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 2. 유망 산업

### 가.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 □ 넷제로와 지속가능성 중심, 기술 고도화와 자동화를 통한 미래형 제조로 전환

- 영국 정부는 ‘첨단제조 2030 섹터 플랜’을 통해 ▲자동차, ▲배터리, ▲항공우주, ▲우주, ▲첨단 소재, ▲농업기술의 6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자본 투자 확대 계획 발표
  - ’35년까지 연간 기업 투자 최대 두 배 확대 목표(기준 210억 파운드 → 목표 390억 파운드)
  - 총 43억 파운드(약 8조 900억 원)를 투입해 혁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첨단 제조의 대표 선도 분야인 자동차와 항공우주 산업 중점 지원

#### □ 주요 산업 동향

##### (1) 자동차 산업

- (목표) ZEV\*·CAM\*\* 기반의 산업 전환 가속,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Green & Smart Mobility)로의 이행
  - \* ZEV(Zero Emission Vehicle, 무배출 차량) : 주행 시 이산화탄소(CO<sub>2</sub>), 질소산화물(NO<sub>x</sub>),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의미
  - \* CAM(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연결·자율주행 모빌리티) : 차량이 통신망(5G·V2X)을 통해 스스로 주행(Automated)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뜻함
- (계획) ’35년까지 모든 신차를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 ZEV)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결·자율주행 모빌리티(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CAM) 산업 생태계 구축
- (규제) 무배출 차량 판매 의무제(ZEV Mandate) 도입 및 단계별 목표
  - 자동차 제조사에게 신차 판매 중 일정 비율을 무배출 차량(ZEV)으로 채워야 하는 의무 부여(‘24년 도입)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30년 | 2035년   |
|-----------|-------|-------|-------|-------|-------|---------|
| ZEV 의무 비율 | 22%   | 28%   | 33%   | 38%   | 80%   | 100% 목표 |

\* ’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35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허용

- (투자) 최소 66억 파운드(약 12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20억 파운드(약 3조 7,000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 및 추가 5억 파운드의 연구연장 자금 투입 중
-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Electric Car Grant, ECG) 도입(‘25년 7월)

- 제조사가 영국 정부의 '넷제로 공급망 인증\*' 취득과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받아야만 보조금 청구 자격 부여
  - \* 넷제로 공급망 인증(Net Zero Supply Chain Certification) :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가 '24년 발표한 기업용 인증 제도로, 공급망 내 배출량 산정·감축 계획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순환 경제 조치를 이행한 기업에 부여되는 탄소중립 인증
  - \*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 UN Global Compact, 세계자원연구소(WPI) 등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SBTi로부터 적절한 것으로 검증받으면 공식 승인을 획득할 수 있음
- 자격 보유 기업 대상으로 탄소 저감 노력과 공급망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
- 정부는 이를 통해 저탄소 제조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동시에 유도할 계획

### 전기차 보조금 제도(ECG)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관리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li> </ul>   |
| 총 예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2,400억 원)</li> </ul>  |
| 지원금액 및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3,750 파운드(Band 1) / 최대 1,500 파운드(Band 2)</li> <li>• Band 1(우수 등급) : 영국 정부 넷제로 인증 취득, 영국 내 부품 조달 비율 50% 이상,</li> <li>• 탄소 배출 저감 실적 보유(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검증) 제조사</li> <li>• Band 2(일반 등급) : 상기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거나, 감축 계획은 있으나 인증 취득 전인 제조사</li> </ul>       |
| 지원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가 3만 7,000파운드(약 7,000만 원) 이하의 신규 전기차</li> </ul>  |
| 지원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사가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모델을 등록하고 보조금 자격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plug-in-vehicle-grant">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plug-in-vehicle-grant</a></li> </ul> </li> </ul> |
| 적용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 모델(Tesla, Polestar 등)은 차량가 초과로 대상 제외될 수 있음</li> </ul>   |
| 운영 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7월 15일 시행, '27년까지 한시적 지원 예정</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KOTRA 런던무역관 종합

- (산업 규모) '24년 영국 자동차 산업은 930억 파운드(약 17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20억 파운드(약 41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GVA) 및 약 79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영국자동차산업 협회(SMMT))
- (생산) '24년 영국 내 자동차 생산량 약 77만 9,584대(전년 대비 -13.9%)로, 전기차 생산설비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일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며, 글로벌 수요 개선 및 무배출 차량 출시 안정화에 따라 '28년 이후 생산량이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
  - \* 승용차(Car) 생산 77만 9,584대, 상용차(Commercial Vehicle) 생산 12만 5,649대
- (판매) '24년 영국 신차 등록 수는 약 195만 대(전년 대비 +2.6%)로, 이 중 전기차(BEV) 등록 수가 전년 대비 +21.4%로 큰 증가 폭 기록

### 영국 자동차 연료별 판매 현황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3·2024년 증감률 | '24년 시장 점유율  |
|-----------------|------------------|------------------|----------------|--------------|
| 가솔린             | 1,066,211        | 1,019,128        | -4.4           | 52.2         |
| 디젤              | 142,434          | 123,104          | -13.6          | 6.3          |
| 하이브리드(HEV)      | 238,411          | 261,398          | 9.6            | 13.4         |
| 배터리전기차(BEV)     | 314,687          | 381,970          | 21.4           | 19.6         |
|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 141,311          | 167,178          | 18.3           | 8.6          |
| <b>전체</b>       | <b>1,903,054</b> | <b>1,952,778</b> | <b>2.6</b>     | <b>100.0</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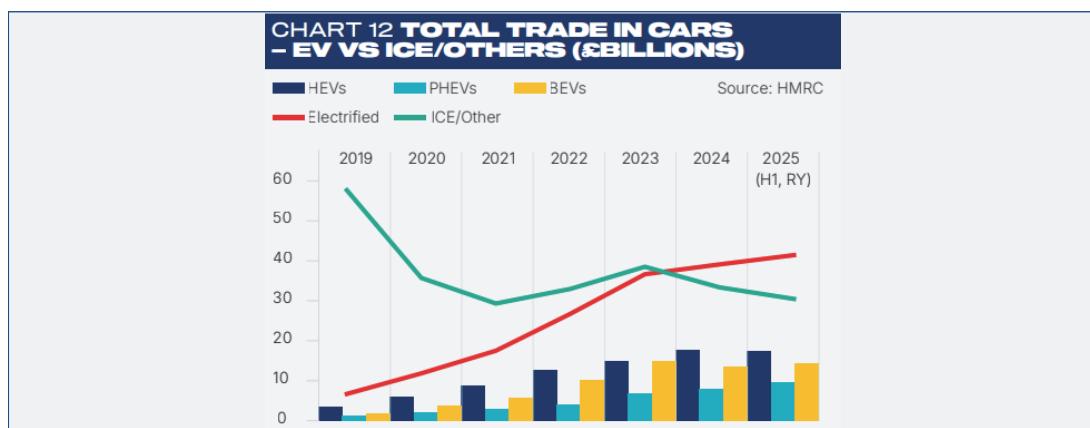
자료: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Motor Industry Facts 2025



### 차량 유형 구분

- Hybrid Electric Vehicle(HEV, 하이브리드 전기차) : 내연기관(휘발유, 디젤)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며, 외부 충전 불가. 주행 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자동 충전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P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혼합 구동이나, 외부 전원으로 충전 가능한 전기차
  - Battery Electric Vehicle(BEV, 배터리 전기차(순수 전기차)) : 내연기관 없이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차. 외부 전력 공급 필수
  - Internal Combustion Engine(ICE) : 내연기관 자동차
- (교역) '24년 영국의 자동차, 부품·구성품 수출은 약 435억 파운드(약 81조 8,000억 원), 수입은 약 713억 파운드(약 134조 2,000억 원) 규모(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 전기차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차 및 관련 부품 교역액이 390억 파운드(전체의 30%)로, 사상 처음으로 내연기관 차량 교역액(약 333억 파운드)을 초과

### 〈'19~'25년 영국 자동차 연료별 교역 추이〉



자료: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SMMT Trade Report 2025

- (수출)

- '24년 기준, 전기차\* 수출액은 약 62억 파운드(약 11조 6,000억 원)로 전년 대비 -8.72%
  - \* 배터리전기차(BEV),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승용차 포함
- 주 수출국 미국(18.4%) 프랑스(12.4%), 벨기에(10.3%), 독일(8.8%), 네덜란드(6.9%) 순
- '24년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총 77만 9,584대 중 77.4%인 60만 3,565대가 수출(전년 대비 -15.5%)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 \* 주 수출국 EU(54%), 북미(16.9%), 중국(6.6%), 터키(4.3%), 일본(2.9%) 순
- 배터리 전기차(BEV) 수출은 제조사들의 생산시설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모델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하이브리드(H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 수출은 증가
  - \* 하이브리드(HEV) 차량 수출, '24년 123억 파운드 기록('19년 대비 422% 증가)

### 영국 전기차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중<br>(2024년) | 증감률<br>(2023년~2024년) |
|-----------|------|--------------|--------------|--------------|---------------|----------------------|
| 순위        | 국가명  |              |              |              |               |                      |
| 1         | 미국   | 184          | 396          | 1,144        | 18.4          | 188.7                |
| 2         | 프랑스  | 493          | 1,068        | 769          | 12.4          | -28.0                |
| 3         | 벨기에  | 153          | 687          | 643          | 10.3          | -6.4                 |
| 4         | 독일   | 672          | 1,055        | 548          | 8.8           | -48.1                |
| 5         | 네덜란드 | 172          | 400          | 431          | 6.9           | 7.5                  |
| 6         | 이탈리아 | 133          | 496          | 321          | 5.2           | -35.4                |
| 7         | 스페인  | 127          | 315          | 234          | 3.8           | -25.6                |
| 8         | UAE  | 3            | 52           | 205          | 3.3           | 293.6                |
| 9         | 아일랜드 | 120          | 232          | 193          | 3.1           | -17.1                |
| 10        | 터키   | 18           | 225          | 181          | 2.9           | -19.6                |
| <b>총계</b> |      | <b>3,218</b> | <b>6,815</b> | <b>6,221</b> | <b>100.0</b>  | <b>-8.7</b>          |

주: HS Code 870360, 870370, 870380(BEV, HEV, PHEV)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 '24년 기준 전기차 수입액은 약 212억 파운드(약 39조 9,000억 원)로 전년 대비 5.5% 증가
  - \* 주 수입국 독일(32.7%), 중국(18.7%), 스페인(8.3%), 일본(6.8%), 한국(6.0%) 순
  - \* '24년 순수 전기차 판매량 기준, 현대 KONA 1만 858대(8위) 기록
- '24년 기준 자동차, 부품·구성품 수입은 전년 대비 33억 파운드 증가한 713억 파운드(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 \* 주 수입국 독일(37.4%), 중국(24.6%), 한국(7.6%), 체코(6.2%), 일본(6.2%) 순

## 영국 전기차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중<br>(2024년) | 증감률<br>(2023년~2024년) |
|-----------|-------|---------------|---------------|---------------|----------------------|
| 순위        | 국가명   |               |               |               |                      |
| 1         | 독일    | 4,497         | 6,420         | 32.7          | 8.02                 |
| 2         | 중국    | 3,880         | 4,910         | 18.7          | -19.0                |
| 3         | 스페인   | 817           | 1,524         | 8.3           | 14.8                 |
| 4         | 일본    | 350           | 965           | 4.4           | 48.4                 |
| 5         | 한국    | 1,203         | 1,428         | 6.0           | -11.1                |
| 6         | 체코    | 329           | 377           | 5.0           | 179.4                |
| 7         | 프랑스   | 483           | 638           | 4.2           | 38.7                 |
| 8         | 슬로바키아 | 395           | 676           | 3.0           | -5.0                 |
| 9         | 미국    | 421           | 388           | 2.1           | 15.1                 |
| 10        | 헝가리   | 289           | 379           | 2.1           | 15.9                 |
| <b>총계</b> |       | <b>14,496</b> | <b>20,123</b> | <b>100.0</b>  | <b>5.5</b>           |

HS Code 870360, 870370, 870380(BEV, HEV, PHEV)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Nissan, JLR 등 영국 내 내연기관 차량 제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시설 전환 본격화 중

## 영국 자동차 산업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 기업 최신 동향  |
|---|---|
| <br><b>Jaguar Land Rover</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9월, 전기차 생산을 위해 영국 헤일우드(Halewood), 머지사이드(Merseyside) 공장 설비 전환에 5억 파운드 투자</li> <li>새로운 전기 모듈러 아키텍처(Electric Modular Architecture, EMA) 플랫폼 기반 중형 전기 SUV 모델 생산 예정</li> </ul>   |
| <br><b>Nissan</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년 11월, 영국 선덜랜드(Sunderland) 공장에 전기차 생산 강화를 위해 20억 파운드 투자</li> <li>'26년 출시를 목표로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생산을 준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닛산 리프(LEAF), 주크(JUKE), 카시카이(Qashqai) 전기차 모델 '27년 출시 예정</li> <li>* 닛산은 영국에서 독자적인 배터리 제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자동차 업체</li> </ul> </li> </ul>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배터리 및 소재) 영국 내 배터리 셀 및 원자재 생산 역량은 제한적으로, Agratas, AESC, Volklec 등 배터리 제조사에서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추진 중

\* 기가팩토리(Gigafactory) :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규모(연간 수십 GWh 이상)로 생산하는 초대형 공장. 전기차용 배터리 셀(Cell), 모듈, 팩(Pack) 등을 통합 생산하는 수직계열화된 생산 거점

#### 영국 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 기업명  | 위치                                      | 투자 규모                        | 비고   |
|--|---|------------------------------|--|
| <b>AGRATAS</b><br>A TATA Enterprise<br>Agratas | 서머셋<br>(Somerset), Gravity Smart Campus | 약 40억 파운드<br>(약 7조 5,000억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TA 그룹 산하 배터리 사업부</li> <li>• '26년 생산 개시 예정, 영국 내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 중 하나가 될 예정(연간 40GWh 규모)</li> <li>• 주 고객사 재규어 랜드로버(JLR) 전기차 배터리 생산</li> </ul> |
| <b>VOLKLEC</b><br>Volklec                      | 코벤트리<br>(Coventry)                      | 약 10억 파운드<br>(약 1조 8,000억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말부터 초기 생산 시작하여 전체 기가 팩토리 '30년 완성 목표(연간 10GWh 규모)</li> <li>• 중국 Far East Battery와 기술 제휴 협약에 따라 전력 셀(Power Cell) 생산 예정</li> </ul>        |

자료: Agratas, Volklec 홈페이지

- (상용차 부품) 버스 및 중대형 상용차의 무배출 전환 촉진을 위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 보조금 및 정책 지원\*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 Zero Emission Bus Regional Areas(ZEBRA), Scottish Zero Emission Bus Challenge Fund 등과 같은 무배출 차량 전환 보조금 추진 중

#### Scottish Zero Emission Bus Challenge Fund 보조금 제도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관리 기관 | 스코틀랜드 교통부(Transport Scotland)   |
| 총 예산  | 5,800만 파운드(약 1,105억 원)  |
| 지원 분야 | 제로 배출 버스 및 관련 인프라   |
| 지원 대상 | 버스 운행사, 제조사, 충전소 운영사, 금융기관 등  |
| 운영 시점 | '23년 5월 ~현재<br>* '25년 8월, 최대 4억 파운드 추가 자금 투입 발표, 최대 300대의 제로 배출 버스 도입 지원 추진 |

자료: Transport Scotland 홈페이지

#### (2) 항공우주 산업

- (목적) 'Jet Zero' 전략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인 전기·수소 기반 항공기 전환 가속화

- (계획)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 제로화(Jet Zero)와 첨단기술 상용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
  - '40년까지는 국내 항공 부문, '50년까지는 항공 산업 전면 탄소중립화 목표
- (분야) 전기 및 자율항공기, 드론, 도시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분야 기술 혁신
- (핵심 프로그램) 미래 모빌리티(Future Mobility), 청정 성장(Clean Growth), AI 및 데이터 경제 등의 산업 대전략 공동 추진

### 항공우주 분야 정부 추진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
| ATI 프로그램<br>(Aerospace Technology Institu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정부 공동 R&amp;D 프로그램으로 '13년~'26년까지 총 39억 파운드 투자</li> <li>차세대 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li> </ul>  |
| Future Flight Challeng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최대 1억 2,500만 파운드 투자 및 산업계 매칭 펀드</li> <li>첨단 항공 모빌리티, 드론 전기 자율 항공기, 자율 관제 등 실증 개발 지원</li> <li>UAM(도시 항공 모빌리티), 무인항공 등 미래시장 선도 목표</li> </ul> |
| NATEP<br>(National Aerospace Technology Exploitation Programm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항공우주 기술 실용화 프로그램</li> <li>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혁신 지원</li> <li>대형 항공우주 기업(Tier 1등)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촉진</li> <li>산업계와 정부 각 1,000만 파운드의 매칭 펀드</li> </ul>  |
| Supply Chain 21<br>(SC21 Competitiveness & Grow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항공우주 공급망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개선 프로그램</li> <li>디지털화, 품질 향상 및 프로세스 개선, 조직 역량 강화 등</li> <li>정부 1,000만 파운드 투자 및 산업계 매칭 펀드</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ADS(영국 항공우주협회) 발표 자료 종합

- (추진 계획) 정부 목표 타임라인 설정, 5년 주기로 전략 검토 및 조정 예정

### 항공우주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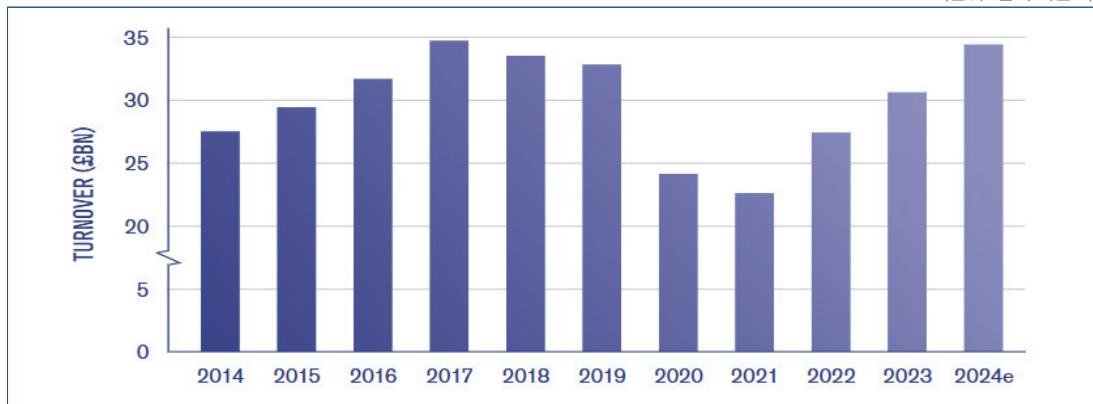
| 연도    | 주요 내용  |
|-------|--|
| 2022년 | Jet Zero 전략 발표, SAF(지속가능한 항공연료) 투자 로드맵 설정  |
| 2023년 | SAF 100% 대서양 비행 실증, 무배출 항공노선(ZEF) 실행 협의체 설립  |
| 2024년 | CORSIA 공식 시행   |
| 2025년 | SAF 의무 법제화, 국내 5개 이상의 상업용 SAF 생산시설 착공, 항공 CO <sub>2</sub> 배출 감축 경로 설정              |
| 2030년 | SAF 사용 비율 10%, 국내(ZEF) 운영 개시<br>항공 부분 내 온실가스 배출 중간 목표 : 3,540만 톤 CO <sub>2</sub> e |
| 2040년 | 국내선 항공기 및 공항 운영 Net Zero 달성(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 중간 목표 : 2,840만 톤 CO <sub>2</sub> e)      |
| 2050년 | 전체 항공 산업 부분 Net Zero 달성(항공 부문 내 온실가스 배출 중간 목표 : 1,930만 톤 CO <sub>2</sub> e)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ADS(영국 항공우주협회) 발표 자료 종합

- (산업 규모) '24년 기준 시장 수익 규모는 총 340억 파운드(약 64조 원)로 전체 시장의 약 17%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 기반 보유(영국 항공우주산업협회(ADS))
- 총부가가치(GVA) 창출액은 136억 파운드(약 25조 6,000억 원)로, '14년 대비 약 50% 증가하며 지난 10년간 견조한 성장세 유지(코로나19 기간 제외)

〈'14~'24년 영국 항공우주 산업 수익 규모〉

(단위: 십억 파운드)



자료: ADS Aerospace Sector UK Outlook 2025

- 시장조사기관 Mobility Foresights에 따르면, 영국의 전기 항공기 시장은 '25년 약 94억 5,0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CAGR) 22.1%를 기록하며 '31년에는 3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도시 항공 모빌리티(UAM) 또는 단거리 항공 모빌리티(Commuter Air Mobility) 부문이 향후 10년 내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됨

### 영국 도시 항공 모빌리티(UAM) 관련 주요 기업

| 업체명  | 기업 최신 동향  |
|--|---|
| <br><b>Vertical Aerospace</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브리스톨에 본사를 둔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제조사</li> <li>4인승 승객 운송용으로 설계하여 도심 내 짧은 거리 항공 이동을 목표</li> <li>현재 인증 절차를 진행 중으로, '26년경 상업 운항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li> </ul> |
| <br><b>Skypports</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드론 배송 및 eVTOL 인프라 개발사</li> <li>eVTOL 및 드론이 이착륙·충전·정비할 수 있는 버티포트(Vertiport) 설계 주도</li> </ul>   |
| <br><b>Urban-Air Port Ltd</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티포트 및 UAM 허브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li> <li>첫 시범단지 영국 코벤트리(Coventry) 'Air-One' 허브 구축('22년 4월)</li> <li>한국 현대차그룹의 UAM사업부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전기 UAM 운송을 지원하는 인프라 65개 이상 구축 목표</li> </ul>                        |
| <br><b>Eve Air Mobility</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Embraer에서 분사된 eVTOL 및 UAM 서비스 기업</li> <li>도시 외 교외 단거리 노선용 승객 운송을 계획하며 '26년 상업 운항 개시를 목표하고 있음</li> <li>항공기 제조 이외, 정비, 부품 공급, 배터리 관리, 조종사 훈련, 운항지원 서비스 등 UAM 생태계 구축 목표</li> </ul>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런던무역관 종합

#### • 교역 동향

- (수출) '24년 기준 항공우주 제품(HS Code 88) 수출액은 160억 파운드(약 30조 1,000억 원)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있음
- 항공 엔진, 항공 시스템, 복합 소재, 부품 등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품목이 주요 수출 품목

### 영국 항공우주 수출 동향(HS Code 88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br>순위  | 국가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중<br>(2024년) | 증감률<br>(2023·2024년) |
|-----------|------|---------------|---------------|---------------|---------------|---------------------|
| 1         | 독일   | 2,739         | 3,693         | 4,396         | 27.5          | 19.0                |
| 2         | 미국   | 2,289         | 2,534         | 2,726         | 17.0          | 7.6                 |
| 3         | 프랑스  | 2,233         | 2,190         | 2,411         | 15.1          | 10.1                |
| 4         | 캐나다  | 669           | 762           | 617           | 3.9           | -19.0               |
| 5         | 카타르  | 939           | 1,178         | 493           | 3.1           | -58.1               |
| 6         | 이탈리아 | 335           | 363           | 490           | 3.1           | 35.0                |
| 7         | 스페인  | 369           | 424           | 403           | 2.5           | -5.1                |
| 8         | 아일랜드 | 129           | 222           | 289           | 1.8           | 30.3                |
| 9         | 중국   | 126           | 203           | 245           | 1.5           | 19.0                |
| 10        | 네덜란드 | 251           | 183           | 226           | 1.4           | 23.5                |
| <b>총계</b> |      | <b>13,086</b> | <b>14,655</b> | <b>16,008</b> | <b>100.0</b>  | <b>9.2</b>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 '24년 기준 항공우주 제품(HS Code 88) 수입액은 약 146억 파운드(약 27조 5,0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있음
- 항공기 및 우주선(HS Code 8802)\*과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HS Code 8807)\*\*이 주요 수입 품목
  - \* 경비행기,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 대형 여객기, 인공위성, 발사체, 헬리콥터 등
  - \* 동체, 날개 부품, 엔진 부품, 착륙장치, 항공전자, 우주선 부품 등

### 영국 항공우주 수입 동향(HS Code 88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중<br>(2024년) | 증감률<br>(2023·2024년) |
|----|-------|-------|--------|--------|---------------|---------------------|
| 순위 | 국가명   |       |        |        |               |                     |
| 1  | 미국    | 3,822 | 5,816  | 5,884  | 40.3          | 1.2                 |
| 2  | 프랑스   | 1,007 | 2,603  | 2,838  | 19.5          | 9.0                 |
| 3  | 독일    | 544   | 1,132  | 1,427  | 9.8           | 26.1                |
| 4  | 캐나다   | 222   | 1,183  | 746    | 5.1           | -36.9               |
| 5  | 이탈리아  | 294   | 376    | 481    | 3.3           | 27.9                |
| 6  | 중국    | 128   | 341    | 461    | 3.2           | 35.0                |
| 7  | 벨기에   | 275   | 274    | 336    | 2.3           | 22.7                |
| 8  | 한국    | 210   | 219    | 234    | 1.6           | 6.9                 |
| 9  | 말레이시아 | 129   | 137    | 193    | 1.3           | 40.8                |
| 10 | 스페인   | 269   | 908    | 169    | 1.2           | -44.9               |
| 총계 |       | 8,609 | 14,972 | 14,594 | 100.0         | 1.2                 |

자료: Global Trade Atlas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정부 지원과 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인프라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 존재
  - 배터리 에너지 밀도, 중량, 생산비용 등 핵심 요소 기술 확보 필요
  - 수소·전기 추진체 충전 인프라, 안전 인증, 항공 운항 규제 체계 등도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표준화 로드맵 구축 및 인증 체계 정비 진행 중



###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표준화 로드맵 발표('25년 10월)

- (목표) 수소 생산·저장·운송·급유 인프라 구축을 위해 '35년까지 민간·산업용 수소 허브 구축 및 규제 일원화'
- (현황) 항공·해운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 공급망 전 주기(생산-운송-사용)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인증 체계 정비 추진 중

자료: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Hydrogen Infrastructure Strategic Planning Policy Statement('25년)

### 영국 내 주요 항공우주 기업 기술 개발 동향

| 기업명                                    | 동향   |
|--|--|
| <b>AIRBUS</b><br>Airbus U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년 수소 항공기 상용화를 목표로, 영국 브리스톨(Bristol)에 'ZEROe 개발센터(Zero Emissions Development Centre, ZEDC)' 설립</li> <li>영국 정부·롤스로이스(Rolls-Royce), 사프란(Safran)과 함께 'Hydrogen in Aviation Alliance(HIA)' 공동 발족하며 수소 항공 생태계 구축 촉진</li> </ul> |
| <b>GKN Aerospace</b><br>GKN Aerospa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항공기용 경량 복합소재 및 수소·전기 추진체 기술 개발 집중</li> <li>Airbus Helicopters와 복합소재 및 전장시스템(EWIS) 공동 개발 추진에 관한 MOU 체결('25년 10월)</li> </ul>  |
| <b>Rolls-Royce</b><br>Rolls-Roy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연료 항공엔진 개발 선도, '30년대 중반 상용기 적용 목표</li> <li>중형·단거리 여객기 중심으로 기술 확장 계획</li> </ul>   |
| <b>GE Aerospace</b><br>GE Aerospace U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년까지 탄소중립(Zero CO<sub>2</sub>) 항공기 상용화 목표</li> <li>영국 국방부와 Defence Aviation Net Zero Charter 참여를 통해 군·민 항공 기술 연계 추진</li> </ul>  |
| <b>BOEING</b><br>Boe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년대 초 'SAF(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완전 호환 항공기' 개발 목표</li> <li>영국 Zero Petroleum·셰필드 대학(University of Sheffield)과 협력해 SAF 상용화 기술 실증 중</li> <li>항공 탈탄소 분석 툴(Tool) 'Cascade' 개발, 연료·운항 효율 개선 모델링에 활용</li> </ul>                           |

자료: 기업 홈페이지, KOTRA 런던무역관 종합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첨단소재) 전기 이착륙 비행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전기 항공기 경량화를 위한 복합소재, 탄소섬유, 알루미늄 합금 등 수요 증가
  - (배터리·BMS) 항공용 전기 추진체(Electric Propulsion)에서는 고에너지 배터리 안정성이 핵심으로, 고온·고출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한 항공 특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기술 협력 유망
  - (항공 IT 시스템) 항공 데이터 관리, 항공 통신, 항공 교통 관리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항공 인프라 분야 협업 기회 존재

## 나. 청정에너지(Clean Energy)

### □ 영국 정부는 '35년 청정에너지 초강대국 전환, '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중'

- (정책) '현대 산업 전략(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2025)' 내 '청정에너지 섹터 플랜(Clean Energy Sector Plan)'을 통해 해상풍력, 원전, 수소, 전력망 대상 구체적인 발전 계획 발표
  - '30년까지 저탄소 수소 생산 10GW 달성(현재 약 2GW 수준) 및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20~30GW 규모의 추가 임대권 시장 공급 목표
  - '35년까지 현재 연간 투자 금액의 약 두 배 수준 달성 목표(연 300억 파운드 이상)
  - 전력 송전망에 연간 약 100억 파운드(약 18조 8,000억 원)의 민간 투자 촉진 예정

####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전력 송전망 민간 투자 촉진 계획 발표('25년 7월)

- (목표) '30년까지 전력 시스템 탈탄소화를 추진하면서, 전력 송전망(Transmission Network) 분야에 연간 약 100억 파운드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조기 투자 유인 추진
- (투자 대상) 송전 인프라 확충, 청정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연계, 지역 간 전력망 현대화 등 핵심 인프라 개선 사업

자료: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Clean Energy Industries Sector Plan('25년)

- (국영 에너지 기업 설립) 영국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 GBE) 신설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 및 기술 투자, ▲민간 투자 유치 확대 등 주도
  - GBE와 영국 에너지-원자력(Great British Energy-Nuclear, GBE-N)은 의회 임기 동안 청정에너지에 약 83억 파운드(약 15조 6,000억 원) 이상 예산 배정 예정
    - \* 대상 :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기타 현대 산업 전략 연계 청정에너지 분야 등

### □ 주요 산업 동향

#### (1) 해상풍력

- (배경) 정부, '30년까지 영국의 해상풍력 설비용량\* 43~50GW 달성을 목표 수립
  - \* 모든 풍력발전기를 최대 출력으로 동시에 가동 시 생산 가능한 전력량

### 영국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확정 및 신규 인가 용량

| 연도        | 설치·확정 용량                          | 신규 인가(개발 승인) 용량 |
|-----------|-----------------------------------|-----------------|
| 2024년     | 약 16GW                            | -               |
| 2025년 상반기 | 약 30.7GW(설치 완료 16GW, 확정 약 14.7GW) | 7.3GW           |
| 2030년(목표) | 약 43~50GW                         | -               |

자료: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KOTRA 런던무역관 종합

- (산업 규모) 영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52개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통해 약 16GW 규모의 발전 용량 확보('24년)
  - '25년 상반기 기준 약 30.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설치 완료되었거나 건설이 확정된 상태이며, 추가로 7.3GW의 신규 프로젝트가 정부 인가를 받아 개발 단계에 진입한 상태
  - 신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6차 공개입찰(Allocation Round 6)에 총 5.4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7차 입찰\*\*진행 중
    - \* 고정식(총 4.9GW 규모), 부유식(총 400MW 규모), 조류 발전 에너지(총 28MW 규모) 선정
    - \* 청정 산업 보너스(Clean Industry Bonus)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영국 내 공급 업체에 투자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신청자들에게 추가 수익 지원 제공 예정
  - '50년까지 영국 내 해상풍력 산업은 470억 파운드(약 88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전망
  - 주요 4대 산업 벨트 : Humber, Teeside, East Anglia, Forth&Tay

### 〈영국 주요 해상풍력 발전소 및 프로젝트 위치〉



주: 화살표가 달린 원형과 그 안의 숫자는 조회 시점 해당 지역의 풍향과 풍속을 의미

자료: The Crown Estate, Offshore Wind Map

###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획

| 프로젝트명       | 지역                                  | 특징   | 참여 기업   |
|-------------|-------------------------------------|--|---|
| Rampion 2   | Sussex 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1.2GW 전력 생산 규모<br/>(186만여 가구 전력 공급 가능)</li> </ul>   | RWE Renewables<br>(독일)                                  |
| Hornsea 3   | Yorkshire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85억 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li> <li>• 약 2.9W 전력 생산 규모<br/>(300만여 가구 전력 공급 가능)</li> </ul>                       | Orsted(덴마크)   |
| Dogger Bank | Yorkshire 동해안에서<br>125~290km 떨어진 해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Dogger Bank A, '26년 B,<br/>'27년 C 순차 준공 예정</li> <li>• 약 3.6W 전력 생산 규모<br/>(600만여 가구 전력 공급 가능)</li> </ul> | SSE(영국),<br>Equinor(노르웨이),<br>Vågrønn<br>(이탈리아·노르웨이 합작) |

자료: 각 프로젝트 홈페이지 및 KOTRA 련던무역관 정리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Orsted, SSE 등의 EPC 기업과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Siemens, GE Renewable Energy 등이 있음

### 영국 내 해상풍력 산업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 기업 최신 동향  |
|---|---|
|  Orsted U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 기업</li> <li>• Hornsea 3 프로젝트의 XXL급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 제작을 위해 세아원드와 계약 체결('22년 9월)</li> </ul>  |
|  Siemens Games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풍력 터빈 블레이드 제조 기업</li> <li>• Associated British Ports(ABP)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제조하는 시설인 Green Port Hull(GPH)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운영을 시작해 2,500개 이상의 블레이드를 생산하며 크게 성장, 추가로 1억 8,600만 파운드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li> </ul> </li> </ul> |
|  SeAH Wi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세아제강(SeAH Steel)의 영국 현지 자회사</li> <li>• Teesside Freeport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모노파일 전용 공장 건설 중(투자액 약 4억 5,000만 파운드(약 8,600억 원))</li> <li>• 연간 약 200개 이상의 대형 모노파일 생산 예정, Orsted, RWE, SSE 등과 공급 협력</li> <li>• 영국 해상풍력 공급망 현지화(Localisation)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됨</li> </ul>                   |
|  GE Renewable Energ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풍력 설비(터빈 등) 제조 기업</li> <li>• Dogger Bank 프로젝트를 위해 3.6GW 규모의 터빈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li> <li>• GE가 개발한 해상풍력 터빈 할리아드-X 터빈은 업계에서 가장 큰 터빈 중 하나</li> </ul>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현대 산업 전략-청정에너지 섹터 플랜 종합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Hornsea 3, Dogger Bank 등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관련 부품 및 솔루션 수요 확대 예상
  - 해상풍력 산업 성장 계획(IGP)\*에 따르면, '30년까지 영국 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300기의 풍력 터빈 발전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나셀 조립 서비스 및 HVDC 해상 변전소 상부 구조물 등 구매 예정
- \* Offshore Wind Industrial Growth Plan('23년) : 해상풍력 분야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영국 해상풍력산업협회(Offshore Wind Industry Council, OWIC)와 정부가 공동 수립

### IGP 구매 우선순위 제품 및 기술



#### 영국 내 제조 역량이 부족하거나 자체 생산 필요성이 낮아 해외 기업에서 구매하거나 조달 예정인 품목

- 나셀(날개를 연결하는 본체 부분) 조립(Nacelle Assembly)
- 터빈 요 및 전기 시스템(Turbine Yaw and Electrical System)
- HVDC(고전압 직류 송전) 해상 변전소 상부 구조물(HVDC Offshore Substation Topsides)
- 개발 서비스(Development Services)
- 재킷(하부 구조물) 설치(Jacket Installation)
- 기초 설치 선박(Foundation Installation Vessels)
- 배열 케이블 및 해상 송출 케이블 설치(Array and Offshore Export Cables Installation)
- 육상 송출 케이블(Onshore Export Cables Installation)
- 해상 변전소 설치(Offshore Substation Installation)

자료: Offshore Wind Industrial Growth Plan

- '5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이 영국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현재 1% 미만) 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품 및 기술 수요 확대 전망

### (2) 수소

- (배경) 청정에너지 초강대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분야로 수소 선정

### 수소 생산 방식에 따른 ‘4대 수소’ 구분

| 구분                        | 개요                                      | 생산 방식                                      | 탄소 배출          | 비고                               |
|---------------------------|---|--|----------------|----------------------------------|
| 그린 수소<br>(Green Hydrogen) |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 재생전력(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물 전기분해                | 없음             | 탄소중립·넷제로의 핵심이 되는 생산 방식이나, 가장 고비용 |
| 블루 수소<br>(Blue Hydrogen)  | CCUS<br>(탄소 포집 기술)<br>적용 화석<br>연료 기반 수소 | 천연가스+수증기 반응(개질)으로 수소 생산 후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 낮음<br>(대부분 포집) | 저탄소 수소로 분류되며 과도기 모델로 활용          |
| 그레이 수소<br>(Grey Hydrogen) | 일반 화석연료<br>기반 수소                        | 천연가스+수증기 반응(개질)으로 수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없음       | 높음             | 현재 산업용 수소 대부분이 이에 해당             |
| 핑크 수소<br>(Pink Hydrogen)  | 원자력 기반 수소                               | 원자력 전력으로 전기분해                              | 없음             | 영국, 프랑스 등 원전 활용 계획 국가 중심 전략      |

자료: KOTRA 런던무역관 정리

- ‘30년까지 수소 에너지 10GW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사업 모델(Hydrogen Production Business Model, HPBM) 운영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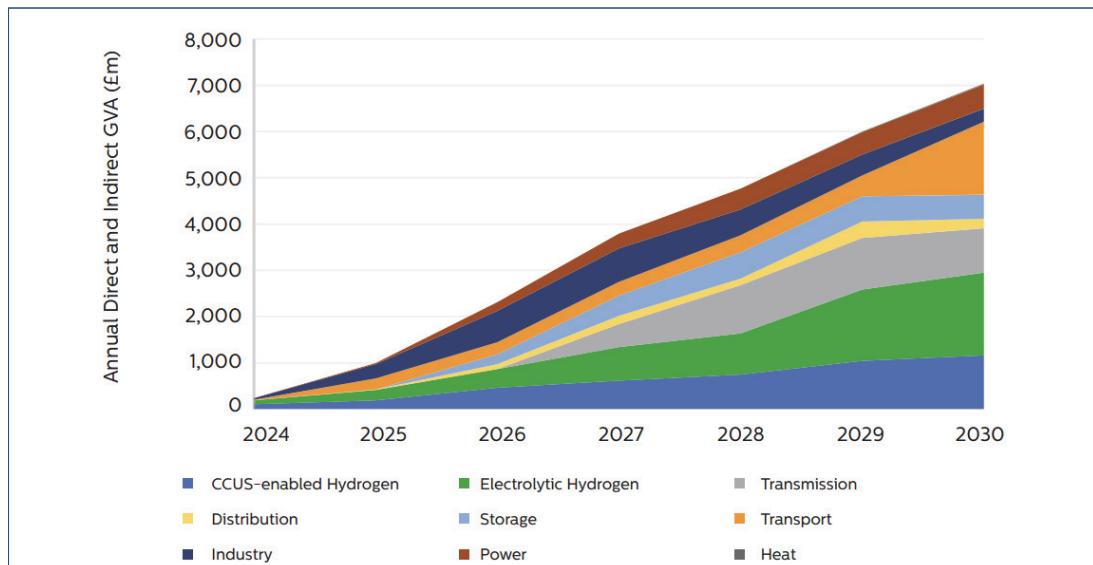
### 수소 생산 사업 모델(HPBM)과 수소 할당 라운드(HAR)

| 구분                         | 내용   |          |         |                            |               |                  |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생산 사업 모델(Hydrogen Production Business Model, HPBM) : 저탄소 수소 생산 및 확대를 위해 정부가 수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li> <li>수소 할당 라운드(Hydrogen Allocation Round, HAR)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15년간 수익 지원 자금 배정</li> </ul>   |          |         |                            |               |                  |   |
| 수행 기관                      | Low Carbon Contracts Company(영국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부(DESNZ) 소유 공공기관형 민간 법인)  |          |         |                            |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수소 할당 라운드(HAR1)에 11개의 프로젝트 선정, 총 20억 파운드 이상의 정부 지원 예정</li> <li>‘25년 4월 HAR2에 27개의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로 선정(HAR3 ’26년, HAR4 ’28년 예정)</li> </ul>   |          |         |                            |               |                  |   |
| HAR1                       | <table> <tr> <td>자금 지원 규모</td> <td>20억 파운드</td> </tr> <tr> <td>전력 판매 단가<br/>(Strike Price)</td> <td>MWh 당 241 파운드</td> </tr> <tr> <td>선정 프로젝트<br/>(11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rrow Green Hydrogen(21MW), Bradford Low Carbon Hydrogen (24.5MW), Cromarty Hydrogen(10.6MW), Green Hydrogen 3(10.6MW), HyBont(5.2MW),</li> <li>HyMarnham(9.3MW), Langage Green Hydrogen(7.0MW), Tees Green Hydrogen(5.2MW),</li> <li>Trafford Green Hydrogen(10.5MW), West Wales Hydrogen(14.2MW), Whitelee Green Hydrogen(7.1MW)</li> </ul> </td> </tr> </table> | 자금 지원 규모 | 20억 파운드 | 전력 판매 단가<br>(Strike Price) | MWh 당 241 파운드 | 선정 프로젝트<br>(1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rrow Green Hydrogen(21MW), Bradford Low Carbon Hydrogen (24.5MW), Cromarty Hydrogen(10.6MW), Green Hydrogen 3(10.6MW), HyBont(5.2MW),</li> <li>HyMarnham(9.3MW), Langage Green Hydrogen(7.0MW), Tees Green Hydrogen(5.2MW),</li> <li>Trafford Green Hydrogen(10.5MW), West Wales Hydrogen(14.2MW), Whitelee Green Hydrogen(7.1MW)</li> </ul> |
| 자금 지원 규모                   | 20억 파운드  |          |         |                            |               |                  |   |
| 전력 판매 단가<br>(Strike Price) | MWh 당 241 파운드  |          |         |                            |               |                  |   |
| 선정 프로젝트<br>(1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rrow Green Hydrogen(21MW), Bradford Low Carbon Hydrogen (24.5MW), Cromarty Hydrogen(10.6MW), Green Hydrogen 3(10.6MW), HyBont(5.2MW),</li> <li>HyMarnham(9.3MW), Langage Green Hydrogen(7.0MW), Tees Green Hydrogen(5.2MW),</li> <li>Trafford Green Hydrogen(10.5MW), West Wales Hydrogen(14.2MW), Whitelee Green Hydrogen(7.1MW)</li> </ul>  |          |         |                            |               |                  |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 (산업 규모) 영국의 수소 산업은 지속 성장하여 '30년까지 연간 70억 파운드(약 13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Hydrogen UK)
  - 정부는 '25년도 지출검토(2025 Spending Review)를 통해 수소 인프라 구축에 5억 파운드(약 9,400억 원)의 예산 투자 확정
  - \* 지역 단위 수소 운송 및 저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핵심 최종 수요처 연결 예정

〈수소 산업의 연간 직·간접 부가가치〉



자료: Hydrogen UK

- 수소 생산 사업 모델(HPBM)하에 진행되는 첫 번째 수소 할당 라운드(Hydrogen Allocation Round, HAR 1)\*에 선정된 11개의 프로젝트는 향후 15년 동안 20억 파운드(약 3조 7,0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24년부터 '26년까지 4억 파운드(약 7,5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본 투입 예정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전해 수소(Electrolytic Hydrogen) 생산 장비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장비 등 분야에서의 영국 수출 규모는 '30년에는 약 8~22억 파운드, '50년에는 약 58~99억 파운드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 산업 공정이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포집해 재활용하거나 지하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
- 주요 수소 분야 기업들은 독일 기업과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인도 등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음

### 영국과 독일의 수소 분야 협력 사례

| 구분                              | 참여 기업 및 기관   | 개요   |
|---------------------------------|--|--|
| 영국-독일<br>연구개발<br>공모전            | 영국 혁신청<br>(Innovate UK),<br>독일 연방 경제 기후부<br>(Federal Ministry for<br>Economic Affairs<br>and Climate A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녹색 기술, AI, 반도체, 양자,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공모전 진행</li> <li>〈대표 펀딩 사례〉</li> <li>참여 기관 : Cambridge Nanolitic Ltd(영국), Cranfield University (영국), NTTF Coating GmbH(독일),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Iron Research(독일)</li> <li>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취성(Hydrogen Embrittlement, HE)*으로 인한 금속 부품의 고장을 방지하는 기술 개발               <p>* 수소로 금속의 연성이 감소하는 현상</p> </li> <li>Cambridge Nanolitic Ltd에서 개발한 나노 세라믹 층을 형성하는 전기화학 산화기술과 NTTF Coating GmbH의 혁신적인 진공 코팅 및 밀봉 기술을 결합하여 구현</li> <li>The Max Planck Institute for Iron Research에서 코팅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고, Cranfield University에서 수소 취성을 측정할 예정</li> </ul> </li> </ul> |
| 수소 파이프라인<br>구축을 위한<br>양해각서(MOU) | 내셔널 가스<br>(National Gas),<br>가스케이드<br>(GASCAD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의 가스 송전망 운영사 National Gas와 독일의 가스 송전망 운영사 GASCADE는 양국 사이의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li> <li>최대 20GW 규모의 양방향 수소 수송이 가능하도록 영국-독일 수소 화랑(UK-Germany Hydrogen Corridor)을 설계할 예정</li> </ul>  |

자료: Innovate UK, National Gas 홈페이지

- 영국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은 수소 할당 라운드(Hydrogen Allocation Round)를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

## 영국 내 수소 산업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 기업 최신 동향  |
|--|---|
| <b>HYGEN</b><br>Hyge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저탄소 수소 생산 시설 개발 및 생산 기업 HydraB의 자회사</li> <li>HAR1에 Bradford Low Carbon Hydrogen 프로젝트 선정, HAR2에 Bardon Hill Hydrogen, Harper Lane Hydrogen 프로젝트 선정</li> <li>버밍엄의 타이슬리 에너지 파크(Tyseley Energy Park) 그린 수소 생산 능력 확장 및 영국 전역에 추가 부지 개발을 위해 HSBC Euipment Finance와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 체결(25년 1월)</li> </ul> |
| <b>edf</b><br>power solutions<br>EDF Power solu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력, 태양열, 배터리 저장 기술 등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기업(모기업은 프랑스 전력청)</li> <li>HAR1에 Tees Green Hydrogen* 프로젝트 선정, 이어 HAR2에 Tees Green Hydrogen Phase 2 프로젝트 선정</li> </ul> <p>* 당사에서 운영하는 인근 티사이드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 전해조를 가동하는 프로젝트</p>  |
| <b>Carlton POWER</b><br>Carlton Pow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에 기반을 둔 에너지 기업으로, 영국 전역에 그린 수소 생산 허브 개발 중</li> <li>HAR1에 Barrow Green Hydrogen, Langage Green Hydrogen, Trafford Green Hydrogen 등 총 3개의 프로젝트 선정</li> </ul> <p>*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컴브리아(Cumbria) 등에 건설 중</p>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수소 할당 라운드(Hydrogen Allocation Round)에 선정된 대형 수소 프로젝트 주도 기업들의 수소 생산 허브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 및 기술 수요 확대 예상
  - 국내 기업 G사는 영국 내 65억 파운드(약 12조 2,000억 원) 규모의 대형 수소 프로젝트 'HySpeed'에 선정된 에너지 전문기업 T사와 LTO 배터리 기술 공급 파트너십 체결
  - 한국과 영국 수소 기술 협력을 위한 수소 기술 공동 연구 기지를 설립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가능

## (3) 전력기자재

- (배경) '30년까지 40GW 규모의 해상풍력 전력망 연결 등 대규모 전력망 구축으로 관련 수요 확대 예상
- (산업 규모) 영국의 송배전망 시장 규모는 113억 6,240만 달러로 '30년까지 연평균 4.5%로 성장하여 147억 9,9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영국 정부는 '2030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송전망 건설 필요성을 인지하며 이를 정부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

\* 영국 에너지 시스템 운영자(National Energy System Operator, NESO)\*는 '2030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구축된 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힘

- National Grid, ScottishPower Energy Networks 등의 영국 전력 송전망 소유주들은 정부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26년부터 '31년까지 최대 774억 파운드(약 146조 원) 투자 계획 발표('24년 12월)
- National Grid는 '25년부터 '29년까지 약 5년간 '전력망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하는 'The Great Grid Upgrade' 사업에 30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



### The Great Grid Upgrade('23년 4월 발표)

- (개요) 국가 전력망(National Grid)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로, 영국의 2050 넷제로(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
- Eastern Green Link 1·2·3 등 영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17개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구성
- 송전선, 변전소, 지중·해저 케이블 및 기타 인프라 확보를 통해 전력망의 용량을 늘려 청정 전기를 전국에 효율적으로 송전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할 예정

자료: National Grid



### 영국 전력발전·송전망 관련 KOTRA 런던무역관 작성 해외시장뉴스(링크)

- ('25년 1월 12일) 영국의 해상풍력 산업, 바람은 어디로 불까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4816](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4816)
- ('25년 2월 19일) '클린 파워 2030 액션 플랜'이 여는 영국 스마트그리드의 미래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5648](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5648)
- ('25년 3월 31일) 영국 해상풍력 산업에 한 획을 긋다, '세아원드(SeAH Wind)' 인터뷰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10&CONTENTS\\_NO=1&bbsGbn=245&bbsSn=245&pNttSn=22716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10&CONTENTS_NO=1&bbsGbn=245&bbsSn=245&pNttSn=227165)
- ('25년 8월 1일) 영국 전력시장의 현재와 미래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pNttSn=23208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pNttSn=232085)
- ('25년 8월 4일) 영국, 풍력 에너지 관련 '이스턴 그린 링크' 프로젝트 추진! 한국 기업에 찾아온 수출 기회
  -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32383](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32383)

### National Energy System Operator와 National Grid 구분

| 구분    | National Energy System Operator(NESO)   | National Grid          |
|-------|---|------------------------|
| 개요    | • 영국 전력 및 가스망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독립 공공기관  | • 영국의 송전망 소유주이자 운영사    |
| 소유 구조 | • 영국 정부 소유 공공기관   | • 민간 상장회사              |
| 주요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망 실시간 운영 및 수급 균형 조절</li> <li>• 천연가스, 전기 및 기타 에너지 형태를 아우르는 전체 시스템 통합</li> <li>• 전력망 안정성 유지</li> </ul> | • 전력망과 가스망 소유, 유지 및 관리 |

자료: NESO 및 National Grid 홈페이지

- (최근 수출입 동향) '24년 기준 영국의 핵심 전력 기자재 수입액은 181억 9,730만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주로 수입

### 영국의 주요 전력 기자재 수입 품목

| 품목명                                       | 품목 개요  |
|---|--|
| 전력 변압기<br>(Power Transformers)            | 전압을 승압·감압하여 송배전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자재                 |
| 정류기·인버터·컨버터<br>(Static Converters)        | 교류↔직류 변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계 시 전력 품질 제어용 장치 |
| 절연전선 및 케이블<br>(Insulated Wire and Cable)  | 송전망·배전망·통신망용 전선류. 동·알루미늄 도체와 절연 피복 포함          |
| 개폐기·차단기<br>(Switchgear & Circuit Breaker) | 전력 계통 보호 및 전류 제어용 장치. 변전소·공장·플랜트 제어반에 사용       |
| ESS·배터리 시스템<br>(Electric Accumulators)    | 전력망 보조 및 비상전원용 저장장치. 최근 ESS·BESS 수요 증가로 비중 확대  |

자료: Hygen, EDF Power Solutions, Carlton Power 홈페이지

- '24년 대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억 4,475만 달러로, 전체 20위 기록

### 영국 전력 기자재 수입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국가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3-2024년<br>증감률 |
|----|------|-------|-------|-------|-------------------|
|    | 전체   |       |       |       |                   |
| 1  | 중국   | 3,508 | 3,294 | 3,491 | 3.3               |
| 2  | 미국   | 1,765 | 1,969 | 1,994 | 6.0               |
| 3  | 독일   | 1,428 | 1,727 | 1,623 | 1.3               |
| 4  | 터키   | 901   | 897   | 994   | -6.1              |
| 5  | 이탈리아 | 591   | 699   | 811   | 10.9              |
| 6  | 프랑스  | 531   | 625   | 744   | 16.1              |
| 7  | 모로코  | 394   | 543   | 616   | 18.9              |
| 8  | 폴란드  | 527   | 559   | 577   | 13.6              |
| 9  | 인도   | 458   | 575   | 556   | 3.1               |
| 10 | 이집트  | 355   | 419   | 431   | -3.4              |
| 20 | 한국   | 126   | 184   | 245   | 3.0               |

주: HS Code 8501, 8504, 8535, 8536, 8537, 8544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National Grid에서 주도하는 The Great Grid Upgrade, Eastern Green Link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현지 기업의 최대 관심사

### 영국 내 전력기자재 분야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 기업 최신 동향   |
|--|--|
|  WS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전력 송배전망 솔루션 설계 기업</li> <li>가공 송전선과 철탑, 변압기와 무효전력 보상 장치, 변전소와 개폐장, 지중 및 해저 케이블, 고전압 직류(HVDC) 및 초고전압(EHV) 네트워크,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SCADA) 시스템과 배전 관리 시스템(DMS) 등 송배전망 시스템의 모든 분야 작업 경험 보유</li> </ul>  |
|  Balfour Beat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최대 건설업체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다수 수행</li> <li>London Power Tunnels 2 프로젝트* 등 National Grid가 발주한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의 EPC 담당</li> <li>* 영국 런던 남서부 윌블던(Wimbledon)에서 남동부의 크레이포드(Crayford)까지 도심을 통과하는 약 32.5km 지하 터널에 지중 전력망을 신규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li> </ul> |
|  Hitachi Energ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최대 변압기 제조업체(일본 Hitachi Group)</li> <li>서머셋(Somerset), 노스웨일스(North Wales), 노퍽(Norfolk)까지 10억 파운드 이상의 연 매출 기록</li> <li>글로벌 재생에너지 선도 기업인 Scottish Power Renewables에 육상·해상 전력망 연결 장비 및 전력 품질 솔루션 제공 중</li> </ul>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주요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변압기, 전선 및 전력 기기 관련 수요 존재할 것으로 전망

## 다. 생명과학(Life Sciences)

### □ 개요

- 영국 생명과학(Life Sciences) 산업은 제약(Pharma), 바이오테크(Biotech), 의료기기(MedTech) 등 관련 모든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 산업
- (규모) '24년 총부가가치(GVA) 규모는 약 212억 8,000만 파운드(약 40조 425억 원)로, '35년에는 약 410억 파운드(약 77조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영국 통계청(ONS)의 'Annual Business Survey'에 근거하여 영국 산업통상부(DBT)가 분석한 수치(SIC 코드 211(기초 의약품 제조), 212(의약품 제제 제조), 266(방사선 장비), 325(의료용 기기), 7211(생명과학 연구개발) 기준)
- '23년 기준 제약(Pharmaceutical) 분야 수출액 약 256억 파운드(약 49조 91억 원), 의료기기(MedTech) 분야 수출액 약 101억 파운드(약 19조 3,356억 원) 기록(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 (제약) 미국, EU, 중국에 주로 수출(전체 생명과학 분야 수출의 약 70% 차지)
  - (의료기기) EU, 북미에 주로 수출(진단기기, 웨어러블, 영상진단 장비 중심)
- 기초 R&D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스타트업 육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나, 스케일업(Scale-up) 및 상용화(Commercialisation) 단계에서 자본 조달과 기술 채택의 어려움이 지적됨
  - ▲후속 성장 단계에 필요한 기관투자 접근성 부족, ▲국내 투자자들의 생명과학 분야 이해도 한계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이에 정부는 '생명과학 섹터 플랜(Life Sciences Sector Plan)' 발표('25년 7월)를 통해 '35년까지 미국, 중국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생명과학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천명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스케일업 자본 조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접근성 제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등 4대 전략 목표와 6대 실행 과제 제시

### 생명과학 섹터 플랜(Life Sciences Sector Plan) 주요 목표 및 실행 계획

|          |   |
|----------|---|
| 3대 핵심 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R&amp;D) 지원</li> <li>영국을 창업(Start), 성장(Grow), 확장(Scale), 투자(Invest)의 최적지로 조성</li> <li>보건 혁신과 국민보건서비스(NHS) 개혁 추진</li> </ul>  |
| 4대 전략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용 R&amp;D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년까지 유럽 내 최대 투자(현재 독일), '35년까지 전 세계 최대 규모 투자(미국, 중국 제외)</li> </ul> </li> <li>스케일업(Scale-up) 자본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년까지 유럽 내 최대 규모, '35년까지 전 세계 최대 규모(미국, 중국 제외)</li> </ul> </li> <li>지표 : 기업 가치 100억 파운드 이상 기업 수, FTSE 350 상장사(런던증권거래소 상장 상위 350개 기업) 수, IPO(기업공개) 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년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접근 속도 유럽 Top3(현재 독일, 스위스 등)</li> </ul> </li> <li>지표 : 제품 승인 속도, 보건기술평가(HTA) 소요 시간 및 비용, NHS 내 도입·채택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직접투자(F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년까지 유럽 내 최대 규모 투자 유치, '35년까지 전 세계 최대 규모 투자(미국, 중국 제외)</li> </ul> </li> </ul> |
| 6대 실행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건강 데이터 플랫폼(HDRS)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alth Data Research Service</li> </ul> </li> <li>임상시험 승인 기간 150일 미만으로 단축(현재 약 250일 이상)</li> <li>생명과학 제조 부문을 위해 최대 5억 2,000만 파운드 지원</li> <li>규제 및 시장 진입 절차의 효율화</li> <li>조달제도 진입장벽 해소</li> <li>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성장과 혁신 견인</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Life Sciences Sector Plan('25년 7월)

- 이후 약 3~4년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기간에 생명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제조 투자, 임상시험, 규제 개혁 등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최대 20억 파운드(약 3조 8,000억 원) 배정 예정
  - 생명과학 혁신제조 기금(Life Sciences Innovative Manufacturing Fund, LSIMF)을 통해 생명 과학 제조 분야에 최대 5억 2,000만 파운드(약 9,900억 원) 지원
    - \* ▲인체 의약품(약물 원료, 원료의약품(API), 완제 의약품(Drug Product)), ▲의료 진단 기기(질병 식별 및 모니터링용), ▲의료기기 대상 투자보조금 지원

## □ 주요 산업 및 기업 동향

### (1) 제약·바이오(Pharma&Bio)

- '24년 발표된 영국 제약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467억 파운드(약 89조 4,034억 원)로 유럽 내 2위 규모, 글로벌 4위 규모(영국 제약산업협회)
  - 골든트라이앵글(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을 중심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ATMP), 희귀질환 치료제, 정밀의료 등 고부가가치 연구 활발
  - 정부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150일 이내로 단축하고, R&D 세제 혜택 및 혁신의약품기금 (Innovative Medicines Fund, IMF)\*을 통해 신약 개발 기업을 적극 지원 중
  - \* 공식 승인 이전의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조건부 사용·데이터 축적을 허용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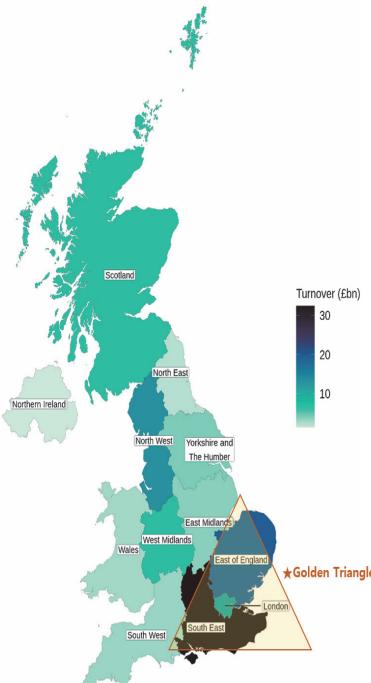
### 영국 제약·바이오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 기업 최신 동향  |
|------------------------|---|
| AstraZenec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임브리지(Cambridge) 본사 이전 후 ATMP,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 강화</li> <li>• '25년까지 3억 파운드 규모의 연구개발 시설 확충 예정</li> <li>• 대표 품목 : Evusheld(면역치료제), Tagrisso(폐암 치료제), Calquence(혈액암 치료제), Ultomiris(희귀질환 치료제)</li> </ul>                  |
| gsk<br>GlaxoSmithK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던 본사 중심으로 백신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가속</li> <li>• '24년 신약 파이프라인 71건 중 46%가 생명공학 기반</li> <li>• 대표 품목 : Arexvy(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백신), Shingrix(대상포진 백신), Xevudy(코로나 항체치료제), Cabenuva(HIV 치료제)</li> </ul>                     |
| illumin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임브리지 게놈캠퍼스 내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고도화</li> <li>• NHS Genomic Medicine Service와 협력 중</li> <li>• 대표 품목 : NovaSeq X 시리즈(유전체 시퀀서), TruSight Oncology 500(암 유전체 분석 패널), BaseSpace Sequence Hub(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각 기업 홈페이지, NHS Genomic Medicine Service('24~'25년)

-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허브는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 레딩(Reading)에 이르며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불리는 잉글랜드 남동부-동부 지역으로, 신약 개발 및 생명과학 관련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밀집
  - 전체 매출의 41%는 골든 트라이앵글 외 지역에서 창출되며 지방 클러스터로 산업 활동 확산 추세

### 영국 내 주요 생명과학 클러스터별 특징

| 지역별 매출 규모  | 지역  |
|--|---|
|  | <p>런던 및 근교<br/>(London, Oxford, Cambridge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세계적 수준의 연구, 혁신 클러스터로 유수 대학·연구소, 대형 제약사, 스타트업 등 밀집</li> <li>(특징) 제약·생명과학 산업 중심 생태계 구축</li> <li>(중점 분야) 케임브리지/옥스포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정밀의료 및 유전체학, ▲의료 AI 및 디지털 헬스, 런던 ▲암 연구 및 면역치료, ▲바이오 공정·CDMO, ▲임상시험 네트워크 및 디지털 생체 표지자 등</li> </ul> |
|  | <p>스코틀랜드<br/>(Scotla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징) 재생의학, 세포·유전자 치료, 바이오 제조 강점</li> <li>에든버러·글래스고 지역 중심으로 임상시험과 바이오 생산시설 보유(Scotland BioHub 등)</li> <li>정부 지원을 통한 대규모 생산 허브로 발전 중</li> </ul>  |
|  | <p>노스이스트·웨스트<br/>(North East·North We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생산·임상 거점 위치</li> <li>(특징) 백신,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 특화</li> <li>팬데믹 이후 백신 연구·제조 역량 강화</li> </ul>  |
|  | <p>웨스트미들랜즈<br/>(West Midlan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버밍엄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헬스테크 기업 다수 분포</li> <li>(특징) 첨단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중심</li> <li>헬스 데이터 활용 및 원격진료 솔루션 도입 활발</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Life Sciences Sector Plan('25년 7월), KOTRA 런던무역관 제공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영국 정부의 연구개발 개방 정책에 따라, ▲바이오의약 원료(바이오 API), ▲바이오공정 장비 및 소모품, ▲AI 기반 약물 설계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에 협력 기회 존재
  - 특히, 세포·유전자치료제(ATMP) 생산에 필요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인증 장비, 배양·정제 모듈, 멸균 패키징 등 K-바이오 기술 수요 증가 전망

#### (2) 의료기기(MedTech)

- 영국 의료기기 시장은 '23년 수출액 약 101억 파운드(약 190조 원) 규모로 EU 내 상위권을 유지하며, 진단기기·웨어러블·영상진단 분야 중심으로 성장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진료, AI 기반 모니터링 기기 수요가 빠르게 확대
  - 정부는 '10 Year Health Plan('25년 7월)'을 발표하고, 국민이 더 쉽게, 가깝게, 디지털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건서비스(NHS) 체질 개선 예정

## 영국 의료기기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모기업 소재지)  | 주요 사업 분야                     | 기업 최신 동향   |
|---|------------------------------|--|
|  <b>HUMA</b><br>Huma Therapeutics(영국)                | 환자 디지털<br>모니터링,<br>헬스 데이터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li> <li>NHS England와 협력해 만성질환자 원격 관리 시범사업 추진</li> <li>입원율 30%↓, 응급실 방문 20%↓ 성과 발표(NHS Digital, '24년)</li> <li>'25년 'Huma BioIntelligence Suite' 출시(AI 예측·분석 기능)</li> <li>AstraZeneca, Roche 등과 임상데이터 디지털화 협력 확대</li> </ul> |
|  <b>Livi</b><br>Livi(스웨덴)                            | 원격 GP 진료,<br>디지털 헬스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HS App 연동 원격 GP 예약 및 진료 제공</li> <li>NHS 'Digital First Primary Care' 공식 파트너</li> <li>15개 NHS Trust와 연계, 700만 명 이상 이용</li> <li>'24년 'Livi Connect' 출시(민간보험 통합 서비스)</li> <li>AI 기반 증상 분류 도우미(AI Triage Assistant) 상용화</li> </ul>                     |
|  <b>PHILIPS</b><br>Philips UK(네덜란드)                  | 영상진단,<br>모니터링 솔루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영상분석·모니터링 기기 공급 확대</li> <li>NHS 병원과 AI 영상진단 공동 개발 프로젝트 수행</li> <li>환자 모니터링 클라우드 플랫폼 'IntelliVue Guardian' 확대 운영</li> </ul>   |
|  <b>GE HealthCare</b><br>GE HealthCare UK(미국)        | 초음파, 영상진단,<br>의료 소프트웨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라우드 기반 영상 분석 서비스 확대</li> <li>CT·초음파 기기 현지 생산 강화, NHS 협력 지속</li> <li>영상진단 효율 개선 및 의료 AI 알고리즘 검증 프로젝트 수행</li> </ul>  |
|  <b>BOSCH</b><br>Bosch Healthcare<br>Solutions(독일) | 헬스 IoT,<br>원격 모니터링 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oT 기반 헬스 모니터링 기기 및 앱 솔루션 공급</li> <li>만성질환 관리용 센서·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추진</li> <li>UKCA 인증 획득 후 NHS 시범사업 참여</li> </ul>   |
|  <b>ACCURX</b><br>Accurx(영국)                       | 의료 커뮤니케이션<br>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HS 전용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공</li> <li>GP, 병원, 환자 간 메시지·영상 상담·문서 전송 통합 서비스 운영</li> <li>영국 내 98% GP 진료소에서 사용(NHS Digital, '24년 기준)</li> <li>'25년부터 AI 기반 환자 메시지 분류·응답 자동화 기능 도입</li> <li>병원 내 팀 협업 솔루션 'Accurx Plus' 출시('25년 3월)</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MedTech Europe, 각 기업 홈페이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AI 영상진단, 웨어러블 센서 모듈, 의료데이터 분석 SW, 의료기기용 배터리·부품 등 진입 가능
  - 특히, 한국이 강점이 있는 센서 기술, 로봇 공학, 데이터 플랫폼 분야는 영국 내 NHS Tech Adoption Programme과의 연계 기회 존재
  - 또한 UKCA(UK Conformity Assessed) 인증 전환기(잠정적으로 '26년 이후까지 CE 마크 병행 인정) 동안 CE 보유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용이

### 3. 협력 기회

#### 가. 통상

##### □ (무역협정) 한국–영국 FTA 체결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협력 확대 전망

- '21년 협정 발효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의 개정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5년 9월 제6차 협상 완료('25년 9월 8~12일)
  -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수소·원전·풍력), 디지털 무역, 바이오·제약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됨
  - 우리 기업의對영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규정 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신규 서비스·투자 개방 조항 포함



##### 개정된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 (EU 누적 규정 연장) EU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한국–영국 FTA 원산지 기준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누적 규정이 '27년 7월 1일 또는 새로운 법적 장치가 발효될 때까지 연장될 예정
- (직송 조항(Direct Transport) 조정) 원산지 증명서 등에 요구되던 'or through the EU' 문구가 삭제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영국 FTA 하에서 중간재 또는 원제품이 EU를 경유하지 않고도 직송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함
- 원산지 증명 문서 규격 업데이트('25년 10월 31일 기준)



##### 한국–영국 FTA 활용 가능 분야

- (자동차) EU 역외 생산 모델(한국산, 체코, 슬로바키아 생산분 등)에 관세율 0% 적용(HS Code 8703 (승용차), 8704(화물차))
- (화장품) 영국 내 K-뷰티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리테일러(Boots, Selfridges) 수출 시 관세율 0% 적용으로 수출하여 단가 경쟁력 확보(HS Code 3304 등)

##### □ (정부 간 협력) 한국 기획재정부, 영국과 선진국형 지식공유사업(KSP) 첫 성과 도출

- '23년 체결된 '한국–영국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Downing Street Accord)'의 연장선상에서, 양국은 선진국형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with the UK)을 통해 ▲AI,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금융 혁신 제도 등 핵심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정책 협력 추진 중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영국 재무부·산업통상부(DBT) 간 협력으로, 기존 개발도상국 대상 KSP를 발전시킨 선진국형 제도 공조 및 공동정책 설계 모델로 수행됨
- \* 단순 자문이 아닌, AI·데이터 거버넌스·지속가능 금융 등 정책 공동 연구 중심 구조



### (성공 사례) AI 윤리·신뢰성 검증 체계 공동 연구('25년)

- '24년 5월 AI Seoul Summit 공동 개최를 계기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 on AI Safety 2024)' 채택  
- 한국과 영국은 공동 의장국으로서 선언 초안을 주도하였으며, G7, EU, OECD, UN, 글로벌 테크 기업이 모여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글로벌 안전 윤리 규제 논의의 구체화 계획
- 영국 AI Security Institute – 한국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간 협력 연구로, 고도 AI 모델의 위험평가 기준·투명성·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개발
- '25년 3월과 4월 양국에서 개최된 성과 보고회를 통해 AI 안전(Safety), 양자 기술(Quantum), 반도체 등 분야에서 표준 전략, 거버넌스 모델, 기술 역량을 상호 진단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함
- 또한, 후속 지식공유사업으로는 6G 분야 공동 연구 추진 계획이 언급되었으며, AI, 양자, 6G 분야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영국 BSI(왕실표준협회) 간 MOU 체결 예정

## 나. 프로젝트

### □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 (배경)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후 전력망 교체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전환
- (배경) 'Net Zero Strategy'에 따라 '30년까지 해상풍력(55GW), 태양광(40GW), 수소(10GW)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예정  
- 'Great Grid Upgrade Programme', 'London Power Tunnels' 등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인프라 등 핵심 기자재의 글로벌 조달 확대 중
- (시사점) EPC\*·풍력·ESS·송전망·수소 인프라 및 기술 분야에서 진출 기회 존재  
\*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의 약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부품, 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 영국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 주요 프로젝트 현황

| 프로젝트명                               | 투자 규모                  | 추진 주체                      | 발주처  | 진행단계         | 일정            | 한국 기업 기회                            |
|-------------------------------------|------------------------|----------------------------|--|--------------|---------------|-------------------------------------|
| London Power Tunnels Phase 2 (LPT2) | 약 10억 파운드              | 정부 승인(Ofgem) 및 민간 투자       | 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sion (영국 전력망 소유주)                | 본 공사 진행 중    | '20~'27년      | 초고압케이블(HDVC), 변전소 기자재, 냉각장비 등       |
| Dogger Bank Wind Farm               | 약 10억 파운드              | 민간 투자, 정부 전력 단가 보장(CfD) 지원 | 민간 사업자 (SSE Renewables, Equinor, Vårgrønn) 주도                      | 시공 단계        | '21~'25년 (잠정) | 해저케이블, 초고압케이블(HDVC) 변환 플랫폼 등        |
| Great Grid Upgrade Programme        | 연간<br>약 90~100억<br>파운드 | 정부·민간 병행                   | 에너지인보·<br>탄소중립부<br>(DESNZ),<br>에너지규제청<br>(Ofgem),<br>National Grid | 사업별<br>착수 단계 | '24~'35년      | 송전선로 기자재,<br>초고압케이블(HDVC),<br>변압기 등 |
| Sea Link Project                    | 약 12억<br>파운드           | 정부 지정(NSIP)<br>및 민간 투자     | 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sion                             | 착공 전         | '25~'30년      | HDVC 변환기,<br>해저케이블 등                |
| Eastern Green Link 3 & 4            | 각 3~4억<br>파운드          | 정부 승인(Ofgem)<br>및 민간 투자    | National Grid & SP Energy Networks                                 | 노선 협의 중      | '27~'32년      | 초고압케이블(HDVC),<br>변환소 기자재 등          |
| LionLink                            | 약 25억<br>파운드           | 영국-네덜란드 정부<br>및 민간 투자      | National Grid Ventures · TenneT                                    | 타당성 검토 단계    | '30년<br>완공 목표 | 초고압케이블(HDVC),<br>해저 공사 등            |

자료: National Grid, Ofgem,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KOTRA 련던무역관 종합

### □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 (배경) ▲노후화된 IT 인프라와 기관 간 데이터 단절, ▲의료 인력 부족 및 행정 비효율, ▲팬데믹 이후 급증한 원격진료 수요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 및 생산성 저하 문제 제기
- (계획) 'NHS Long Term Workforce Plan(2023~2036)' 및 'Digital Health and Care Plan' 등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의료 인프라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에 최대 100억 파운드의 누적 투자 계획 발표

\* 주요 사업 분야 : 전자차트(EPR), 원격진료 플랫폼, AI 진단 솔루션, 데이터 통합관리 등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디지털 전환 주요 프로젝트 현황

| 프로젝트명                                | 목적                                      | 추진 주체(진행 단계)                              | 한국 기업 기회                 |
|--------------------------------------|---|---|--------------------------|
| Global Digital Exemplar(GDE)         | 주요 병원의 디지털 모범 모델 구축<br>(전자차트, 데이터 통합 등) | NHS England<br>(진행 중)                     | 전자차트, 클라우드,<br>의료데이터 솔루션 |
| Hospital 2.0                         | 전국 신규 병원에 스마트 설비 및 디지털 인프라 적용           | NHS England,<br>보건·사회복지부(DHSC)<br>(착공 단계) | 스마트 병원,<br>IoT, AI 진단    |
| Outpatient Recovery & Transformation | 원격진료, 대형 병원과 지역 의원 간 진료 정보 통합           | NHS England<br>(진행 중)                     | 원격진료,<br>환자관리 플랫폼        |
| Frontline Digitisation               | NHS 소속 병원 전자차트<br>100% 도입 및 데이터 표준화     | NHS England<br>(진행 중)                     | 전자차트,<br>보안·AI 솔루션       |

자료: NHS England Digital Health and Care Plan(2022), Long Term Workforce Plan(2023~2036) 등

- (시사점) 한국의 의료 AI·원격진단·웨어러블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진출 기회 존재하나, NHS 조달 등록 및 UKCA 인증 확보,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임

### □ 주택 인프라 프로젝트

- (배경) ▲만성적인 주택 부족, ▲노후 주택의 에너지 비효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 인프라의 대규모 확충 및 저탄소화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
- (계획) 'Plan for Change('24년 7월)' 계획에 따라' 26년부터 약 10년간 390억 파운드(약 73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프로그램 시행 예정



#### 'Plan for Change('24년 7월)' 중 주택 공급 확대 관련 주요 내용

- (목표) '26년부터 약 10년간 390억 파운드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프로그램 단계적 시행, 전국적으로 주택 150만 호 이상 신축
- 스마트홈·모듈러주택 등 디지털 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시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형 설계 확대
- 그린 자재(Green Materials), 탄소저감형 단열·배수 시스템 등 친환경 건축 기자재의 의무 적용 단계적 확대
-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연계해 북부 및 중부권 주요 도시 중심의 주택 공급 비중 상향

자료: 영국 정부 발표 Plan for Change('24년 7월)

-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형 자재, 탄소저감형 건축 솔루션 등 그린·디지털 기반 건설기술 수요 확대 예상
- 공공주택(Public Housing)뿐 아니라 민간 임대(Private Rental)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심으로 발주 증가 예상

- (시사점) 스마트홈 시스템, 친환경 건자재, 단열·배수 설비, BEMS(Building Management System) 등 한국 건설, 기자재, ICT 융복합 기업의 진출 여지 존재
  - \* Green Homes Standard(주택 에너지 효율 및 탄소 배출 기준 강화 정책), 탄소성적표(Carbon Label) 등 탈탄소 인증 요건 대응 필요

####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B, B2B 등

- 한국-영국 양국 기업 간 협력은 B2B 형태로 확산 중이며, 에너지·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례 창출



#### 주요 B2B 협력 사례

- (삼성SDI-JLR(Jaguar Land Rover)) 전기차용 배터리 셀 장기 공급 MOU 체결('24년 10월)
- (LG CNS-BT Group) 데이터센터 최적화 및 AI 통합 관리 솔루션 공동 개발 협력 논의('25년 2월)
- (KT-NHS Digital) 의료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케어 플랫폼 실증 협력 논의 중

자료: 각 기업 보도자료. KOTRA 런던무역관 종합

#### 다. 공급망(자원개발)

#### □ (공급망 협력) '23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영국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Downing Street Accord)'을 통해 ▲에너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국방·안보 협력을 핵심 의제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정부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지속 의제 개발 예정

###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71 |
| 2. 진출전략         | 73 |

# III

## 진출전략



### 1. PEST/SWOT 분석

#### PEST 분석



##### 정치정책(Political)

- (산업전략) 노동당 정부의 '현대 산업 전략'을 통해 8대 핵심 산업(첨단 제조, 생명과학, 청정 에너지 등) 중심의 장기 투자 및 성장 로드맵 추진
- (대외 관계)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단절된 규제·통상 협력 회복 노력 및 통관 제도(BTOM) 정비
- (다자 통상 네트워크) CPTPP 가입('24년 7월), 한국-영국 FTA 개선 협상('25년 9월), 디지털 무역협정(DTA) 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및 신흥국 시장과의 경제 연계 강화
- (정책 리스크) 재정 여력 제약에 따른 공공투자 축소 가능성과,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당 정부의 친노동 기조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 (에너지정책) 넷제로(Net Zero) 2050 법제화, GB Energy 설립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공영화·청정 전환 정책 추진
- (투자 심사) 외국인 투자 관련 국가안보·투자법(NSIA) 강화로 전략 분야 인수합병 심사 엄격 \* 산업 육성 정책과 다자 통상 확대는 기회이나, 조세·노동 규제 강화는 리스크로 작용



##### 경제(Economic)

- (경기 회복세)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하 기조 속에 '26년 성장을 1.4% 전망'
- (투자 확대) 정부의 장기 전략에 따라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강화 예상
- (서비스업 중심) 금융·도소매·부동산·비즈니스 서비스 비중 高
- (비용 구조) 인건비, 에너지,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지속으로 중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
- (무역 구조) 다자 통상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시장 다변화 추진 중이나, EU·미국과의 교역 비중 여전히 높음  
\*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는 기회이나, 구조적 고비용 부담 상존



##### 사회문화(Social)

-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 비중 지속 확대로 실버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대
- (노동시장 변화) 인구 고령화, 숙련 인력 부족 심화로 원격근무 및 유연근로 확대
- (사회적 가치 중시) 웰니스(Wellness), 지속가능성, 윤리적 소비 등 중시
- (소비트렌드 변화)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서비스 급증,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 고령화, ESG 트렌드 확산으로 인한 신시장 및 소비 구조 변화에 주목



##### 기술(Technological)

- (금융 선도국) 오픈뱅킹·핀테크·블록체인·AI 기반 금융 서비스 활성화
- (청정에너지) 해상풍력, 수소, 탄소포집저장기술 등 R&D 집중 투자
- (디지털 전환 가속화) NHS 디지털 전환, 원격진료·의료기기 규제 간소화 과정에서 첨단기술 도입 가속
- (기술 규범) 5G·클라우드·사이버보안 분야에서 EU와 차별화된 독자 체계 구축  
\* AI·청정에너지·디지털 분야의 정부 주도 혁신 정책을 통한 협력·진출 기회 확대

##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산업 전략을 통해 8대 핵심 산업 집중 육성
-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 및 혁신 클러스터 보유
- AI, 배터리, 청정에너지, 의료기기 등 기술 중심 산업 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강화
- 금융·법률·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우위

### 약점(Weakness)



-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규제·인증 이원화 지속
- 생산성 정체·노동력 부족(수련기술직)의 구조적 문제
- 전력·물류·부동산 비용 상승으로 제조 경쟁력 약화
- 공공 차입 증가와 재정건전성 우려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속도 조절 가능성 존재

### 기회(Opportunity)



- 정부 주도의 주요 산업 전환 정책 본격화
-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등) 조성
- CPTPP 가입('24년 7월) 및 디지털 무역협정(DTAs) 체결로 시장 접근성 개선

### 위협(Threat)



- 고임금, 고물가 지속으로 경기 둔화 리스크
- EU 및 미국과의 기술·규제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 노동당 정부의 조세·임금 인상 기조로 기업 비용 증가 우려
- 중국, 인도 등 저가 제조국의 시장 침식 및 가격 경쟁 심화

###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정책 반영) 정부 주도 산업 전략과 투자 확대에 맞춘 협력 추진
- (클러스터 연계)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수출 및 투자 진출
- (통상협정 활용) CPTPP, FTA 활용으로 무관세·누적원산지 혜택

정부의 산업 전략,  
R&D 투자 확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가속화

###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고비용 대응) 고부가가치 제품(미래차, 의료기기 등) 중심 진출
- (친환경 마케팅) ESG 및 친환경 인증 선제 대응
- (공급망 재편 협력) 한국-영국 공급망 대화 등 국가 협력 기조를 활용해 핵심 소재·부품 안정적 조달 구조 구축

기술·품질 경쟁력 기반  
프리미엄 시장 선점

###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규제 대응) 통관·인증 체계 변화에 대한 이해 및 현지 협력 강화
- (정보 비대칭 해소) 특화 클러스터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합작법인(JV), 현지 파트너십 확대

제도·시장 변화 대응형  
진입전략 수립

###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비용 구조 대응) 고정비 부담이 큰 분야는 영국 내 생산보다 수출·온라인 플랫폼 중심 전략 유지
- (시장 세분화) 양극화된 소비시장을 겨냥한 상품 다변화
- (규제 리스크 관리) 세제·노동·규제 변화에 대비한 현지 컨설팅, 법무 네트워크 구축

규제·비용·경쟁 리스크  
대응 및 사업  
안정성 제고

## 2. 진출전략

| 2026년 진출전략                                       |  |                                       |                                |
|--|--|---------------------------------------|--------------------------------|
| 주요 이슈 또는 산업                                      |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                                |
|  | STEP 1<br>유망 파트너 발굴<br>주요 플레이어 대상<br>협력 기반 조성  | STEP 2<br>협력 가능성 제고<br>AI·DX 활용 기반 강화 | STEP 3<br>장애물 뛰어넘기<br>규제 선제 대응 |
| ① (첨단 제조)<br>글로벌 협력 강화<br>기조 활용<br>밸류체인 진입       | 클러스터 내 Tier 1 및 OEM 발굴, 공급망 협력 노력              | 스마트 제조·로보틱스 등 한국의 강점 고부가 기술 부각        | UKCA, CBAM 등 인증, 환경 규제 선제 대응   |
| ② (넷제로)<br>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br>연계 공급망 진입        | 해상풍력·수소 분야 대형 프로젝트 수주<br>기업 연계 진출              | 스마트그리드, ESS, 디지털 모니터링 등 현지 기술 니즈 공략   | UK CBAM, EPR 등 환경 규제 선제 대응     |
| ③ (디지털 헬스케어)<br>국민보건서비스 (NHS) 디지털 전환 대응 조달 시장 진출 | 주요 제약·바이오 허브 및 지방 소재 병원 협력 강화,<br>영국 내 레퍼런스 확보 | AI·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공급을 통한 NHS 디지털 전환 기여  | MHRA, UKCA 인증 및 NHS 조달 규정 대응   |
| ④ (소비재)<br>현지 한류 확산을 활용한 소비재 및 식품 시장 공략          | 영국 대형 및 로컬 유통망 한류 수요 공략                        | 한류 활용 온·오프라인 혼합형 디지털 마케팅 강화           | FSA, SCPN, 라벨링 등 제품별 규제 준수 관리  |

## 전략 ① (첨단제조) 글로벌 협력 강화 기조 활용 밸류체인 진입



### 전략 수립 배경

- 영국 정부, 첨단 제조를 8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향후 10년간 산업 고도화 로드맵 추진
  - 제조업 부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목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기업의 현지 투자 적극 지원 예정
- 한국 기업,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글로벌 경쟁력 및 스마트 팩토리 경험 보유
  - 자동차·항공우주 글로벌 OEM 납품 경험 및 기술력 강점
- 영국의 제조 고도화·탈탄소 수요와 한국 기업의 기술·공급 역량 간 적합성 높음
  - 한국-영국 연구개발(R&D) 협력 및 클러스터 기반 진출 확대 기회 존재

### □ 현지 동향

- (투자 특구 지정) 8개 투자 특구(Investment Zone)\*가 본격 가동되어 법인세, 비즈니스세(Business Rates) 감면, 설비투자 인센티브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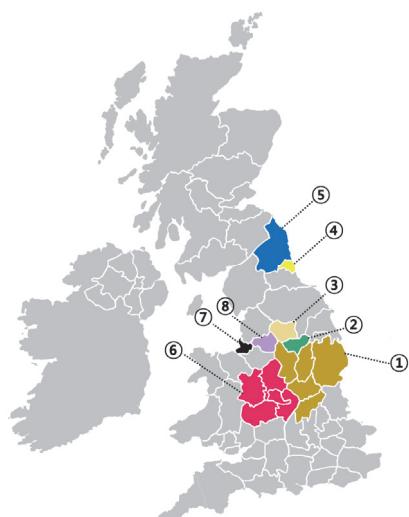


### 투자 특구(Investment Zone)

- (개요) 영국 내 투자 특구 지정을 통해 특정 지역의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연구개발 지원금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
  - 5대 우선 산업 분야(첨단 제조, 창조 산업, 디지털 및 기술, 청정에너지, 생명과학) 중점 유치
  - 지역별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2개 잠재 후보 중 8곳이 최종 지정됨('24, '25년 회계연도 기준)

| 순번 | 지역명                               | 주요 산업                |
|----|-----------------------------------|----------------------|
| 1  | 이스트 미들랜즈<br>(East Midlands)       | 항공우주, 모빌리티           |
| 2  | 사우스 요크셔<br>(South Yorkshire)      | 첨단소재, 항공우주           |
| 3  | 웨스트 요크셔<br>(West Yorkshire)       | 데이터, AI, 디지털기술       |
| 4  | 티즈밸리(Tees Valley)                 | CCUS, 화학·청정에너지       |
| 5  | 노스아이스트(North East)                |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
| 6  | 웨스트 미들랜즈<br>(West Midlands)       | 자동차, 배터리, 모빌리티       |
| 7  | 리버풀 시티<br>(Liverpool City)        | 생명과학, 청정에너지,<br>항만물류 |
| 8  | 그레이터 맨체스터<br>(Greater Manchester) | 첨단 제조, 디지털,<br>청정에너지 |

〈영국 내 투자 특구 지정 현황('24·'25년)〉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발표 자료(Investment Zone Overview) 기반, KOTRA 런던무역관 제공

- (자국 공급망 강화) 브렉시트 이후 첨단 제조업을 국가 공급망 자립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지역 거점 중심의 생산·유통·기술 생태계 재편 시도
  - 북동부(North East)·미들랜즈(Midlands)·요크셔(Yorkshire)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 클러스터(Advanced Manufacturing Cluster)를 조성하여 자동차·배터리·소재 산업의 생산 라인·공급기지 집적화 추진 중

#### 영국 미들랜즈 지역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 기업 최신 동향   |
|--|--|
|  Rolls-Roy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들랜즈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핵심 허브인 더비 지역에 위치, Midlands Aerospace Alliance(MAA)에 따르면 이 지역은 영국 전체 항공우주 산업의 1/4 이상을 차지</li> <li>엔진 조립 및 정비(Shop-visit)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5,5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24년 3dnjf), '25년부터 연간 새 엔진 출하량을 과거 10년 평균 대비 40% 이상 확대하는 목표 추진</li> <li>더비 Indurent Park 내 약 14만 8,000sq ft(약 1만 3,800m<sup>2</sup>) 규모의 창고·물류 시설 완공('25년 1월)</li> </ul>   |
|  Jaguar Land Rov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들랜즈 솔리힐(Solihull), 올버햄튼(Wolverhampton), 캐슬브롬위치(Castle Bromwich) 등 복수의 생산·엔지니어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영국 내 핵심 제조 및 R&amp;D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V, 럭셔리 모델 생산 핵심 허브로, 조립과 구조체 생산 역량 집중. 특히, 올버햄튼 공장, 기존 내연기관 엔진 제조에서 전기 드라이브 유닛(EDU) 및 배터리 팩 조립으로 전환 중</li> </ul> </li> <li>* 이외, 전기차 생산을 위해 영국 북서부 지역 헤일우드(Halewood), 머지사이드(Merseyside) 공장 설비 전환에 5억 파운드 투자</li> </ul> |
|  Eve Energ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로,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에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해 12억 파운드 초기 투자 협의 추진('24년 3월)</li> </ul>  |
|  Eco-Bat Technolog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더비셔(Derbyshire) 매틀록(Matlock)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 최대의 납(Lead) 생산 및 재활용 전문기업</li> <li>납축전지(Lead-acid Batteries) 수거 및 재활용, 납·합금·금속 소재의 정련 (Smelt·Refine) 및 제조 역량 보유</li> <li>연간 약 84만 톤의 납을 생산. 자동차 배터리, 건축 자재, 화학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며 미들랜즈 내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 역할 수행</li> </ul>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련던무역관 가공

- 미들랜즈 연구·분석 기관 The Midlands Engine Observatory는 지역 내 주요 산업을 영국 정부가 규정한 '슈퍼 클러스터(Super Clusters)', '정립된 클러스터(Established Clusters)', '신경제 클러스터(New Economy Clusters)'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맞춤형 정책 및 투자 전략 추진
  - \* 산업 성숙도, 산업 규모, 정책 투자 우선순위, 기술 혁신 역량 등 기준
    - 특히, 미들랜즈 내 첨단 제조 분야 집적 지역을 슈퍼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자동차, 항공우주 분야 집적 지역을 정립된 클러스터로 지정

### 영국 정부의 3대 클러스터 분류 체계

| 구분   | 정의   | 대표 지역(예시)  | 주요 분야                                    |
|--|--|--|--|
| <b>슈퍼 클러스터<br/>(Super Clusters)</b>        | 세계 수준의 연구·산업 집적지로, 다국적 기업의 연구소 및 대학, 투자 허브가 결합된 거대 혁신 거점 | 케임브리지(Cambridge), 옥스퍼드(Oxford), 런던(London), 미들랜즈(Midlands) 등               | 생명과학, AI, 테크                             |
| <b>정립된 클러스터<br/>(Established Clusters)</b> | 기존 산업 기반 위에 첨단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융합된 지역 중심 산업 거점               | 그레이터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버밍엄(Birmingham), 리즈(Leeds), 미들랜즈(Midlands) 등 | 제조, 항공우주, 자동차 기반 산업에 AI, 클라우드, 데이터 기술 융합 |
| <b>신경제 클러스터<br/>(New Economy Clusters)</b> |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신산업 (청정에너지, 수소, 해상풍력 등) 중심의 성장 거점        | 험버(Humber), 티사이드(Teeside), 애버딘(Aberdeen) 등                                 | 넷제로,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

자료: 영국 산업통상부(DBT), UK Clusters Mapping 2024, KOTRA 런던무역관 가공

- 미들랜즈 클러스터 외,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클러스터는 제조업과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자동차·항공우주 중심의 첨단 제조와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첨단 IT 산업을 핵심 축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 형성

### □ 유망 품목

- (배터리·소재) 전기차 전환 가속화로 배터리 밸류체인 수요 급증
  - NCM(니켈·코발트·망간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 소재), LMFP(리튬·망간·철 인산염 계열 차세대 양극소재) 등 셀·모듈 부품, 전해액·분리막·애노드(음극), 캐소드(양극) 소재, 열관리 시스템 등
- (전장부품) ZEV 의무제, OEM 전동화 로드맵에 따른 수요 증대
  - 인버터(전류 변환 장치), 온보드차저(차량 내 충전기), SiC(실리콘 카바이드)·GaN(갈륨 나이트라이드) 기반 반도체 소자, 자율주행 센서 등
- (경량·고강도 소재) 탄소섬유복합재(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알루미늄 합금 등
  - 항공우주, 프리미엄 EV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경량화 소재 수요 증가
- (자동화 설비) 인력난·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해 제조현장 효율화·에너지 절감 중심의 자동화 투자 확대
  - 스마트팩토리 전환 및 AI·로보틱스 기반 생산공정 자동화 설비

## □ 진출전략

- (주요 플레이어 대상 협력 기반 조성) 클러스터 내 Tier 1 및 OEM 발굴, 공급망 협력 노력
  - 브렉시트 이후 OEM 조달 정책이 현지 생산 및 가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부품의 직수출보다는 현지화를 최종 단계로 하는 전략 필요
  - ‘현지 조립·가공 거점 + 한국 본사 부품 공급’의 하이브리드 공급망 설계로 생산 비용 및 물류 효율 최적화
  - 글로벌 완성차 및 항공 협력사 중심의 합작법인(JV) 또는 기술 제휴형 진출 모델을 확대해 현지 인증·조달망 레퍼런스 확보
  - 영국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AMRC), Catapult Network 등 기술혁신 센터와의 공동 R&D 및 시제품 테스트 협력을 통해 인증·기술 신뢰도 제고



### 주요 진출 사례 : 기업 K사, 영국 금형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초경합금 절삭공구 및 금형 제조 기업. 국내외 자동차·항공·정밀가공 산업에 다수 공급
- (진출 사례) 영국 버밍엄 인근에 현지 법인 설립하여 유럽 고객사 대응 강화
  - 영국 내 제조업 기반이 집중된 버밍엄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 전개를 위해 법인 설립
- 설립 과정에서 KOTRA 런던무역관이 발간한 투자 실무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법인 설립, ▲사무실 임차, ▲채용·노무·비자 등 투자 진출 절차 A~Z 수행
- (시사점)
  - 한국 기업의 정밀 가공·소재 경쟁력은 영국의 첨단 제조 클러스터 수요와 부합하며, 단순 수출이 아닌 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조달,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신뢰도 제고
  - 무역관의 자료, 가이드 활용 및 현지 네트워크 지원이 초기 리스크 관리와 성공적 시장 진입의 핵심 역할을 함

- (AI·DX 활용 기반 강화) 스마트 제조·로보틱스 등 한국의 강점 고부가 기술 부각
  - 에너지 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효율 개선 등 KPI 중심의 성과 기반(Energy Cost Saving Outcome, ECSO) 계약 확대
  - 영국 정부의 ‘Made Smarte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소 제조 기업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최대 50%)을 통한 공동 시범 사업 수행 가능
    - \* (Made Smarter) ’19년 이후 영국 제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기업 공동 자금 출연 중
- (규제 선제 대응) UKCA\*, UK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대응
  - (UKCA) 제품 표기, 기계류·저전압·EMC 등 적합성·안전 문서 세팅



## UKCA(UK Conformity Assessed) 인증 유예

- 브렉시트 이후 EU의 CE 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내 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 영국 정부는 CE 마크 병행 인정 기간을 당초 '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26년 이후까지 잠정 무기한 연기
- UKCA 마크 단독 인정 시점은 향후 정부 발표 내용을 통해 확인 필요

- (UK CBAM) EU CBAM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차이점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 UK CBAM(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 정식 명칭 : UK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 (목적) 고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수입품에 대해 제조 시 발생한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탄소 누출 방지
- (적용 대상)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유리, ▲세라믹(7대 고탄소 배출 제조업) 우선 적용
- (과세 방식) 납세 책임자인 수입자가 수입 신고 시점의 탄소 배출량과 UK ETS(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탄소세(Levy) 납부(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선택하되, 제3자 검증 필수)
- (시행 시기) '27년 1월 1일 부(시행 전까지 기본값(Default Value) 목록, 면제 기준 등 지속 조정 예정

| 시기               | 내용  |
|------------------|---|
| '25년 3~7월        | 1차 입법 초안에 대한 기술적 의견 수렴(technical consultation) 완료 |
| '25년 10월~'26년 3월 | 세부 지침 세트 발표 예정(기본값 목록, 제품 범위, 계산 방식 등)            |
| '26년 상           | 수입자 등록 시스템(HMRC), 보고 방식 안내 등 운영체계 구축              |
| '26년 하           | 기업 대상 시범 운영 또는 사전 신고 연습 기간 가능성 검토                 |
| '27년 1월 1일       | UK CBAM 정식 시행, 탄소세(Levy) 납부 의무화                   |

- (시사점) 수출경쟁력의 판단 기준이 원가·품질 중심에서 탄소 투명성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에 기술·과세 장벽으로 작용 예상.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제조공정 또는 저탄소 제품 생산 기업은 타 경쟁국 대비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기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이외에도 공급망투명성법(Supply Chain Transparency Act) 및 Net Zero Supply Chain Certification 등 친환경 조달 기준 선제 대응 필요

## 전략 ② (넷제로)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연계 공급망 진입



### 전략 수립 배경

- '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영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산업 적극 육성
  - Clean Power 2030 Action, 현대 산업 전략-청정에너지 섹터 플랜 등을 통해 해상풍력, 수소, 전력망 등 세부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
- 한국은 케이블, 변압기, 모노파일 등 중후장대 기자재 공급 역량이 높아 영국의 인프라 현대화 및 송전망 확충 수요 연계 시 진출 여력 큼
  - LS전선, 대한전선, 세아원드 등의 주요 프로젝트 납품 실적으로 한국 기업의 레퍼런스 확보 기대

### □ 현지 동향

- 영국 정부는 '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영국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 GBE)를 설립하며 대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GBE는 영국 에너지-원자력(GBE-Nuclear)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83억 파운드(약 15조 6,000억 원) 투자 확정
  - 영국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NWF)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약 2,860만 파운드(약 553억 원) 투자 집행
  - 이외에도 항만, 기기팩토리, 친환경 철강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최소 58억 파운드(약 10조 9,000억 원) 할당 예정
-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국 해상풍력 산업 성장 계획(Offshore Wind Industrial Growth Plan(IGP, 2024))'을 발표하고, 국가 단위의 공급망 강화 및 인력·기술 클러스터 조성 추진 중
  - '30년까지 1만 1,000명 이상 신규 고용, 950억 파운드(약 179조 원)의 투자 유치 기대
  - 하지만, 초고압 직류송전(HVDC) 및 해상 수출 케이블, 변압기, 부유식 모듈 등 제조 역량 부족으로 외국계 협력 필요성이 큼
- (송전망) Nation Grid, '35년까지 약 540억 파운드(약 102조 원) 규모의 송전망 확충 추진
  -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17개의 송전라인 신설, 8개 초고압 직류송전(HVDC) 해저 케이블 구축 예정
- (수소) '30년까지 저탄소 수소 10GW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첫 번째 수소 할당 라운드(HAR1)에 11개, HAR2에 27개 프로젝트 선정

## □ 유망 품목

- (전력 송전 및 변전설비) HVDC 해저케이블, 커넥터, 부속장치, 대형 변압기 등
  - (선정 사유) 해상풍력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프로젝트 추진으로 해저케이블, 초고압직류(HVDC) 케이블, 변환소 설비 등 수요 확대
-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 (선정 사유) 한국 정부의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와 함께 한국 기업은 수소 저장·운송·활용 단계에 걸쳐 기술력과 경쟁력 보유

## □ 진출전략

- (주요 플레이어 대상 협력 기반 조성) 해상풍력·수소 분야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업 연계 진출
  - 영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을 위해 Great British Energy(GBE)를 중심으로 7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 국내 조달·생산 역량 강화를 유도
  - 이에 대응해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작·법인형 진출을 통한 조달 시장 접근이 유리
  - 국내 모노파일, 고압전선 등 발전 및 송전 관련 기자재 기업들이 그린필드\*나 판매법인을 통해 영국에 진출한 사례 다수
- \* 기업이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해외 투자 방식



### 프로젝트 분야 한국 기업 주요 참여 사례 : 고압송전망 확충 사업 참여

- (H사) London Power Tunnels 프로젝트에 EconiQ 가스와 호환되는 친환경 변압기 납품 계획 체결 ('24년 1월)
- (L사) London Power Tunnels 2 프로젝트에 400KV 케이블 시스템의 디자인 및 공급, 접속 공사 수행 예정
- (L사·T사 컨소시엄) 영국 전력망 운영기관인 National Grid와 EGL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고압송전 (HVDC) 케이블 공급 계약 체결('25년 3월)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영국의 송배전망 확충 사업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대규모 프로젝트로, 고효율 전력기자재, 수소 저장 시스템, 케이블 엔지니어링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영국 내 EPC 참여를 위해서는 National Grid Approved Vendor List 등 공인 공급자 등록 절차 사전 이행 필요

자료: 언론 발표 자료 KOTRA 런던무역관 종합

- 또한, 해상풍력 및 전력망 프로젝트의 공공 입찰(Allocation Round) 참여를 위한 기술 기준, 입찰 프로세스, 가격 요건 등의 정보 공유 필요
- (연구개발) 영국의 주요 연구소 및 기업들과의 R&D 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 인증·레퍼런스 확보 중요
  - \* 국내 기업 L사, 계열사와 함께 영국 해양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B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5년 2월)

- (AI·DX 활용 기반 강화) 스마트그리드, ESS, 디지털 모니터링 등 현지 기술 니즈 공략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에너지저장장치(ESS),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영국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의 핵심 축으로 부상
  - 국내 ICT·제조 융합 기업이 보유한 AI 예측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IoT 센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솔루션은 영국 전력망 현대화 수요에 적합
  - Equinor, National Grid, Scottish Power 등 주요 EPC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발전량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기술 상용화 가능
- (규제 선제 대응) 관련 기자재 납품 시 UK CBAM, EPR 등 환경·안전·규제 기준 사전 대응 필요
  - '27년 영국 탄소국경조정제(UK CBAM) 도입에 따라, 부품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체계 마련 필요
  - 에너지 효율성(EEE Regulations), 폐기물 관리(Waste Framework Directive), 재활용 의무 (EPR Packaging Regulations) 등 환경 관련 법률 준수 필수
  - UKCA 인증(전기·기계류 안전성, EMC 등) 및 관련 기술 문서 구비 필요
  - 향후 Supply Chain Transparency Act, Net Zero Supply Chain Certification 등 공급망 ESG 평가 기준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조달·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전략 ③ (디지털 헬스케어) 국민보건서비스(NHS) 디지털 전환 대응



### 전략 수립 배경

- 영국 정부, '35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생명과학 강국 도약 목표로 Life Sciences Sector Plan('25년 7월) 발표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NHS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AI 진단·원격의료 등 기술 적극 도입 추진
-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의료 AI 소프트웨어 등에서 경쟁력 보유
- 고령화, 인력난, 비용 절감 압박 등으로 영국 NHS가 디지털 전환 및 외부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시점에, 한국 기업의 기술과 제조 효율성 그리고 ICT 융합 경험이 높은 부합성을 보임

### □ 현지 동향

- 영국 생명과학 산업은 '24년 기준 총부가가치(GVA) 약 212억 파운드(약 39조 9,000억 원), '35년까지 410억 파운드(약 77조 2,000억 원)로 성장 전망
    - 수출액은 제약 약 260억 파운드(약 49조 원), 의료기기 100억 파운드(약 18조 8,000억 원)로 유럽 내 상위권
  - 주요 클러스터는 런던 및 근교 도시(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스코틀랜드(재생의학), 노스이스트·웨스트(백신·바이오의약품), 웨스트미들랜즈(헬스테크) 지역 등으로 확산 중
  - 정부는 Health Data Research Service(HDRS)\*, 생명과학 혁신제조 기금(Life Sciences Innovative Manufacturing Fund, LSIMF) 등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제조 및 AI 데이터 기반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약 20억 파운드 투자 계획 중
- \* NHS, 임상, 처방, 진단 등 영국 내 전역에 흩어진 보건·의료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26년 말 1단계 서비스 예정)

### □ 유망 품목

- (디지털 헬스·AI 진단기기) AI 영상·음성 기반 진단,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등
  - (선정 사유) 영상 판독, 생체 신호 분석 등 국내 기업의 의료 AI 기술이 영국의 NHS 디지털화 정책과 부합
- (의료 데이터 플랫폼 및 보안 솔루션)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 전자차트(EHR) 연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 (선정 사유) NHS의 데이터 통합·디지털화 전략과 연계하여 데이터 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보호·암호화 분야 공략

## □ 진출전략

- (주요 플레이어 대상 협력 기반 조성) 주요 제약·바이오 허브 및 지방 소재 병원 협력 강화, 영국 내 레퍼런스 확보
  - (제약) 주요 정책 사업 대상 분야인 바이오 제조 혁신 기술 중심, 현지 연구기관과의 공동 임상·검증 추진
  - (의료기기) NHS Supply Chain 등록을 위한 MHRA 인증 취득 및 Health Innovation Network (HIN)와의 협력으로 시범 사업 참여 기회 확보



### 생명과학(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분야 우리 기업 진출 사례

- (M사)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영국 내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및 대학 연구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런던 및 케임브리지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AI 가상 후보물질 발굴 및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 솔루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중
    - 최근에는 영국 보건기술혁신허브(NHSA, Northern Health Science Alliance) 주관 AI 신약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NHS의 데이터 기반 연구 인프라와의 연계 강화 중
  - (N사) AI 기반 현미경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영국 내 의료기관 및 NGO 등과 협력 중
    - '24년 런던대학(UCL) 산하 Global Health Innovation Unit과 저자원국 감염병 진단 프로젝트 공동 연구 착수
    - 향후 NHS의 디지털 병리·원격진단 시스템과의 연계를 목표로 UKCA 인증 절차 및 파트너사 협력 진행 중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영국은 AI·디지털 헬스·진단기기 융합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NHS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 진단 솔루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 기업은 AI 의료 소프트웨어, 디지털 진단기기, 의료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아 향후 NHS 진입을 위한 현지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임상·인증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AI·DX 활용 기반 강화) AI·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공급을 통한 NHS 디지털 전환 기여
    - 한국 기업의 강점인 ICT 융합 기술 및 의료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웨어러블 기기, 병원정보시스템 연동 솔루션 등 제안
  - (규제 선제 대응) CE·UKCA 인증 병행 기간 활용 및 영국 의약품·의료기기규제청(MHRA)\* 승인 요건 확인
    - (AI·SW 기반 의료기기) MHRA의 'Software and AI as a Medical Device(SaMD)' 가이드라인 ('24년 5월)을 기준으로 승인 절차 사전 점검 필요
    - 의료데이터 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기술 적용 필수
- \*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기관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정성·품질·효능 평가, ▲시장 출시 전 인허가 및 인증 관리, ▲부작용, 리콜 등 사후 모니터링 등의 업무 수행

## 전략 ④

## (소비재) 현지 한류 확산을 활용한 소비재 및 식품 시장



### 전략 수립 배경

- 영국은 유럽 3위의 주요 소비재 시장으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 확산력이 높아 유럽 진출의 테스트 베드이자 교두보 시장으로 평가됨
- K-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한국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전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뷰티) 합리적 가격과 SNS 마케팅을 통해 주요 H&B 리테일 브랜드 입점 확대 중
- (식품) 영국 내 한류 트렌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주요 유통망(Sainsbury, Tesco)이 김치, 라면, 스낵, 소스, 음료 등 K-푸드 제품을 유통하며 판매 증가세

### □ 현지 동향

- (규모) '24년 영국 소매유통(Retail)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는 1,118억 파운드(약 211조 437억 원)로, 영국 전체 경제의 4.5% 차지(영국 통계청(ONS), '25년 9월)
- (유통 구조) 대형 유통사 중심의 오프라인 체인 유통망이 시장 매출의 약 70%를 점유하며, 특히 식료품 및 필수품 중심 강세
  - (오프라인) 체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접목한 경험 중심의 리테일 공간으로 진화
    - \* 팝업스토어, AR·VR 체험존, 인스타그램·틱톡용 포토스팟 제공 등
  - (온라인) 전체 시장의 30% 차지, '29년까지 연평균 5.4% 성장이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24년 영국 내 Top 10 소매 판매 유통망

| 순위 | 유통망   | 점유율   | 사업영역             | 유통채널                  | 입점 방식              | 설명   |
|----|---|-------|------------------|-----------------------|--------------------|--|
| 1  |  TESCO       | 10.7% | 식품, 의류, 생활용품     | 온라인, 오프라인<br>(온라인 일부) | 직매입, 위탁<br>직매입(일부) | 영국 최대 유통 업체로, 전국 오프라인망과 온라인몰을 모두 운영하는 종합 슈퍼 체인 |
| 2  |  amazon.co.u | 6.1%  | 종합               | 온라인                   | 위탁,<br>직매입(일부)     | 온라인 중심의 종합 플랫폼 운영                              |
| 3  |  Sainsbury'  | 5.2%  | 식품, 의류           | 온라인, 오프라인             | 직매입                | 식품·의류 중심의 중고가 슈퍼 체인                            |
| 4  |  ASDA        | 4.9%  | 식품, 의류, 생활용품     | 온라인, 오프라인             | 직매입                | 대형마트형 저가브랜드 체인                                 |
| 5  |  ALDI        | 4.1%  | 식품               | 오프라인                  | 직매입                | 독일계 할인매장 체인, 소량 중심의 초저가 전략 전개                  |
| 6  |  Morrisons   | 3.1%  | 식품               | 온라인, 오프라인             | 직매입                | 식품 중심 오프라인 체인, 자체 생산 설비 기반의 유통망 보유             |
| 7  |  M&S         | 2.7%  | 식품, 의류, 가구, 가정용품 | 온라인, 오프라인             | 직매입                | 프리미엄 식품·패션 중심 백화점형 리테일                         |
| 8  |  LIDL       | 2.5%  | 식품               | 오프라인                  | 직매입                | 독일계 저가형 슈퍼마켓                                   |
| 9  |  ebay UK   | 2.3%  | 종합               | 온라인                   | 위탁(주요)             | 개인·소상공인 중심의 온라인몰                               |
| 10 |  Coop      | 1.6%  | 식품               | 온라인, 오프라인             | 직매입                | 협동조합 기반 지역 밀착형 슈퍼체인                            |

자료: Euromonitor,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런던무역관 정리

## □ 유망 품목

- (K-뷰티) Boots, Superdrug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 K-뷰티 브랜드 전용 코너 운영
  - 제2의 조선미녀, 바이오던스를 찾기 위한 브랜드 발굴 및 독점 계약 수요 확대
  - 'Glass Skin(유리알 같이 매끈한 피부)' 트렌드로 인삼, 달팽이 점액, 쌀 등 천연 유래 성분 강조한 기초 스킨케어 제품 주목

## 영국 주요 화장품 판매 채널 및 K-뷰티 제품 입점 현황

| 구분        | 유통망       | 주요 현황   | 매장별 디스플레이 사진   |
|-----------|-----------|---|--|
| 대형 유통채널   | Boo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브랜드. 영국 전역에 약 2,000개 매장 보유</li> <li>(입점 K-뷰티 브랜드) 코스알엑스, 에르보리앙, 조선미녀, 닥터 자르트, 라네즈 등 K-뷰티 브랜드 다수 입점</li> </ul>   |   |
| 대형 유통채널   | Superdru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H&amp;B 판매 체인</li> <li>'24년 전자상거래 판매 규모 1위 기록</li> <li>(입점 K-뷰티 브랜드) 최근 조선미녀, 엑시스와이, 하루하루 등 입점</li> </ul>   |   |
| 대형 유통채널   | SpaceN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Z세대 및 알파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뷰티 유통 체인</li> <li>(입점 K-뷰티 브랜드) 이니스프리, 에르보리앙, 라네즈 등 입점</li> </ul>  |    |
| 대형 유통채널   | Amaz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장</li> <li>(입점 K-뷰티 브랜드) 코스알엑스, 하루하루, 메디큐브, 아누아, VT 등 판매</li> </ul>   |   |
| 화장품 전문 유통 | PureSeo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내 한국 화장품 판매 매장 최다 보유</li> <li>'24년 기준 영국 전역 약 6개 매장 보유 및 3개 추가 오픈 예정</li> <li>(입점 K-뷰티 브랜드) 아비브, 삐아, 메디큐브, 오후라 등</li> </ul>   |   |
| 화장품 전문 유통 | 기타        | <p>[Glam Tou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런던 내 매장 2개 보유(Soho, Bloomsbury)</li> <li>(입점 K-뷰티 브랜드) 바닐라코, 아누아, 구달, 릴리바이러드 등</li> </ul> <p>[Skin Cupi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몰 위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 런던 시내 Soho에 대형 팝업 매장 오픈</li> <li>(입점 K-뷰티 브랜드) 제로이드, 엑시스와이, 쿤달, 닥터자르트, 에뛰드 등</li> </ul> <p>[Moida K-beau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런던 내 2개 매장 보유(Soho, Westfield London)</li> <li>(입점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달바, 엑시스와이, 막순, 티르티르 등</li> </ul> | <br>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런던무역관 조사 및 기공

- (K-푸드) Tesco, Sainsbury's, Asda 등 대형 유통망 입점 확대 및 한식 브랜드 확대
  -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영국 소비자들이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SNS 마케팅 효과가 더해 지면서 한식 또는 코리안 스타일의 퓨전 메뉴 확산
  - 김치, 라면, 소스류 등 인기 품목 중심에서 냉동식품, 간편식 등으로 확장

#### '24년 영국 내 Top 5 유통망 한국 제품 판매 동향

| 순위 | 유통망  | 주요 입점 제품   | 세부 동향  |
|----|--|--|--|
| 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냉동 즉석식품, 라면, 주류, 김치, 소스류, 스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 매장(Tesco Extra) 중심 판매. 지역 인구 구성에 따라 한국 식품 코너 유통적으로 운영</li> </ul>   |
| 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뷰티, 생활용품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뷰티와 식품 분야 판매 활발하며, 신라면, 비비고 등 주요 브랜드 제품 유통 중</li> </ul>               |
| 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냉동 즉석식품, 라면, 주류, 김치, 소스류, 스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사 브랜드 ‘Pan-Asia’를 통해 한국식 즉석식품 판매</li> </ul>                          |
| 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편식, 스낵, 소스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 내 ‘Panku’ 브랜드 운영을 통해 한국, 태국 등 아시아식 Street Food ‘솝인솝’ 운영</li> </ul> |
| 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석식품, 한국식 시즈닝, 소스, 라면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사 브랜드 ‘Specially Selected’ 라인업을 통해 한국식 즉석식품 판매</li> </ul>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련던무역관 종합

#### □ 진출전략

- (주요 플레이어 대상 협력 기반 조성) 영국 대형 및 로컬 유통망 한류 수요 공략
  - (K-뷰티) Boots, Superdrug 등 H&B(Health and Beauty) 체인 내 K-뷰티존 입점 및 공동 마케팅 협의 추진
  - (K-푸드) Tesco, Sainsbury's 등 대형 식품 유통망은 PB(Private Brand) 협업 형태로 진입 고려 가능하며, 아시안 식품 및 로컬 유통망을 통한 시장 초기 진입 기반 마련

### 영국 내 주요 로컬 유통망 현황

| 연번 | 유통망  | 주요 취급 제품              | 세부 동향  |
|----|--|-----------------------|--|
| 1  |  Longdan          | • 식품(온·오프라인)          | • 영국 내 14개 지점 운영, 아시아 식품 전문 슈퍼마켓 체인<br>• CJ, 대상 등 한국 브랜드 전용 섹션 마련  |
| 2  |  Wing Yip         | • 식품(오프라인)            | • 영국 내 4개 지점 운영, 4,500개 이상의 아시아 식품 취급<br>• 중국계 아시아계 고객 중심이었지만, 최근 현지인 고객층으로 확장됨에 따라, 제품군도 넓혀가고 있음                              |
| 3  |  Tian Tian Market | • 식품, 라이프스타일 (온·오프라인) | • 영국 내 12개 지점 운영, 1만 개 이상의 제품 취급<br>• SNS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최신 제품 정보,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등의 혜택 제공<br>• 인스토어 사식 이벤트, 제품 데모 등 고객 참여형 마케팅 활발 |
| 4  |  Japan Centre     | • 식품, 라이프스타일 (온·오프라인) | • 영국 내 3개 지점 운영, 1,500개 이상의 제품 취급<br>•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본 식품 전문 유통망이지만, 최근 한국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제품군 확대                                  |



### 현지 바이어가 전하는 한국 소비재 수요 동향

- 영국 내 아시아 식품 전문 체인 L사 마케팅 담당자 인터뷰
  - 최근 자사는 KOTRA 런던무역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석 연휴 동안 런던 시내에 있는 주요 매장 한 곳에서 K-푸드 제품 시식회를 진행함. 주요 제품은 즉석 조리형 닭강정, 김치전 키트, 그래놀라, 쌀국수, 비빔밥 키트 등이 있었음
  - 키트 제품이나 닭강정과 같은 즉석 조리 식품은 현지 간편식 시장의 성장세에 맞는 제품이라고 판단되며, 그래놀라와 쌀국수 또한 최근 영국 내 식품 트렌드인 건강·웰빙 콘셉트와 일치하기 때문에 비건 또는 글루텐프리 인증 확보 시 입점 절차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함
  -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고객이 매장을 찾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보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았음. 그 중 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제품은 향후 정식 계약 체결을 통해 매장에 입점시킬 계획임

- (AI·DX 활용 기반 강화) 한류 활용 온·오프라인 혼합형 디지털 마케팅 강화
  - (소셜 마케팅을 통한 'K-Lifestyle' 콘텐츠화) SNS를 중심으로 K-팝, K-드라마 관련 챌린지, 제품 체험 콘텐츠 등 'Culture Commerce' 모델 적극 활용
  - (D2C(Direct-to-Consumer) 플랫폼 강화) 초기 진입 이후 장기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몰 또는 Shopify, Tik Tok Shop 등 직접 판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지 소비자 피드백 기반 판매 데이터 확보 필요

- (규제 선제 대응) FSA, SCPN, 라벨링 등 제품 유형별 규제 준수 관리
  - (식품)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의 Food Safety Act 1990, EU·UK Food Information Regulations가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 성분, 알레르기 등 정보 제공 필수

### 영국 포장 식품 라벨링 필수 표기 항목 요약

| 구분                | 세부 내용  |
|-------------------|--|
| 식품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li> <li>• 가공 식품인 경우 가공 방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 '훈제 베이컨(Smoked Bacon)', '소금에 절인 땅콩(Salted Peanuts)' 등</li> </ul> </li> </ul>   |
| 성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과 첨가물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ingredients' 항목으로 표시하여 각각 기재 필요</li> <li>• 모든 원재료는 사용된 양(중량) 순으로 나열하며, 주성분은 비율(%) 명시</li> </ul>   |
| 알레르기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으로 표시가 요구되는 14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성분 내 강조 표기 필요</li> <li>• 대상 : 셀러리,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달걀, 생선, 루핀콩, 우유(유제품 포함), 연체동물, 겨자, 땅콩, 참깨, 대두(콩),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견과류</li> </ul>   |
| 순중량(Net Quant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또는 5ml를 초과하는 제품은 g, kg, ml, L 단위로 순중량 표시</li> <li>• 허브나 향신료(Spices)도 단위 표기 필수</li> </ul>   |
| 원산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가금류, 생선, 조개, 꿀, 올리브 오일, 와인, 과일, 채소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li> <li>• 주재료의 원산지와 제조지가 다를 경우 별도 명시</li> <li>• 또한, 'Made in UK' 또는 'Product of UK'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 영국에서 제조되었거나 가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li> </ul>  |
| 유통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소비기한(Best Before)' 또는 '사용기한(Use by)' 표기</li> </ul>  |
| 사용법 또는 조리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 온도 및 시간, 전자레인지 사용 조건 등 안전 섭취를 위한 지침 제공</li> </ul>  |
| 제조·판매·수입<br>업체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소유자명 또는 수입업자명과 주소 표기</li> <li>• '24년 1월 1일 이후 반드시 영국(GB), 채널 제도(Channel Islands), 맨섬(Isle of Man) 중 하나의 실제 주소 포함</li> </ul>   |
| 영양성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표기 항목을 포함하여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표시</li> <li>• 열량(Energy),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s), 탄수화물(Carbohydrate), 당류(Sugars), 단백질(Protein), 소금(Salt)</li> </ul>   |
| 보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시 제품 안전성을 위한 보관 지침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Store in a Cool, Dry Place)"</li> </ul> </li> </ul>   |
| 기타 주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문 부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 도수가 1.2% 이상에 해당하는 음료</li> <li>• 인공색소 'Southampton Six'(식품색소 6종) 사용 시</li> <li>• 카페인 150mg/L 이상 함유</li> <li>• 아황산염 10mg/kg 이상 함유</li> <li>• GMO(유전자 조작) 원료 포함(0.9% 이하 및 우연 혼입 제외)</li> <li>• 방사능 처리 식품</li> <li>• 보호가스 포장 시 'Packaged in a Protective Atmosphere' 문구 표기</li> </ul> </li> </ul>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Food Standard Agency(FSA) 'Packaging and Labelling', KOTRA 런던무역관 정리

- (화장품) '21년 1월 1일부로 기존 EU의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시스템을 대체하는 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SCPN)'를 구축



### 현지 SCPN 인증 등록 컨설팅사(P사) 담당자 Q&A

- '21년 1일 1일부로 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출시 전 SCPN 등록이 필수이며, 성분 안정성 보고서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라벨링,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지정 등 관련 요건 충족 필요

Q1) CPNP와 SCPN 등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CPNP를 등록했다면 SCPN 등록이 더 간편한가요?

A1) SCPN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신설된 화장품 등록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유럽 CPNP 규정을 거의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내 판매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지정되어야 하며, SCPN 등록 포털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 CPNP 등록을 완료했다면, 등록 시 작성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PIF)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국 내 RP가 포털사이트에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추가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Q2) 현재 CPNP와 SCPN 모두 등록한 이력이 없다면,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좋은가요?

A2)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PIF)를 작성하게 되면 CPNP와 SCPN 등록에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 전체를 타깃으로 한다면 한번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더마 화장품 등록은 다른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3) 영국과 유럽은 화장품과 의약품 두 개의 카테고리로만 분류되어 있고, 화장품은 기능성과 일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마 화장품도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등록 가능합니다.

\* 단, CPNP·SCPN 등록 시 피부에 도포하는 제품만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직접 주사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품 구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생활용품 및 전기·전자제품) CE·UKCA 인증 병행 기간 활용
- (포장재) 포장재 규제, 탄소중립 목표 등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유통망과 제조사 모두 친환경 배송 및 포장재 관련 대응 필요
  - \* 일회용 플라스틱(비닐봉투, 컵, 빨대, 식기류 등) 판매 금지, 포장재 생산·판매자 책임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 등
- (기타 주의사항) 현지 유통 파트너와 계약 시 제품 책임, 반품·리콜 의무, 마케팅 비용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독점권, 판매 채널 제한, 가격 정책 등 계약 조건에 따른 법적 책임 확인 필요



## 전기자동차 부품

- 선정사유**
- ZEV 의무제로 인한 수요 증가
  -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배터리, 첨단소재 분야 경쟁력 및 글로벌 OEM 납품 경험 보유
- 경쟁동향**
- 다양한 완성차 브랜드에서 영국 시장에 전기차 출시 중
  - '24년 기준,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는 1위 테슬라 모델 Y, 2위 아우디 Q4 e-tron, 3위 테슬라 모델 3, 4위 MG4, 5위 BMW i4 등
- 진출방안**
- 한국 전기차 기업(현대, 기아 등)에 납품한 실적을 활용한 마케팅 지속
  - 전기차 전환에 따라 변화되는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 필요
  - 현지 파트너 구축을 통한 납기 준수 및 AS 대응 전략 마련
  - 공공기관, 버스, 택배 등 상용차 관련 전시회 및 네트워킹 행사 등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

## 항공기 부품(8803)

- 선정사유**
- '50년까지 항공 부문 탄소중립 목표 설정
  - 영국은 항공우주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기 부품 수요가 꾸준
  - 정부의 안보 강화 정책으로 방산 장비 수요 증가 예상
  - 영국은 NATO 회원국으로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배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첨단화를 위한 첨단기술 장비에 지속 투자하고 있음
- 경쟁동향**
- 엔진, 날개, 랜딩기어, 항공기 내 전자기기 등 항공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이 시장을 형성
  - Rolls Royce, BAE Systmes, Airbus와 같은 주요 항공·방산 기업은 민·군을 아우르는 통합 생산 체계 유지
  - 특히 영국 기업인 Rolls Royce에서 제조한 엔진은 35종 이상의 상업용 항공기에 사용되며,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 보유
- 진출방안**
- 부품 조달 관련 레퍼런스 혹은 최신 기술 및 경쟁력 있는 가격 구조가 요구됨
  - 영국 항공우주 공급망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품질 표준(AS9100, NADCAP)과 영국 항공안전청(CAA)의 CAA Form 1 확보 필요

##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

- 선정사유**
-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가 재생 가능 에너지 확산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며 수요 확대 중
  - 영국의 배터리·BESS 시장 규모는 1억 7,690만 달러로, 연평균 33.5% 성장 하여 '30년 13억 3,440만 달러로 성장 전망
  - BESS는 한국 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로 해외 수출 성공 사례 多
- 경쟁동향**
- GE, Siemens Energy 등에서 높은 점유율 보유
  - 최근 Wartsila와 같은 중국 기업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에서 영국 시장에 진출하여 주요 공급업체로 활동 중
- 진출방안**
- 영국 내 에너지 기업 및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혁신 기술 개발과 경쟁우위 확보 필요

## 전력 케이블

- 선정사유**
- 영국 내 전력망 확충 및 해상풍력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케이블 수요 급증 전망
  - 특히 한국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한 HVDC 및 해저 케이블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경쟁동향**
- 증가하는 케이블 수요에 맞춰 영국 제조업체들도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양상
  - LS전선, 대한전선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기업의 제품 납품 또한 활발
- 진출방안**
- The Great Grid Upgrade, Eastern Green Link 등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제품 납품
  -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품질 개선이 필수적
  - HVDC 및 해저케이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레퍼런스 적극 활용

## 해상풍력 터빈 부품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 시장을 보유한 국가</li> <li>• 영국 정부는 '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 43~50GW 달성을 목표로 해상풍력 시장에 지속적 으로 투자할 계획</li> <li>• 해상풍력 산업 성장 계획(IGP)에 따르면, '30년까지 영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간 평균 300기의 풍력 터빈 발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해상풍력 터빈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는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 GE Vernova, Nordex 등이 있음</li> <li>• 한국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차 영국 해상풍력 시장 내 입지 확대 중</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테드(Orsted), SSE 등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담당 EPC 기업에 제품 납품</li> <li>• 영국 해상풍력 공급망 세미나 개최 등으로 영국 산업계와의 네트워킹 기회 마련 및 협력 방안 모색</li> <li>• Global Offshore Wind, UK Offshore Wind Supply Chain Spotlight 등 관련 전시회 참여로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li> </ul> |

## 스킨케어 제품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 콘텐츠 확산 및 'Glass Skin' 트렌드로 한국 화장품 인지도 상승</li> <li>• 자연·비건·기능성 성분 제품 선호 추세와 부합</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ots, Superdrug, SpaceNK 등 주요 리테일에 조선미녀, 라네즈, 코스알엑스 등 입점 확산</li> <li>• 현지 브랜드 The Ordinary, Simple 등과 가격, 효능 경쟁</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화장품 등록 시스템(SCPN) 및 영국 내 책임자(RP) 지정 필수</li> <li>• SNS 기반 인플루언서 협업 마케팅 강화</li> <li>• K-뷰티 섹션을 보유한 주요 H&amp;B 체인 입점 추진</li> </ul> |

## 한국 간편·냉동식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국 내 아시아 퓨전 식문화 확산 및 한류 콘텐츠 영향으로 수요 급증</li><li>• 영국 내 간편식 섭취가 보편화되어 있어 한식 간편식, 소스류, 냉동식품류는 현지 리테일 진입 여력이 큼</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Tesco, Sainsbury's 등 대형 유통망 및 로컬 유통망 내 한국식 브랜드(비비고, 오푸드 등) 입점 확산</li><li>• 현지 PB 브랜드와의 협업 증가</li><li>• 한국 스타일을 표방한 퓨전 음식 확산</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국 FSA(Food Standards Agency) 라벨링 및 알레르기 표기 규정 준수</li><li>• SNS 및 로컬 유통망 중심 시식, 체험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li></ul>                         |



## 무배출 항공기 소프트웨어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무배출 항공기 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기 소프트웨어 시장 뒷받침 필수</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배출 항공기 설계, 연료 효율성 분석, 비행 최적화 등 분야에서 Pace, Ricardo, Hyflux Aerospace 등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음</li> <li>•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Flyzero 프로젝트, ZeroAvia, Green Aerospace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탄소 배출 없는 항공기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eVTOL 또는 경비행기 대상 시장 진입 후 확대</li> <li>• 공항, 충전 설비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 통합</li> <li>• 무배출 항공기 기체 제조사가 상용화를 위해 관심이 높은 분야로, 현지 니즈에 맞춘 SW 개발</li> <li>• DO-178C와 같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영국 민간항공청(CAA)의 Design Organization Approval(DOA), Type Certification 등 인증 취득 필요</li> </ul> |

## 전기자동차 소프트웨어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정부 무배출 자동차 관련 정책과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추진하는 DRIVE35 프로그램을 통해 배터리 관리, 에너지 최적화, 커넥티드 플랫폼(차량-충전소, 차량-클라우드 등), 부품 수명 예측 정비 등 분야에서 Wayve, Oxa, Volteum, Charging Fairy 등 기업의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M·완성차 및 충전 인프라 업체와 협력을 통한 SW 공동 개발</li> <li>• 모듈형 SW 개발로 OEM이 원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li> <li>• 현지 전문 전시회 및 협회 네트워크 적극 활용하여 현지 파트너사 및 유통 기업과 네트워킹 확대</li> </ul> |

## AI 기반 진단솔루션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NHS의 Digital Health and Care Plan('24년)에 따라 AI, 원격진단 솔루션 도입 확대</li><li>• 한국은 영상진단, 피부, 폐질환 등 AI 의료 분석 분야에서 상용화 경험 풍부</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국 내 주요 기업은 Babylon Health, Skin Analytics, Kheiron Medical 등</li><li>• 의료데이터 접근 제약으로 스타트업 중심 경쟁 구조</li><li>• 한국 기업은 정밀도, 데이터 학습량 측면에서 기술 우위 보유</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NHS 디지털 전환 사업 및 HDRS(Health Data Research Service) 연계 참여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물색</li><li>• MHRA 등록 및 UKCA 인증 조기 확보</li><li>• 현지 헬스테크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또는 임상실증 진행</li></ul> |

## 탄소 포집·활용·저장 관련 기술(CCUS)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국 정부는 저탄소 수소 생산에 필요한 CCUS 개발에 '50년까지 500억 파운드 투입 계획' 발표</li><li>• 한국 정부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5개년 개발계획 및 연간 이행 계획을 포함하는 등 관련 기술 성장 전망</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당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기업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li><li>• 현재 기술 개발 기업들은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소 생산 관련 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수소 생산에 탄소 포집 적용 기술 개발</li><li>• 영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펀딩 기회 활용</li></ul>  |

### 첨부 3

##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26년 영국 지역 KOTRA 주요사업

| 구분   | 주요 사업명                      | 일시/장소         |
|------|-----------------------------|---------------|
| 마케팅  | 2026 BETT Show 한국관 운영       | 1월 21~23일/런던  |
|      | IFE 2026 전시회 연계 K푸드 진출 지원사업 | 3월/런던         |
|      | 영국 NHS AI 기반 의료기기 GP 사업     | 5월/런던         |
|      | 영국 미래차 산업 파트너링 Day          | 6월/버밍엄        |
|      | 한-영 항공우주 파트너링 사업            | 7월/판버러        |
|      | 2026 런던 미니 한류박람회            | 9월/런던         |
|      | 영국 전력기자재 진출 지원사업            | 10월/런던        |
| 해외취업 | 해외 취업 멘토링 행사                | 상·하반기 각 1회/런던 |
| 첨단인재 | 첨단 인재 유치 설명회 및 네트워킹 행사      | 상·하반기 각 1회/런던 |
| 조사   | 영국 미래차 산업 진출전략 기획보고서 발간     | 1분기           |

## 첨부 4

#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고용권 법안(Employment Right Bill) 개정 시행               | 4월     |    |
| 영국 전국 지방선거(Local Elections)                       | 5월 7일  |    |
| 지방 및 지역 정부 개편(Local Government Reorganisation) 연중 |        |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한-영 FTA 개선 협상 완료 후 비준 및 세부 후속 조치 | 연중          |    |
| 영국 무역구제청(TRA) 철강 반덤핑 조사          | 연초          |    |
| ESG/지속가능성 보고 기준(SRS) 최종 확정       | 연중          |    |
| UK CBAM 시행                       | 2027년 1월 1일 |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영국 해로게이트 크리스마스&선물 전시회(HCG)                      | 1월 11~14일    | 해로게이트 컨벤션 센터     |
| 영국 버밍엄 농기계 및 기술 전시회(LAMMA)                      | 1월 14~15일    | 버밍엄 NEC 전시장      |
| 영국 런던 장난감 전시회(The Toy Fair)                     | 1월 20~22일    | 런던 Olympia 전시장   |
| 영국 런던 교육장비 전시회(BETT)                            | 1월 21~23일    | 런던 EXCEL 전시장     |
| 영국 버밍엄 춘계 소비자 전시회(Spring Fair)                  | 2월 1~4일      | 버밍엄 NEC 전시장      |
| 영국 런던 데이터 전시회(Big Data LDN)                     | 3월 4~5일      | 런던 EXCEL 전시장     |
| 영국 버밍엄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회<br>(Digital Health Rewired) | 3월 24~25일    | 버밍엄 NEC 전시장      |
| 영국 런던 식음료 전시회(IFE)                              | 3월 30일~4월 1일 | 런던 EXCEL 전시장     |
| 영국 런던 국제 프렌차이즈 쇼(IFS)                           | 4월 17~18일    | 런던 EXCEL 전시장     |
| 영국 런던 핀테크 주간(UK Fintech Week)                   | 4월 20~24일    | 런던 Guildhall 전시장 |

| 주요 행사  | 일시(점정)       | 비고               |
|--|--------------|------------------|
| 영국 런던 미디어 제작 & 기술 전시회(MPTS)                          | 5월 13~14일    | 런던 Olympia 전시장   |
| 영국 버밍엄 제약 기술 혁신 전시회<br>(Med-Tech Innovation Expo)    | 6월 3~4일      | 버밍엄 NEC 전시장      |
| 영국 런던 테크 위크(London Tech Week)                        | 6월 8~12일     | 런던 Olympia 전시장   |
| 영국 맨체스터 글로벌 오프쇼어 원드(Global Offshore Wind)            | 6월 16~17일    | 맨체스터 Central 전시장 |
| 영국 버밍엄 소매 공급망&물류 전시회                                 | 6월 30일~7월 2일 | 버밍엄 NEC 전시장      |
|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br>(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 7월 20~24일    | 햄프셔 판버러 공항       |
| 영국 버밍엄 하계 소비자 전시회(Autumn Fair)                       | 9월 6~9일      | 버밍엄 NEC 전시장      |
| 영국 런던 프리미엄 식품 박람회(Specialty & Fine Food Fair)        | 9월 15~16일    | 런던 Olympia 전시장   |
| 영국 버치우드 원자력 전시회<br>(Birchwood Nuclear Exhibitions)   | 9월 중         | 영국 버치우드          |
| 영국 런던 커넥티드 전시회(Connected Britain)                    | 9월 중         | 런던 EXCEL 전시장     |

### 〈작성자〉

| 연번 | 작성자 | 직책 | 소속    | Tel                 | Email                   |
|----|-----|----|-------|---------------------|-------------------------|
| 1  | 김연진 | 과장 | 런던무역관 | +44 (0)20 7520 5303 | ellie.kim@kotra.or.kr   |
| 2  | 류지혜 | 책임 | 런던무역관 | +44 (0)20 7520 5317 | angelaryu@kotra.or.kr   |
| 3  | 박선민 | 대리 | 런던무역관 | +44 (0)20 7520 5316 | sunmin.park@kotra.or.kr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2026 영국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01-0 (95320)